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털끝만한 그 차이에서
하늘과 땅의 다툼이 생기느니,
분명히 깨닫고자 하거든
비위에 맞느니 틀리느니
그런 생각을 두지 말라.
-숭산 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절불식의 모든 것
책임 상담에 들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6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8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 284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각종 동호회이다.

종교 나이 지연 학연 취미 등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한 동호회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처럼 매니아층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들은 게임 길드가 결성되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어 배틀넷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자 모임인 '이반'들도 의외로 많이 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PC통신에서부터 번져오기 시작한 사이버 동호회 열풍은 '다음넷'(www.daum.net), '프리챌'(www.freechal.com) 등과 같은 전문적인 동호회 결성 사이트의 출현으로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모교사랑'(www.iloveschool.net)과 같은 동문회 사이트의 폭발적인 인기는 오픈 1년만에 300만 회원확보라는 기록까지 낳게 됐다.

등호회 사이트들은 친목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컴퓨터 초보자들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좀더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호회들은 인터넷 주 이용자층인 학생 및 젊은 직장인들이 주류를 이룬다.

동호회 사이트 개설
신행활동 적극 유도

종교 관련 모임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넷에 개설된 종교 카페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카페는 '크리스챤 이성교제'이다. 서로 다른 종교로 인해 결혼마저도 쉽지 않은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기도 한 이 카페는 1만명의 넘는 방대한 규모로 반년이상 종교 카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종교와 현실적인 요구가 잘 맞아떨어진 카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종교 카페라 해도 그 카페가 가진 특색들은 모두 달라 지역이나 사찰, 나이 등에 얽매인 곳이 아니라면 개설 몇 달만에 500명은 거든하게 넘는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신행활동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동호회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채팅이나 게시판 활용으로 끝나지 않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신행의 기반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단순하게 사찰 학생회 청년회 등의 모임이 아닌 사찰단사 모임 등 좀더 관심있고 재미있는 분야의 동호회 결성에 눈을 돌릴 때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잡풀과 나무가 옥개석 낙수부에 자라고 있는 안동 신세동 7층전탑.

전탑 무너지고 있다

신세동 7층전탑 열차진동 기울어
신특사 다층전탑 몸체서 벽돌빠져

통일신라 탑파 양식의 모체가 됐던 전탑이 관리소홀로 붕괴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탑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는데도 몸체의 벽돌이 빠지고 탑 곳곳에 잡풀·잡목이 자라날 때까지 방치되고 있다.

흙으로 벽돌을 구워 쌓아올린 전탑으로는 유일하게 경기도 지방에 남아있는 신륵사 다층전탑(보물 제226호)은 탑신부의 벽돌이 빠지고 옥개석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본지의 23일 현장취재 결과 경기도 여주군 신륵사 경내에 세워져 있는 다층전탑은 1층 탑신부 중앙의 벽돌 하나가 빠지고 없음을 확인했다. 탑신부의 몸체를 덮고있는 지붕격인 옥개석도 빗물이 떨어지는 낙수부가 부분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곳곳에 잡풀과 작은 나무가 자라고 있다. 또 기단부와 탑신부도 아귀가 맞지 않아 틈새를 잡돌로 채워 놓았으며, 탑 자체도 기울어 있는 상태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벽돌탑인 경북 안동시 신세동 7층전탑(국보 제16호)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잡풀과 잡목이 자라나 육안 확인으로도 큰 것은 50㎝가 넘는다. 게다가 이 탑은 안동~서울 간 중앙선 철길에서 3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하루 70여 차례 이곳을 오가는 열차의 진동으로 곳곳에 금이 가고 탑이 기울어 있는 등 보존환경마저 열악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네티즌들이 철길 이전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장충식(미술사학과) 교수는 전탑의 경우 "옥개의 낙수부에 자라는 잡초나 작은 나무는 전탑 보존에 있어 큰 위험요소"라며 "벽돌과 벽돌 사이에 풀이나 나무

☞2면으로 계속



◇벽돌이 빠지고 옥개석이 깨진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내금강 마하연 복원 추진

평불협 6억 들여…금강산 생태 세미나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금강 사찰 복원' 언급 이후 처음으로 평불협(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 법타스님, 김도현)이 마하연사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평불협은 24일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 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북경에서 북한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조선불교도연맹과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에 관해 협의를 가졌다"며 6억원을 들여 건물 2동 건평 120평의 마하연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평불협은 마하연사 복원을 추진하게 위해 북측과 실무회의를 하고 10월중 평불협 대표단의 현지답사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불협은 또 조선총독부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산생태 학술세미나 개최와 11월초 북한의 윤이상음악연구소 초청 연주회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 태고종 등 주요종단들도 종교대표 방북과 내금강 사찰 복원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불교교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日刊 인터넷 현대불교
Buddhanews.com

사이버 기자 모집합니다

불교계 최초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가 사이버기자를 모집합니다. 성별 직업 나이에 관계없이 불교정보화를 이끌면서 신행 포교 종단 문화 복지 환경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붓다뉴스 홈페이지(www.buddhanews.com) 지원서에 인적사항 및 샘플기사를 기입
◆모집기간: 2000년 8월 30일 - 9월 30일
◆발표: 2000년 10월초 '붓다뉴스'
◆특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52, rcpark@buddhapia.com



◇제2회 '참사람 무차대법회'가 19일 사부대중 6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양사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과 한 수좌와의 법거량 장면. 백양사=고영배 기자

"祖師禪으로 세계평화 이루자"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6천여명 성황

"조사선(祖師禪)의 정신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 대자연의 조화를 이루자."

참사람 결사를 통해 총체적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참사람 무차대법회(無遮大法會)'가 19일 장성 고불총림 백양사 대웅전 앞에서 도원(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보성(조계총림 방장), 녹원(동국대 이사장) 스님 등 6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국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란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은 법어를 통해 "참사람은 본래 자유자재하여 인간을 과학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불이일체(不二一體)인 대자연을 포용·애호할 수 있다"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세계평화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조사선 수행을 통해 참사람이 되자"고 설파했다.

이어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은 "21세기는 참사람을 밝히는 선수행이 아니고는 세계인류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고,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지혜를 증득하여 편안한 나를 누리기 위해선 생활 속에 선수행을 꾸준히 닦아야 한다"고 법문 했다.

〈법어·법거량 12~13면〉

장성=김재경 기자

법주사·신흥사 관람료 인상 보류

법주사와 신흥사가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국립공원대책특위, 위원장 원택)는 23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다음달 5일 열리는 관람료위원회(위원장 지명)의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법주사 주지 지명스님과 신흥사 총무 설응스님도 국립공원대책특위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법주사와 신흥사는 9월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현행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백담사와 화엄사는 지난 7월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했다.

국립공원대책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특위 명칭을 참여연대 소송대응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국립공원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립공원대책특위에서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총무원은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한 비상근 전문위원을 위촉해 기획실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3,300관 대범종 타종



■ 재질
· 동 13톤
· 주석 25톤
· 금 50냥
· 은 7kg
· 인 45kg
(전기로 합금)



鐘宗社 ☎ 02)725-0878

3급 승가고시 시행

법계 품수 명시등 시행규정 확정
4·5급 승가고시 시행기준도 정리

조계종 고시위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한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된다.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위원장 무비, 은해사 승가대학원장)는 23일 김천 직지사 천불암에서 2차회의를 갖고 3급 승가고시 공고와 법계품수를 명시한 승가고시법 시행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총무원 종무회의 심의와 종회의 종헌·종법 개정을 거치면 3개월전 공고 후 곧바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승가고시위원회 위원장 무비스님은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 중앙종회 종헌특위에 법개정을 제안하여 승가고시법과 법계법이 상충되고 승가질서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며 "3급 승가고시 시행은 승단의 위계와 승가교육, 승려 자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헌에 규정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구족계 품수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 연령 30세 이상, 승납 10년 이상, 10하안거 성만자이며, 고시과목은 기신론, 전등록, 염송, 원각경, 금강경, 능엄경, 포교론, 서양철학사, 비교종교론이다. 3급 승가고시가 시행될 경우 종무기관의 국장, 본사 소임, 말사 주지 자격과도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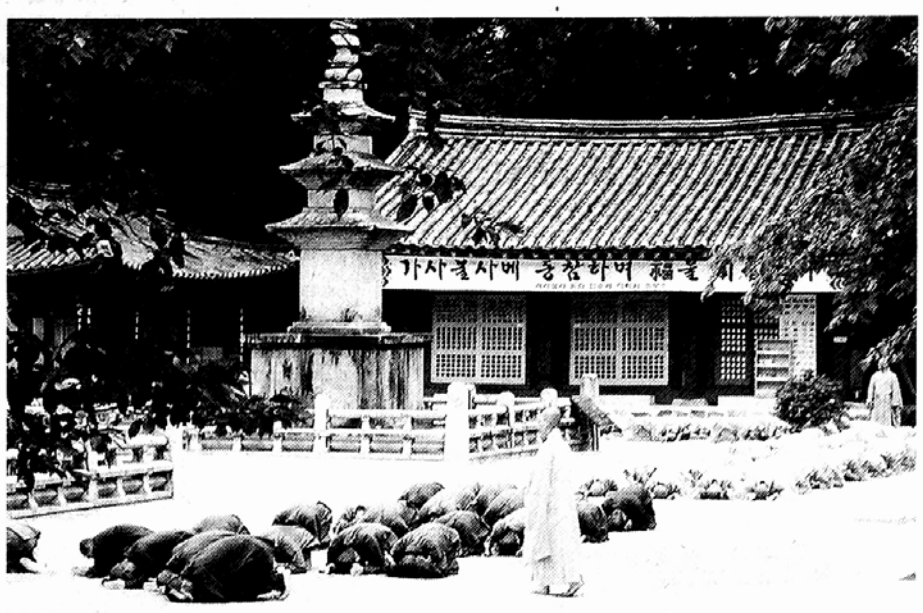
이와 함께 승가고시위원회는 올해의 4·5급 승가고시 집행은 관례대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승가고시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31일까지 고시전문위원 7명(비구강원 2명, 비구니강원 2명, 동국대 1명, 승가대 1명, 기초선원 1명)을 위촉하여 10월 4일 오후 1시 순천 송광사에서 실시하는 4급 승가고시부터 고시 실무를 일임키로 했다.

2001년 3월 실시되는 4급 승가고시는 강원·기초선원·대학의 구별없이 전체 고시대상자를 한곳에 집결시켜 통합시행하고 기존의 그 시과목 중 선학개론을 불교학개론으로 변경했다.

시험은 강원 기초선원 정규대학 등 기본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 보완하여 발간하는 4·5급 〈고시예상문제집〉에서 출제키로 합의했다.

김천=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행자 1보1배 정진 "저희들은 오늘부터 영겁토록 부처님의 정법만을 신봉하고 보살도를 행하여 결정코 무상대도를 이루겠나이다."

김천 직지사에서 열리고 있는 19기 조계종 행자교육원에 입재한 행자 230명(남 121명, 여 109명)이 8월 24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1보 1배 정진을 하며 굳은 신심을 다지고 있다. 직지사=김원우 기자

지명-현응스님 공원위원 위촉



◇지명스님



◇현응스님

자연공원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공원위원회 위원에 지명스님(법주사 주지)과 현응스님(조계종 종회의원)이 위촉됐다.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공원위원회는 정부 공무원 11명, 민간인 10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

조계종 총무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2인의 공원위원을 환경부장관에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8일 지명스님과 현응스님을 추천했으며, 환경부는 이날 두 스님을 공원위원으로 위촉했다.

정대스님은 이어 22일 재무부 재정국장에 기획국장 혜안스님을 임명했다. 재정국장 성효스님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기획국장은 공석이며, 곧 임명할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1면 '전탑'서 계속

뿌리가 들어가 균열이 생기면 붕괴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벽돌 하나가 부서지거나 빠져도 석탑과 달리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전탑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전점검을 맡고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륵사 전탑은 기울기가 중지된 상태라며 올해부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탑은 신라시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세워졌으며 현존하는 전탑으로는 위의 두 곳 외에 안동 동부동 5층 전탑(보물 제56호), 안동 조탑동 5층전탑(보물 제57호), 칠곡 송림사 5층전탑(보물 제189호) 등 3기가 있으며, 대부분 특별한 보호시설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조계종 내년예산 동결
불교회관 건립등 목적사업 치중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되며, 불교회관·중앙승가대 이전 등 종단목적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22일 종무회의를 열어 '예산 동결-목적불사 중점 추진'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각 부서로 지침을 시달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일반회계에서 10% 감액하여 이 금액을 중앙승가대 이전불사와 불교회관 건립, 통일기금 등 종단의 목적불사에 투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세입면에서는 사찰수입 증감요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올해와 같은 예산규모를 유지하며, 세출면에서는 사업비 보조금 경상비의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은 종단목적불사의 성취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20%를 절감해 종단목적불사에 투여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종도의 역량을 결집하는 불교회관 및 중앙승가대학교 등 종단기간시설 건립 △종도들의 정체성 확립과 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 강화 △신도교육 체계 수립 및 조직화 △불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대내외적인 문화·사회 역량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올해 조계종 예산은 일반회계 157억6천여만원, 특별회계 125억4천여만원 등 모두 283억여원이며, 조계종은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99년에 비해 일반회계는 9.6%, 특별회계는 12.4%씩 상향조정했다.

정성운 기자

"사회각계 통일역량 결집"
24일 관문사서 '남북공동선언 실천대법회'

분단 55년만에 성사된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 당국의 합의사항이 지속 추진되어 남북 완전 평화통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천만불자들이 불퇴전의 정진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불교도대법회를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위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와 공동 주최해 24일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에서 봉행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협 산하 각 종단의 총무원장스님들과 김상근 기독교교회협 평화통일위원장, 김몽은 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등 각 종교 대표들, 송석구 동국대 총장, 박준영 청와대공보수석, 함종한 한나라당 총재특보단장 등 각계 대표들과 관문사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법회는 상축, 대회사, 봉행사, 법어, 대통령 격려메시지 낭독, 축사, 평화통일을 위한 발원문,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대 종단협회장 스님은 법어에서 "불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민족 화해와 교류의 참뜻을 헤아려 요익중생의 지혜와 동체대비의 자비심으로 무명을 밝히고 지혜와 원력을 모아 통일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자"고 설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족사의 새 지평을 연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남북 완전 평화통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사회각계의 통일역량 결집에 적극 노력 △남북장관급회담 6개 합의사항이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며 민족화해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의 진전이 민족의 공존과 화해, 협력을 가속화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 △이산가족들이 보다 폭넓게, 보다 더 자주 상봉할 수 있도록 양 당국자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사업에 적극 참여 협력 등을 다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조계종 종무기관 9월 1~9일 감사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정기감사를 1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감사는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각 부서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계종출판사, 복지재단, 불교신문사 등을 대상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재정집행 현황 파악 △행정쇄신에 주안점을 두고 재무감사와 업무감사로 나눠 실시된다.

기획실장 일철스님은 "이번 감사는 종무기관의 자기점검 기능과 자정능력을 배양시키고, 조계사신협 사건과 같은 재정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주민들과 가까이…

불교인구 26.3% '가장 많다'
통계청 종교인구조사

94년 이후 불교인구는 타종교 인구 증가와 비교해 가장 많이 늘어난 반면 종교활동 참여는 타종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사회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3590여만명 중 26.3%인 943만여명으로, 개신교 667만여명(18.5%) 천주교 250여만명(7.0%)보다 많았다. 이는 전국민을 상대로 실시했던 94년 조사 때의 불교 24.4%, 개신교 18.2%, 천주교 5.9%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불교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밖에 유교는 24만여명(0.7%), 원불교는 8만여명(0.2%) 천도교는 3만여명(0.1%) 순.

이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전국 3만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데 따른 것이며, 조사대상 중 종교인구는 53.4%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적인 종교인구 조사는 94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불교는 종교인구가 가장 많으면서도 개신교·천주교에 비해 신자들의 종교활동 참여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구 중 매주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3.7%에 그친 반면 개신교는 73.4%, 천주교는 55.2%, 원불교는 28.7%였으며,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분포도 불교가 21.9%로 개신교 10.4%, 천주교 21.6%보다 높았다.

또 94년 조사시 매주 1회 이상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종교인구가 불교 4.6%, 개신교 77%, 천주교 64%, 원불교 41.3%였던 것과 비교할 때 천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의 종교활동 참여횟수가 줄어들어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종교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종교청년 평화축제
KCRP주최, 9월27~30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회장 최창규 성균관장)는 다음달 27~30일 연강홀과 여해문화공간에서 불교 등 6개 종교 청년들이 참가하는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문화축제'를 연다. '새천년 평화의 물결이 한국에서 세계로'를 주제로 열리는 종교청년 문화축제에는 6개 종교의 청년들이 참가해 홈페이지제작 경연대회, 노래극 공연, 청소년 푸른영화제, 평화의 메아리 콘서트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02)736-2250 정성운 기자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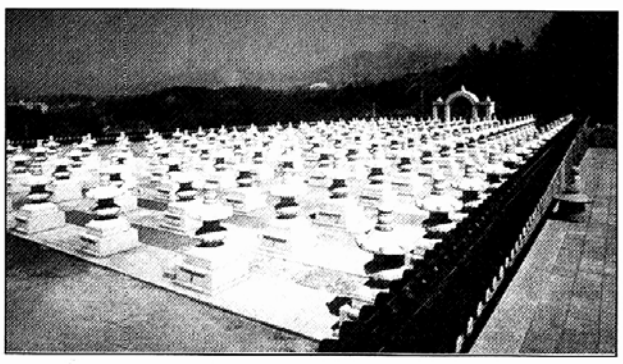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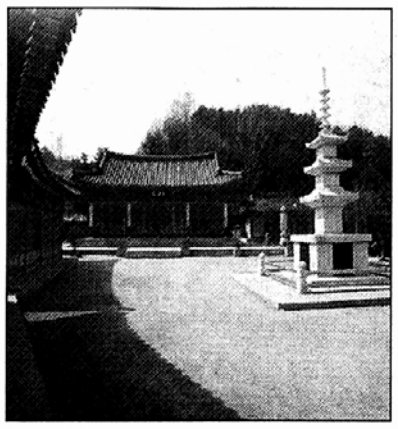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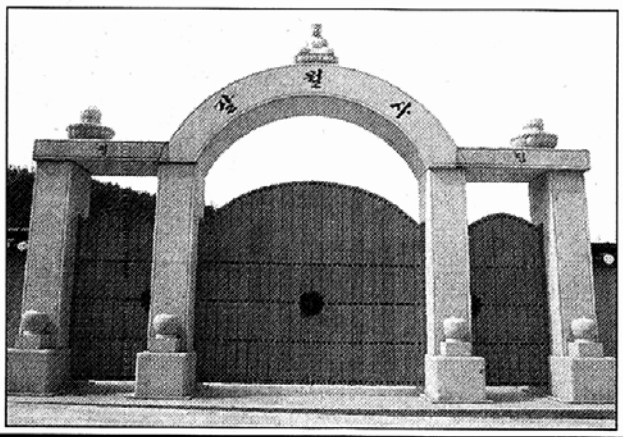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목어

21세기의 불교

탈레스(Thales, BC.624~546)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형성된 것이냐를 묻고 신화적인 설명이 아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져 왔다. 그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물에서 나왔다"고 믿었다. 또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는 경구가 있는데, 탈레스는 에게의 넓은 바다에 놀라면서 그의 철학적 체계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을 근원으로 삼은 서양철학은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온갖 공해, 핵무기, 자원고갈… 등 문명의 위기를 몰고 왔다.

한편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연과 인에 따라 변화와 생성을 거듭해 가고 있을 뿐, 근원은 공"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사문출유(四門出遊)의 설화에서 그의 놀라움의 대상이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마음의 아픔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생로병사를 포함하여 모든 변화의 원인이 연기(緣起)에 있음을 파악하고 공의 철학을 내세운 것이다. 희랍철학의 출발이 물이며, 물질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철학이었다면, 불교는 인간(實存)을 대상으로 삼는 '공'의 철학이며, 그 결과 전혀 다른 철학과 종교가 된 것이다.

모든 근원은 '공'이기에 연기에 의해 무엇이나 형성될 수 있다. 온누리를 불국토화 시킬 수 있는가 하면, 지옥과 같이 만들 수도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20세기는 식민지, 6·25, 제주도, 거창, 광주 등지에서 저질러진 학살 등 좌절과 비극의 연속이었다. 이 동안 중생은 앓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철학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이나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항상 우리 뒤에는 부처의 자비의 빛이 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에는 백지와도 같이 무엇이나 그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새롭게 남북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2000년 8월 15일, 55년만의 한을 씻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산가족의 상봉이 있었다. 그것이 통일과 세계평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양문명의 한계를 응시하면서 모두가 함께 백지에 불성이 넘치는 21세기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지원차원서 불교문화 교류로 확대

주요종단 대북사업 차분한 발걸음

'화해시대 불교 역할' 세미나 조계종
1종도 1구좌 통일기금 조성 태고종
영통사 복원 지원 '신중' 검토 천태종
복지시설·건립 · 컴퓨터 등 지원 진각종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합동법회
묘향산 보현사 주체 88(붕기 2543)년 9월 22일

◇지난 해 9월 방북한 진각종 대표단이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 북한주민들과 함께 합동법회를 봉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측 종교대표 방북과 내금강 사찰 복원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불교계는 차분한 가운데서도 북한행 발걸음을 챙기고 있다. 종교계 대표의 방북으로 북한종교계와의 교류가 이전의 식량·의복 지원 교류와는 달리 광범위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국을 통한 중개인 교류에서 직접적인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불교계는 특히 사찰 복원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시대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종단과 단체간의 지나친 경쟁을 우려하며 종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조화를 이뤄나가는 대북불교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종단협의회가 주최하되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인연이 깊거나 이미 사업에 착수한 종단이나 단체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지난 6월 구성된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대북교류 사업이 구상되고 있다. 내금강 내 사찰 복원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방북해 북한당국과의 협의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9, 10월 중 북한의 문화재 현황 조사에 착수하므로 복원 대상 사찰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려면 빨라도 내년 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계사 복원과 관련, 외금강 개발권을 가진 현대아산과 협의중이며, 합의서를 작성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에 신계사 복원 불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화해시대의 불교 역할'을 주제로 10월부터 매월 한 차례 세미나를 열며, 31본산제 당시 북한에 위치한 8개 본사에 대한 조사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착수하며, 필요한 경우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불자통일교육교재도 발간해 배포한다.

특히 조계종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면서 불교회관·중앙승가대 이전과 함께 통일기금 조성을 종단목적사업으로 정해 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태고종 태고종은 17~19일 선암사에서 원로 및 중진,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간부 스님 등 130명이 동참한 가운데 통일불교정책을 주제로 한 연찬회를 개최, 1종도 1구좌 갖기 등 전 종도들의 동참속에 통일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교류의 가속화에 발맞추어 태고종이 북한교류사업을 △남북불교문화 교류 △북한등포 지원 △북한불교연구 △북한포교기금 조성 등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이다.

지난 7월 '통일불교정책추진위원회'를 설치, 종단 중앙전문위원회로 창구를 일원화해 통일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태고종은 추진위 내에 북한연구를 전담하는 부서까지 둘 계획이다.

이미 지난 6월 태고종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평화통일기원 영산재 봉행을 남북합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의했으며 북한에서 요청할 시 불화와 단청기술, 전통 홍가사, 전통사찰 복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불교연구사업은 분규를 겪지 않은 북한불교계의 의식과 의제가 태고종과 같고 종조 역시 태고보우국사를 모시고 있는 만큼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 법맥에 대한 연구를 북한불교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천태종 천태종의 개창조인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열반지 개성 영통사를 발굴하고 있는 북한은 영통사의 복원에 한국 천태종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천태종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종교 대표 방북단에 포함된 총무원장 운덕스님 방북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개성을 관광·공업도시로 개발하는 만큼 신도들의 의천스님의 출가·열반사찰인 영통사에 대한 참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한 교류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장 덕수스님은 24일 "이달말 총무원장 스님등 종단 간부스님들의 유엔행사 참석후 종단내에서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1월경 대북교류 창구역할을 할 종단산하 기구설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진각종 7대 종교 지도자의 방북과 별도로 진각종은 일정 교육원장 등 종단핵심 간부들의 방북을 내달 중에 추진한다. 지난해 성초통리원장이 종단수반으로는 최초로 공식 방북하여 북한불교계의 정중한 대접을 받는 등 상당한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한 진각종은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방북에서 북한불교계와의 유대를 한층 돈독히 하겠다는 것.

또 유치원 등 복지시설 건립과 컴퓨터교실 개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에 대한 논의와 본격적인 문호개방에 따른 포교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종단내 북한전담부서인 국제불교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합동 통일 세미나도 연내에 성사시켜 민족화합과 통일에 대한 남북불자들의 의지를 북돋기 위한 합의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 정성운 기자
(gslee@buddhapia.com)

서산대사 선시 조선 시문학의 백미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㉔ 선시 읽기(3)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문학박사

한시의 대가들의 공통점은 유불선 삼교에 통달한 사람이요,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이었다. 그리고 선시의 특성인 상징과 함축, 뜻이 말 밖에 있는 언외지미(言外之味) 그리고 묘오(妙悟)의 시를 한결같이 구사하였다. 왕유의 그림같은 시인 '시화일치론'과 소동파의 시 속의 깊은 깨달음을 담는 철리시는 선시론이라 할 수 있는 시선일여와 선가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색성오도론'(色聲悟道論)을 추구하였다.

서산대사 휴정은 삼교에 통달한 사상가로서, 십 세에 시를 지은 천부적인 시인으로서 한국 선시를 완성한 선시의 대가이다. 그의 시집 〈청허당집〉에는 당송시대 대가들의 시를 수용 발전시켜 당시 시호들의 시를 능가하는 훌륭한 시를 창작하였다. 당시 문병(文柄)을 쥔 허균을 비롯한 대가들이 한결같이 그의 시를 찬양하였다.

홍만종(洪滿宗: 1643~1725)은 조선 한시의 비평에 있어 가장 엄정하고 공평한 시평을 한 〈소화시평〉에서 서산대사의 '상추'(賞秋, 가을의 노래) 란 시를 소개하면서 "뜻이 오묘하고 호전한 정취를 나타내고 있다. 스님이 재주가 많다는 말이 어찌 참말이 아니겠는가?"하였다. 조선 한시의 통시적인 총체적인 시선집 겸 비평서라 할 수 있는 그의 저술 속에서 분명하게 서산대사 선시의 문학성과 한시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고 있다. '상추'를 감상해 보자.

遠近秋光一樣奇 閑行長嘯夕陽時 滿山紅綠皆精彩 流水啼禽亦說詩

가을의 풍광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하나같이 기이하니 / 석양에 휘파람 불며 한가롭게 걷네 / 온 산에 붉고 푸른 아름다운 빛깔과 / 흐르는 물, 새들의 울 음소리 그대로 시를 설하고 있네.

7언절구인 이 시는 '원(遠)과 근(根)', '일(一)과 다(多)', '만산(滿山)과 유수(流水)', '빛[光]과 소리[嘯]'가 대구를 이루고, '기(奇, 시(時), 시(詩)'의 운으로 정확히 압운(押韻)한 가을의 경치를 묘사한 시의 내용이나 시의 격률을 갖춘 형식에서 모두 훌륭하다. 전체적으로 소리와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시의 품격인 한적(閑寂)을 나타내면서도 산수 자연 그대로가 선의 세계요, 시의 세계임을 읊은 선시론이라 할 수 있다.

소동파는 시냇물 소리[溪聲]와 산빛[山色]을 부처님의 설법이요, 진리의 법신(法身)이라 읊었는데, 서산대사는 온 산의 곱게 물든 가을 단풍과 흐르는 물소리, 새 우는 소리가 시를 설하고 있다[說詩]고 읊었다. 한국의 문호 이은상(李殷相)은 서산대사의 '삼몽사'(三夢詞)를 평하기를 "인생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5언 20자로 간명하고 심오하게 노래한 사람은 고금에 있다"고 하였다.

홍세태(洪世泰: 1653~1725)가 "사람이 나타난 천기(天機)를 느낀 바 대로 말로 나타내어 시를 지음에는 신분적 귀천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천기론은 조선후기 위항시인(중인문학)의 선언적 구호였다.

천기론과 홍대용(洪大容)의 화이부정론(華夷否定論)보다 먼저 이러한 주장은 서산대사의 시 '탐밀봉'(探密峯)과 '통결'(通決)에서 찾을 수 있다. '탐밀봉'을 살펴보자.

千山木落後 四海月明時 蒼蒼天一色 安得辨華夷

산마다 나뭇잎 떨어지니 / 온 세상 일시에 달이 밝네 / 푸르고 푸른 하늘은 한 빛인데 / 어찌 중화(中華)니 오랑캐니 구분한단 말인가.

'탐밀봉'은 서산대사의 '화이일색론'을 읊고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일체중생개유불(一切衆生皆有佛)과 '중생이 부처다'(衆生卽佛)를 시화한 것이다. 진여의 세계, 공(空)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불이(不二)의 세계임을 읊은 철리시이다.

'통결'에서 "뉘라서 이백과 두보 후에 풍월[詩]과 친한 이가 없다고 했나. 천지에 지극한 공물(公物)인데 어찌 한두 사람이 차지하리오[誰言李杜後 風月無相親 天地至公物 豈私一二人]"라고 읊은 '풍월공물론'은 홍세태의 '천기론'과 일치한 사상이다.

서산대사가 조선후기 선시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에 직제자를 비롯한 선사들의 시문집이 78종에 이른다. 그들은 서산대사의 선시의 맥을 이어 선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의 경지를 시 속에 담아낸 시승들이다. 그의 선시는 조선말기 시승 초의(草衣)선사, 만해선사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악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20명 ■야간20명 ■통신50명	·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어과	2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2. 학원연혁

1989.7.3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1991.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199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취득
1994.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본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2000.2 제9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 511-1080
일본동경분교 : TEL.055-233-184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m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악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9월 8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석사 · 박사과정 악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보증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중의외과	5년	
중약학과	5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최소 경비로 투명경영 실현"

개점 8돌 맞은 부산불교신협 사상호 이사장



"부산불교신협을 찾는 한사람 한사람을 부처님 시봉하듯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도량인 신협의 마음입니다."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사상호(64) 이사장의 말은 22일 개점 8주년을 맞이한 부산불교신협이 탄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을 담고 있다.

개점이래 IMF사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 70여 부산 지역 신협 중 10위의 성과를 올린 부산불교신협. 92년 조합원 70명으로 시작한 부산불교신협은 이제 조합원 수 7천명, 자산 360억원으로 성장했다.

사 이사장은 22일 개점 8주년을 맞아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2002년까지 자산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불자 한 통장 갖기 운동을 시작했다.

"부산불교신협을 찾는 고객이 바로 한국불교를 대표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심부름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최소한의 경비로 투명한 경영을 이루고 있는 불교신협의 직원은 9명. 사상호 이사장은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단언한다. 보현행, 대원화 등 직원들의 불명을 모두 외워 불러 줄 만큼 직원 사랑이 유별나다. "고객에게 금생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부산불교신협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복전을 쌓는 일'이라고 믿는 사 이사장은 조합원수 1만 5천명, 자산 1천억원 조성 목표도 불교발전을 위해 자신이 지을 수 있는 복으로 여길 뿐이다. 개점 초창기부터 이사장직을 맡아온 그는 임기동안 자체 사옥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신협이 불자들을 위한 법회 공간, 편의시설을 갖춘 진정한 포교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금강경 독송회 전국 통합법회 가져



금강경독송회 전국 법당의 불자들이 한자리 모였다. 금강경독송회는 18~19일 양일간 경주 두대마을에서 전국통합 철야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전국통합 철야법회는 1년간 〈금강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7독한 회원들이 지도법사에게 공부를 점검받고, 신행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전국에서 모인 5백여 명의 금강경독송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미륵존여래불 정진, 김재웅 지도법사의 법문, 금강경 7독, 각 지역법당 회원들의 신행담 발표, 공부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웅 지도법사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다보고 올라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라며 일상 속에서 생기는 모든 분별을 떨쳐버리고 부처님께 마음을 바치는 생활불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한편 금강경독송회는 이번 법회에서 즉석 모금활동을 벌인데 이어 올해 안에 1천만원의 성금 모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와 불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 각각 5백만원씩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남북화합·불교교류 힘쓰겠다"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불교대표 월서 스님

남북한 100명씩으로 구성되는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에 불교계 대표로 월서스님(조계종 호계원장)이 선정됐다. 각계 각층 인물 100명으로 구성된 교차관광단에는 종교계에 4명이 할당, 불교 1명 천주교 1명 개신교 1명 천도교 1명으로 정해졌다. 오는 9월 3일 출발, 6박 7일간 백두산을 비롯 북한지역을 돌아볼 월서스님은 "불교계의 대표로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가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불교와 선사스님들의 법향이 배어있는 구월산 묘향산 등의 고찰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남북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불교 교류에 가일층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일주문

북한동포에 담요 전달식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는 23일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북한 동포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제14차 지원물품(담요 2,520장) 전달식을 개최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북한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방한용품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해 내복, 양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2차로 지원할 계획이다. (02)734-7070

유치원 운영주지 연수



일면 조계종 교육원장은 18일 내원정사 유치원에서 유치원장인 정련 스님을 비롯해 각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주지 스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주지 연수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서 수계식



벽파 前 범어사 주지는 19일 범어사 부산포교원에서 열린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졸업생 수계식계사로 참석했다.

31사단 장병 위문법회



현장 대원사 주지는 19일 31사단 호국관음사에서 광주·전남불교신도회와 광주불교능인회, 능인새마을금고 공동주최로 열린 장병위문법회에서 법문했다.

'불교수행' 공개강좌

영조 광주불교교육원 원장은 24~26일 '불교의 방향과 수행'을 중심으로 불교사회교육 무료 공개강좌를 가졌다.

장애가정학생에 장학금



원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18일 지역내 장애인 및 장애가정 학생 3명을 복지관으로 초청,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과회를 베풀어 이들을 격려했다.

타태아기령 천도사경법회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입재식을 갖고 10월 19일까지 생명사랑의 실천을 위한 '제5회 타태아기령천도사경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02)723-6285



"체험불교 대중회향"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법학계원로 장경학 박사



"나를 찾는다는게 어려워요. 2년 동안 기초공부 했으니 본격적으로 참나를 찾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5일 거행된 동국대 졸업식에서 법학계 원로인 장경학 박사(84)가 불교대학원 졸업가운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장박사는 일본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해방후 민법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민법 제정작업에 실무자로 참여했고 이후 서울 상대, 동아대, 연세대, 한양대 법학교수를 거쳐 동국대 법정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법사회학 분야 저서 50권이상을 발간한 법학계의 원로이다.

2년전 동국대 82세라는 나이에 불교대학원에 입학, 화제를 모았던 장경학 박사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에 임해 젊은 학생들의 귀감이 됐다. 소정의 학점을 취득, 포교사로서의 자격도 갖춘 장박사는 "그동안의 공부를 바탕으로 내눈으로 본 불교를 쉽게 대중에 회향하는 일로 여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법화종 '평화의 종' 봉안법회

세계 평화와 7천만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이 북녘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진부대 도라전망대에 봉안됐다.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법홍)은 8월 22일 전진부대 도라 전망대에서 '평화의 종 불사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8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홍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법화종도들의 큰 원력으로 세워진 도라전망대의 범종이 사바세계 가득 울려 남북의 장벽을 넘나들어 평화와 자유의 법음을 전파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불교자원봉사련 119봉사단 발대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18일 자원봉사연합회 4층 강의실에서 '제1기 그린오너 119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자원봉사연합회 스님들과 회원, 구청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그린오너 119봉사단'은 나무와 가로수를 가꾸고 보살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맑은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평불협 등 남북불교 활성화 모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불교인권위원회, 남순지장회는 24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남북불교 활성화를 위한 전체모임과 정수일씨 출소 환영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평불협 공동회장 법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설법연구원장 등출스님과 평불협 정인악 이사장과 김도현 상임대표, 신광식 불교언론인회장, 김명철 남순지장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홍수·최기영씨 인간문화재 대목장 지정





대목 전홍수(62·사진 왼쪽), 최기영(55)씨가 22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간문화재 대목장 74호로 지정받았다. 전씨는 18세에 한식목공분야에 입문, 1955년 대목장 故 김중희선생을 만나 기능을 전수받았다. 불심과 전통문화를 이어가겠다는 집념으로 고건축 불사에 매진해 왔으며, 현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 한국건축박물관 건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씨 역시 1961년 대목장 故 김덕희선생문하에 입문한 이후 40여년간 사찰과 궁궐 등 한국고건축의 맥을 이어왔다. 그동안 내장사 명부전을 비롯 전국 도처에서 불교건축 책임자로서 활동해 왔다.

방송대상 우수작품상 불교방송 안희경PD



"숨겨진 세계 전통음악 찾아내 소개"

"불교방송이 들리지 않은 산간 지역에서도 방송후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듣는 등 그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월 4일 개최되는 제27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연예오락부문에서 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는 불교방송 '예민의 세계음악 여행'의 안희경PD는 청취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다.

4월 개편때부터 새로 신설된 이 프로그램을 맡은 안PD는 청취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악을 발굴해 소개하는 신선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공로가 인정돼 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PD는 "각 나라의 전통음악속에는 그 나라 민족의 삶의 애환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며 "음악을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지리산 청학동 대나무 숯으로 만든
차량용 공기정화 탈취제 대숲 쿠션



■ 대숲 대나무숯의 효과

지리산 대숲 대나무숯의 우수한 공기정화 작용과 음이온 및 원적외선 효과가 운전수의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대나무숯이 내뿜는 알파(a)파가 운전자의 각종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 합니다.

지리산 대숲 대나무숯의 탁월한 흡착작용이 차(車)안의 각종 냄새를 말끔히 제거하며 살균력을 지닌 죽초액을 첨가하므로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항균력이 매우 우수하고 습도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며 유해 전자파의 공해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구 분	사 양	가 격
차량용 (공기정화탈취제)	쿠션형태	27,000
실내용 (공기정화탈취제)	피라밋형태	35,000
신발 (냄새제거제)		2,000

■ 대숲 쿠션의 특징및 용도

· 100% 국산 대나무숯 사용 탁월한 효과, 효능 체험
· 자연 염색천을 사용
· 건강과 안전, 그리고 기(에너지)관련 부적 및 문양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신비함
· 대숲 쿠션은 실내 공기정화용 및 탈취용 제품으로써 일반 쿠션용도와는 다르게 비비거나 몸을 기대지 마세요.
· 실내용, 차량용, 신생아용, 명상용
· 자매품 : 대나무 숯 다수
자연염색 의류(100% 대나무 숯, 황토염색)

▶ 사찰 행사용 등으로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현재 불교방송에 협찬 광고 중입니다.
▶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추석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000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11월 10일)
※ 2000무안 연꽃 축제 출품 ※
(행사기간 9월 1일 ~ 9월 4일)

대 숲
■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056
■ TEL : 055)883-4380 FAX : 055)883-4380 H·P : 017)242-6976
■ Website:http://www.daesup.com E-mail : daesup2000@hanmir.com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 석씨향방

여의도 불교문화원 '속빈 강정'

정치 금융 방송 등 전문인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개원한 여의도불교문화원이 개원 1주년이 다 되도록 여의도 지역의 포교 거점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운영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해 9월 1일 여의도불교문화원 개원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엘리트들을 상대로 포교를 해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인 불자들의 불심을 한 곳으로 모아 불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포부를 밝혀 교계 안팎의 관심이 뜨거웠다. 또한 여의도 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성화와 방송 3사 불자회를 비롯, 각 정당 불자회, 연예 금융 불자회 등 직장 직능불자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었다.

법사 없고 프로그램 부족 제 역할 못해
정치 · 금융 · 언론인 집결지…포교책 시급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문화원은 개원초기 상임 법사스님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도법사 스님도 없는 등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원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없고 KBS, MBC, SBS 불자회와 증권거래소 불자회만이 법회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직장직능 불자를 제외하면 한달에 이곳 문화원을 찾는 불자들은 30~40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한달에 400여만원이나 하는 관리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문화원을 마포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문화원 개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 뜻있는 불자들은 전문인들의 지적 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자질 있는 스님이 상주하여 선수행 지도, 전통문화 강습 등을 통해 문화원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여의도에 근무하는 전문인 불자회 법회를 통해 직장 불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직장 직능불자회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BS불교연구회 유신열 홍보부장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전문인들에게 불교 또는 불교문화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면 직장 직능불자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불교문화원 내부 모습.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 상주하는 지도법사 스님이 없어 하루 평균 4~5명의 참배객만이 이곳을 찾을뿐 지역 불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여의도불교문화원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교의 효율성을 고려해 본다면 총무원보다 신도교육과 포교를 전담하는 포교원이 여의도불교문화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강 인 성 〈진양엔터프라이즈 대표〉

〈법화경〉 보현보살품에 이르기를 부처님과의 좋은 인연의 자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번째, 모든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덕에 근본을 심는 사람 즉 많은 보시 공덕을 짓는 사람이며 세 번째,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모을 줄 아는 사람 즉 자신의 단점에 대한 충고를 받아들일줄 아는 넓은 도량의 소유자라고 했다. 끝으로 중생을 구하는 마음 즉 더불어 공존해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신행활동과 안경테 수출업 사업을 병행해가던 중 97년 8월 최봉태 변호사의 권유로 캄보디아 훈 할머니(정신대 할머니)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해 11월 평불협회장이신 법타 스님과 석조스님, 장적스님, 나눔의 집 원장이신 혜진스님 등과 함께 "훈할머니 돕기 불교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98년 4월 27일 캄보디아로 건너가서 훈할머니의 한국국적 취득과 영구귀국이란 국민적 관심은 점차적으로 우리의 뇌리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어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 인생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학 은사이자 전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이신 건국대 이준 교수님의 깊은 제자사랑, 훈할머니의 인연으로 만난 당시 캄보디아 KORTRA관장이던 윤광덕씨의 사업조언, 작년 12월 불교방송 '길은 찾아서' 프로 출연으로 나의 신행활동과 안경테(에밀레) 브랜드를 불자에게

"널리 보시하며 더불어 살자"

역사적 현장에서 절실한 부처님의 가피를 느꼈다.

귀국도중 비행기안에서 한쪽다리를 잃은 한 할아버님께서 흐느끼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젊은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출항하는 배를 보고 태극기를 흔들었는데 그 여인내들이 이렇게 정신대할머니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또한 나도 징병에 차출되어 대동아전쟁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해 일본에 대한 원한이 깊게 맺혀 있는데 자네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오르는구나" 하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는 목놓아 오열을 하는데 그때 비행기 구름사이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다.

그해 10월에 할머니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함께 한국에 온 외손녀 잔니도 12월경에 고국이 그립다고 하여 캄보디아에 건너가 작년 99년 11월경에 현재 캄보디아인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지병인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장조카인 이상윤씨에게 간간히 들을 뿐이며 초창기에 떠들썩했던 알린 일, 특히 프로 진행자인 김청씨가 올해 10월과 11월에 파리와 홍콩에서 개최되는 국제 안경 박람회에 에밀레 홍보를 맡아 주기로 했다. 이같은 인연들은 모두가 부처님 가피라 생각되어 지금도 열심히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은 뿌린 씨앗을 초발심과 평상심의 선근을 어떻게 잘 가꾸고 좋은 결실을 맺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무역협회 회장이자 동원산업의 회장인 김재철씨가 쓴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 제목의 책은 한국인의 기상과 21세기 주역으로서의 한국 민족의 긍정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더불어 21세기는 문화수출시대이며 문화상품의 수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수출하는 상품에 문화적 특성과 장점을 가미시키는 것이라는 대목이 인상깊었다. 에밀레에 한국의 전통적 장인 정신을 심어서 세계적인 브랜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연꽃의 상징적 의미인 화과동시처럼 부처님께 서원하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할 소명이 아닌가 싶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18일 서울 회기동 소재 한 식당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무료봉사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했다.

병원불자련 첫 의료봉사

10월1일 강원 홍천서 의료진 14명 4개과 진료

지난달 창립한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의료봉사를 떠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김주효)는 18일 서울 회기동 소재 한 식당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구만초등학교(폐교)에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병원불자연합회는 의료봉사를 위해 의사 4명과 간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내과, 치과, 안과, 한의과 등 4개과 진료와 물리치료를 할 계획이다. 특히 무료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합장주를 나눠 줄 계획이라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비인술을 펼치는 것은 물론 불교 포교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료 봉사를 통해 연합회는 또 대외적으로 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알리고 아직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 불자회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운 병원불자연합회 총무는 "부천님의 자비를 소외된 계층에게 베풀고자 이같은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무료진료를 통해 병원연합회 결속력도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동화사 지역 역할 강화등 논의

법륜불자교수회 2일 토론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을 조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구 경북지역 교수불자들로 구성된 법륜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 영남대)는 9월 2일 대구 동화사 대불전에서 '대구불교 발전을 위한 동화사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산대 장호경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남대 최영식 교수의 '팔공산 동화사 건축공간의 특징과 활용방안', 대구대 김태엽 교수의 '팔공산 동화사 대불의 사회적, 지역적 영향과 위상'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동화사가 대구 경북지역의 불교 신행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대구 경북 불교의 중심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된다. 특히 최근 들어 동화사가 기초선원과 강원을 열고 불자들의 안식처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번 토론회는 동화사가 신행의 중심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의견이 교환되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KBS불교연구회 정기법회

KBS불교연구회(회장 박영석)는 26일 여의도불교문화원에서 인오 법사를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한전반야회 복지관 후원

한전 본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26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정수암에서 사찰 순례법회 법회를 봉행한다. 정수암 주지 상덕스님이 설법한 이날 법회에서 반야회 회원들은 옥수복지관 후원자 등록 신청을 해 부처님 자비를 실천했다.

불교스카우트 십우도 강독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6일 마포 불교방송 15층 불교진흥원 회의실에서 십우도 윤독강의를 시작했다. 권영일 회장이 직접 강술한 이번 강의는 10월, 11월 셋째주 토요일 2차례 더 실시된다. (02)2603-0982 최병수

복지부 불자회 1돌 법회

보건복지부 불자회(회장 이영휘)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일 오후 6시 45분 과천 보광사 극락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전 동국대 총장 지관스님이 설법할 예정이다. (02)500-3069 강인준

불자가수-연기자회 결연

대한불자가수회(회장 남강수)는 23일 마포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종 교수가 설법한 이날 법회에는 불자가수회원과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는 대한불자가수회와 대한방송연기자 불자회(회장 신충식)가 자매결연을 맺어 눈길을 끌었다.

클릭! 새 홈 페이지

■보문종보문사(http://cafe.daum.net/bmjbms)-8월 23일 개설. 보문사 연화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의 통합모임터.

■대한불교 조계종 금천선원(http://cafe.daum.net/ksunwon)-8월 22일 개설. 금천선원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정토원 잘난 사람 모이셔여~(http://cafe.daum.net/jungtowon)-8월 14일 개설. 정토원 출신인들의 연락을 위해 만들어진 곳. 친목 도모 및 신심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동신대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33038 86)-8월 18일 개설. 동신대 불교학생회 출신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동문모임.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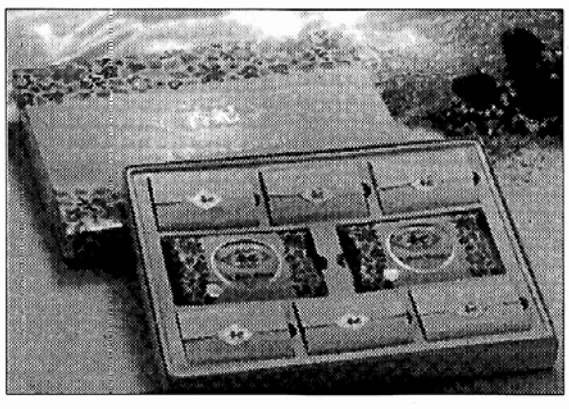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ㅡ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200-4545 (02)755-9821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있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9. 생리때 뒷깔이 검고 탁하다.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2. 가슴이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6. 변비가 있다.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사 설

북한불교 연구 힘신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일정이 논의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가장 큰 타도의 적이었던 북한이 불과 일년도 채 되지 않는 사이에 함께 평화로운 통일을 도모해 가는 우리의 동반자로 여겨지고 있다. 냉전의 논리 속에 민족의 심성까지 멍들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마냥 꿈에 취하여 달려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한 벗이 되려면 참답게 알아야 한다. 환상과 선입견을 벗고 바로 아는 것이 올바른 사귐의 출발이다. 개인 관계에서도 이러할진대, 50여년의 분단을 넘어 남북한이 서로 다시 만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변화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반쪽과 비교할 때 우리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사선택의 판단은 그 다음인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진정한 만남을 갖고, 또 그 만남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고 남북한이 하나되어 큰 상승작용으로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참되게 상대방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계가 앞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 가는 미래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걸음도 바로 '북한 바로 알기'이다. 또 남북한 불교의 화합된 모습을 이룩하는 것이 민족의 하나됨에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불교계는 우선 북한의 불교를 알아야 하며, 그를 통해 남북한 불교의 화합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바로 알기의 작업에 들여야 할 노력과 비용은 매우 크며, 그에 비해 겉으로 화려한 각광을 받기는 힘든 기초적 작업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작업들은 종단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불교계의 통일운동이 꽃을 피우도록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필요성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북한과 북한 불교계에 대한 자료들을 갖추어 나가는데 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불교계 각 종단들도 이러한 기초적인 사업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하여 불교계 통일운동의 초석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생명 나누는 장기기증

대승불교의 덕목은 6바라밀이며 그 증 '보시'가 으뜸이다. 늙고 병들어 즉어 가는 고통은 살아 있는 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 병고이다. 병들어 고통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순간 순간은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 동안 불교계는 '사회구제운동'이 미흡하다는 질책을 많이 받아 왔다. 불교인들이 가슴을 열고 생명의 고통을 감싸는 '생명나눔실천회'가 지난 94년 3월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의 발원으로 발족되어 지금까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방생이라 하면 물고기 등을 방생할 뿐, 장기기증이나 복지사업에는 소극적이었는데 '생명나눔실천회'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장기기증 캠페인 200회를 마치고 집계한 결과, 장기기증 신청이 3,818건으로 지난 1년 동안 등록한 2,992건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고 한다.

장기기증은 생전에도 가능하지만 뇌사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은명을 달리 할 때에도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사는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흙·물·불·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모여 구성된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러기에 죽어서 썩지 않을 것 하나 없고 버리고 가지 않을 영혼도 없다. 병으로 생명을 마감해야 할 간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수승하겠는가.

현재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는 각막·심장·간장·신장 등이며, 시신은 의학도의 인체 실험연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는 보시라고 할 수 있다.

〈십지경〉에서는 "온갖 줄 수 있는 물건을 다 주는 것은 부처님의 무상(無上)의 큰 묘지(妙旨)를 구하는 까닭이다"고 하였으니, 남에게 도움이 될 것을 다 주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에 가장 가까이 가는 행업이라는 것이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를 보시하고 갈 수 있는 불자들의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아귀다툼으로 혼탁해져 가는 사회를 더욱 평화롭게 할 것이다.

그 동안 타종교에 비해서 열악하던 장기기증을 이제 불교인들이 앞장섬으로써, 정토사회 구현에 역군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열린마당 — 북한문화재 복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언론사 사장단에게 내금강 사찰의 복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금강산 사찰복원'이 범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원이 논의되고 있는 신계사를 비롯해 내금강 마하연, 개성 영통사 등 북한지역 사찰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금강산과 불교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한 〈금강산과 불교〉를 연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모두 4권으로 출간될 자료집은 향후 금강산 지역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현장조사와 발굴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북한 문화재 보존과 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 의의와 원칙, 방법 및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전문가에게 들어본다.

"생색내기식 복원은 지양"

법타〈평화통일불교협 공동대표〉



북한은 민족의 문화유산을 '사회주의 민족주체 문화건설'의 이념에 따라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만을 선별해 '주체성의 원칙', '인민성의 원칙(대중성)', '현대성의 원칙(복고주의 반대)', '역사주의 원칙(유물사관)'에 입각해 보존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북한에는 현재 국보 제1호 평양성을 비롯해 총 176점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58점으로 약 33%를 차지한다. 지정된 불교문화재 중 목조 건축물은 24%에 이른다.

남측의 북한 문화재 복구참여는 북한 당국의 '요구'와 참여단체의 '신뢰도', '평화통일 의지나 기여' 등에 따라 양상을 달리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건물이라 해도 수도와 포교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북한 문화재 복구 참여는 북한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찰복원은 일단 6·25 전쟁의 피해 사찰 중 천년고찰을 중심으로 한 원상복구 차원이다. 남측의 역할은 고건축 기술자문과 복원비용 제공이 되기 쉽다. 원자재를 비롯해 건설 방식 및 감리 등에까지 참여하려고 할 경우 자칫 복원논의 자체를 원점화할 수도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북한 사찰복구 동참은 6·25 전쟁시 불타버린 사찰을 꾸준히 복원함으로써 평화공존, 평화통일의 신뢰받는 디딤돌과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 특정 종단이나 단체의 생색내기식 복원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

"'금강산과 불교' 조사 진행"

혜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올해 들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문 발표 등으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통일을 대비해 활발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조계종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통일을 대비해 북한에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 왔다. 현재 북쪽의 사찰과 문화재는 현장 조사 위주의 실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쪽의 경우 현장조사가 여의치 않다. 뿐만 아니라 문헌 등이 종합적으로 수집·분석되어 있지도 않다.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북쪽의 사찰과 문화재 등 불교관련 내용을 본사별로 진행하는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1999년부터 유점사 본말사에 해당되는 지역인 금강산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유점사본말사지〉 등 200여종에 이르는 문헌의 조사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는 그 연속선상에서 관련 연구 논문과 번역 등 보다 심도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금강산 사찰 및 스님들의 활동과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근대불교사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01년에 〈금강산과 불교〉란 이름으로 4권의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보현사 본말사 등 현재 북한에 남아 있거나 과거 존재했던 본사별로 조사를 차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거대하고 지루한 사업의 시작과 발맞추어 금강산을 비롯한 북녘땅의 북한 사찰 및 문화재의 복원사업 추진 등 앞으로 많은 사업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강경환〈문화재청 국제교류 사무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재분야는 남북 양측이 정치적, 이념적 색채를 띠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민족의 화해·협력과 민족문화재의 브존에 기여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간차원에서도 문화재분야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 움직임이 활발한데 민간차원의 사업 추진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했으면 한다.

첫째,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 추진하는 사업이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된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문화의 연속성과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했다.

둘째,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거나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해야 점차 교류의 깊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북측이 호응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단체와 정부간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서독은 민간주도의 문화교류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는 동서독간의 문화교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밑거름이 됐다. 우리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지원 협력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탁소리

김 두 식 〈취재1부 기자〉

불교인권위의 단견

불교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 불교계는 의료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조계종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는 지난 22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전공의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권력에 의한 억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계 집단 폐업행위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불교인권위의 의견일 뿐이지 대한불교조계종이나 불교계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불교인권위가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이 마치 불교계 전체의 입장인양 말하는 것은 분명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 설사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하루빨리 의약분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은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로 불교계가 사회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실시에 전공의들이 반발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다수의 국민들이 의료파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가 이런 전공의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돌출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사건마다 성명서를 발표해 성명서의 무게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언론사 기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어 인권위는 앞으로 민중의 고통을 감싸안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 신중히 행동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일타 큰스님이 남긴 최후의 법문집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이 시대의 청정율사 일타 큰스님이 들려주는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법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와 재가불자에게 보내는 일타 큰스님의 해탈과 행복의 메시지 108가지.
불교우화집 ≪백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과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 야운 스님의 ≪자경문≫ 등 역대 조사(祖師)스님들의 금쪽같은 법문을 소개하면서 불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곡하게 들려주고 있다. 스님의 체험과 인연담을 곁들여가며 때로는 따끔하게 경책하고, 때로는 자상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스님의 법문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버이 같은 따뜻한 정이 묻어 있다.

일연학연구원 엮음/신국판 344면/값 10,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30-2500, 팩스 723-596

내 마음 속의 부처를 찾는 길

좌선수행법

靜坐要訣 / 六妙法門 / 童蒙止觀 / 四念處

선(禪)과 교(敎)를 아우른 천태지의 대사의 지관좌선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문 네 가지.



정좌요결
명나라 말기의 사대부 원황(袁黃)이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 체득한 지관수행법을 자세하고 명쾌하게 서술한 글

육묘법문
좌선수행을 근본불교의 수행법인 수(數)·수(隋)·지(止)·관(觀)·환(還)·정(淨)의 측면에서 설명한 수행지침서

동몽지관
좌선수행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완성까지 10단계로 정리한 알기 쉬운 수행입문서

사 념 처
근본불교의 선정수행법인 사념처관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 조명한 수행론

天台大師 · 袁黃 지음 남민수 옮김/신국판 356쪽/ 값 12,000원

불교시대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13층 전화 723-1679, 팩스 723-5961



◇공개제작을 원칙으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는 현재 인터넷 공간 바리방에서 인물과 구성, 음악 등의 분야에 걸쳐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불교설화 '바리데기 이야기'

애니메이션化

장선우감독 '바리공주' 2002년 개봉
인터넷상 의견수렴 공개 제작

영화 '화엄경'과 '거짓말'이 보여준 것처럼 극과 극의 작품세계를 오가는 문제적(?) 영화 감독인 장선우씨가 불교설화인 바리데기이야기를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로 제작한다.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는 조선 민화를 밑바탕으로 고려불화, 고구려 벽화, 나아가 동양 미술의 전통 위에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오는 2002년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설화 바리데기는 불라국 국왕의 일곱째 딸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바리가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위해 머나먼 서천서역으로 감로수를 구하러 가는 험든 여정을 통해, 효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다. 애니메이션 바리공주는 이같은 원작을 중심으로 교훈적 측면보다는 만화적인 재미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인터넷 공개제작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겠다고 장담하고 나선 장 감독은 현재 인터넷상에 바리방(www.bari.co.kr)을 개설해 놓고, 애니메이션 '바리공주'에 대한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제작하겠다는 것이 장감독의 의도다.

공개제작 체제로 만들어질 애니메이션 바리공주에는 주인공인 바리와 여섯공주, 왕과 왕비를 비롯해, 석가여래와 삼천제자,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시왕과 저승나찰 등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인터넷 바리방에 설치된 이미지보드방에서 이들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작방식을 수렴하고 있다. 각색 콘티방에서는 내용 전개와 장면 하나에까지 네티즌들이 의견을 내도록 해 놓았으며, 소리방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음, 효과음으로 사용할 전통음악과 창작음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감로수, 관세음보살, 반야용선 등 일반인에게 익숙치 않은 불교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바리용어사전도 별도로 만들었다.

장 감독은 "애니메이션 바리공주 이야기는 서사무가 바리데기를 토대로 불교(佛敎), 선(禪)사상과 관련된 주요문헌들에 힘입어 짜여진 이야기"라면서 "이를 일차적 자료로 삼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태고 자유롭게 응용해, 새로운 형식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바리공주가 만들어지길 희망하고, 또 될 것"이라고 제작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장감독을 비롯한 애니메이션 바리공주 기획팀은 26일부터 1박2일간 해남 미황사에서 참선수련을 겸한 기획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바리방 이미지 보드방에서 선보인 '반야용선'.



◇2000 시드니올림픽 남자마라톤에 출전하는 이봉주 선수가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보조 경기장에서 트랙을 돌며 훈련을 하고 있다.

"시드니 金향해 불심으로 달린다"

이봉주 '올림픽 출사표'

"지난 6개월 동안 하루 50㎞ 이상을 뛰는 강훈련을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2000 시드니올림픽 남자마라톤 금메달 유망주인 불자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30)가 시드니로 떠나기에 앞서, 23일 서울 잠실 올림픽 보조 경기장에서 각오를 밝혔다. 96 애틀란타올림픽과 올해 도쿄마라톤 등에서 2위로 입상해 '만년 2위'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 선수는 이번만큼은 절대 금메달을 양보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묵묵히 훈련에만 전념해 왔다.

"훈련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달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참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들을 위해 부처님께 매일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이번 시드니올림픽 마라톤 코스는 언덕이 27개나 될 정도인데다 경사도도 심해 역대 올림픽 중 최대의 난코스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선수는 지난 7월부터 2개월동안 시드니와 기후 및 지형이 비슷한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훈련하며 철저히 코스에 대한 대비를 해 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이색 설치미술 전시회

욕망과 이기심 빠져나간다

'이동하는 몸 흔들리는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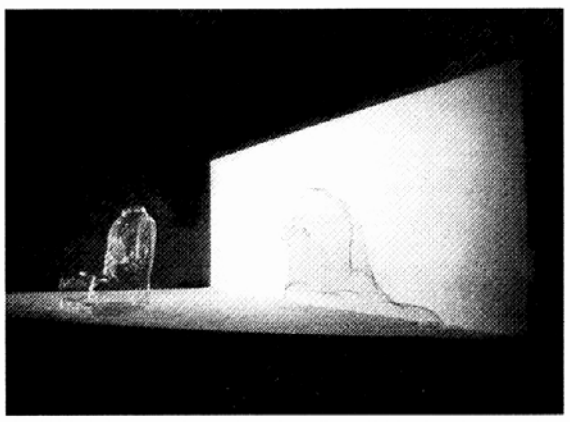
9월 12일까지 문예진흥원

설치미술작가 이문형씨는 지나가는 행인의 영상을 미련없이 통과시키는 철망부처와 그와 마주선 철망변기 작업을 통해 안과 밖, 형태와 그림자, 있음과 없음이 교류하는 경계 위에 머무르고자 한다. 욕망과 이기(利己)가 모두 빠져나간 듯, 투명하고 투과적인 부처의 철망신체는 부처의 이미지가 함의하는 자기부정과 해탈의 정신을 반영하며, 심산유곡의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철망변기 또한 육체의 한계에 갇힌 인간욕망의 배설구를 일순간 천상의 반열로 들어올린다. 이씨는 금지와 억압의 기호로 인식되던 철망에 부드럽고 온화한 공기와 빛을 통과시켜, 따뜻한 피부로 변모되는 과정을 통해 '스테이트 · 2000'이라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현했다. 형상과 재료, 제작과정 모두에서 자아의 본질을 향한 작가의 탐구적이고 수행자적인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이동하는 몸, 흔들리는 땅'전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29일~9월 12일까지 열린다. 전국에서 엄선된 16명의 작가가 사진, 비디오, 웹 설치, 회화 등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각과 시도로 관람객의 눈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

제1전시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땅, 가상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땅 등 '흔들리는 땅'의 실존적 형상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제2전시실은 이문형의 '스테이트 · 2000'을 비롯해 변형되고 조작된 신체, 떠돌아 다니는 몸, 어리둥절하게 움직이는 관객의 몸으로 나타나는 '이동하는 몸'을 통해 몸이 함의하는 현대의 다양한 이슈들을 형상화 하고 있다. (02)760-4608

이은자 기자



◇철망부처를 통해 투영한 빛과 공기가 뒷편에 따뜻한 피부로 형상된 이문형씨의 '스테이트 · 2000'.

문 · 화 · 단 · 신



◇고려시대 '도금은제관음보살좌상'.

2000년 고미술 특별전

다보성고미술상설전시관은 북한 어린이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2000년 고미술특별전시전'을 28일~9월 6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에는 탑의 4면에 각각 불좌상(佛座像)이 새겨진 '금동칠층소탑(삼국시대)',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조각솜씨를 보여주는 '도금은제관음보살좌상(고려시대)', 1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10폭짜리 '나한상 화첩', '고지도(조선시대)', '수레바퀴모양토기(가야시대)' 등 2000여 점의 귀중한 고미술품이 전시 판매된다. (02)581-5600

불교미술대전 작품 접수

불교미술의 새로운 이해와 지평을 열고, 2000년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18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작품접수가 임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4일까지 공모원서를 배부하고, 9월 8일까지 작품접수를 마감한다. 전통과 현대로 나눠 회화, 조각, 공예, 서예, 평면, 입체작품을 접수하며, 20세 이상 기성 및 신인미술작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 접수처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739-1830

야석 박희선 시비 건립

현대문학의 대표적 불교시인으로 꼽히는 야석(也石) 박희선(1923~1998) 시인의 타계 2주기 추모식을 맞아 시비(詩碑)가 건립됐다.

호서문학회 문인 등으로 구성된 '박희선 시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재 대전대 문과대학장)는 27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에 박시인의 대표작인 지비(紙碑)를 새긴 시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충남 강경 출신인 박 시인은 지난 98년 위암으로 타계했다.

한경우 사진전 '신장상'

절의 입구에서 험상궂은 모습으로 오가는 이를 맞는 사천왕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한국불교 신장상' 사진전이 열린다.

26일~9월 1일까지 인천 청송예랑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사진가 한경우씨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화엄사 사천왕상' '보림사 사천왕상' '분황사 모전석탑 사천왕상' '원원사지 3층석탑 신장상', '흥덕왕릉 십이지상' 등 20여 작품이 전시된다. (032)937-2500



◇한경우作 '화엄사 사천왕상'.

출판화계!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과 함께 하는 一萬拜
1만분의 부처님께 禮敬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절(拜)수행을 하는데 염주를 세며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배일배 지극정성으로 부처님명호를 부르며 하는 절수행은 환희와 신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만불명호경』은 菩提流支 번역의 『佛說佛名經』을 비롯한 총 9冊 56卷의 佛說佛名經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일일이 대조 정리하여 신행생활에 유용하도록 새롭게 엮은 佛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올리는 절(拜)은 자신의 修行을 위한 것이라면, 부처님의 名號를 독송하며 올리는 절(拜)은 願力成就의 원동력입니다.

1만 분의 부처님 명호를 통해 수행과 원력의 성취를 체험하십시오. 만불명호경을 받아지니는 그 자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참회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의 행복발원기도, 건강발원기도… 그 소중한 원력들을 지닌 기도를 이제는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편 집 : 도서출판 佛泉
감 수 : 월운 큰스님(동국역경원장)
역은이 : 초격 스님
보급처 : 광명선원
☎ 02) 584-1108, 587-3753
016-217-0143
가 격 : 35,000원

도서출판 佛泉 ※ 많은 불자님들께 보다 널리 보급하고자 전화나 우편주문으로 판매됩니다.

두통, 신경통, 관절염, 위장병, 고혈압, 수족냉증, 사십견…

기적처럼 낫는다!



심천 박남희 선생
15년 전 임산수양하면서 인체에 대한 탐구 끝에 심천사혈요법을 창안했으며, 10여년 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그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자기의 병 자기가 고치는' 기적의 대체의학

심천 사혈요법

죽은 피(어혈)만 빼주면 모든 병이 물러간다!

인체의 각 장기와 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워 물리치는 '피'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 몸은 늙을 이유도, 아플 이유도 없다. 그러나 신장이나 간기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금속이 누적되면 생기는 어혈(죽은 피) 때문에 사람은 병들게 되는 것이다.

'심천 사혈요법'은 바로 이 어혈을 직접적으로 빼내어 병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자연요법이다.

각종 만성병, 난치병까지도 낫게 하는 '심천 사혈요법'의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탈모 변비 근육통 무좀 감기 요실금 생리통 간질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혈압증 당뇨병 우울증 간염 지방간 통풍 저혈압

심천 박남희 지음 | 값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733-3135 www.mindvision.org

이책 저책

정휴스님 소설 '열반제'



정휴 스님이 삶과 구도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소설 〈열반제〉(우리)를 내놓았다.

'정휴 전집' 다섯 번째 권인 이 소설은 한 이름 없는 노승 혜광 스님의 다비식을 찾아가는 세 인물, 즉 나레이터인 석엽과 혜광 스님의 속세 딸 지영, 그리고 혜광 스님의 쫓겨난 제자 지성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이제 막 수행길에 들어서려는 '나', 즉 석엽 스님과 파계승에 가까운 지성의 운명적인 부딪침이 예사롭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 소설은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 진정한 구도란 무엇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끈질기게 천착하고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마하르쉬 회상록 '추억의 …'



아루나찰라의 진인(眞人) 라마나 마라르쉬 관련 서적들을 전문 출판하는 도서출판 탐구사에서 아루나찰라 총서시리즈 네 번째 권 〈추억의 마라르쉬〉를 내놓았다.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탐구법으로 유명한 남인도의 힌두 성자. 이 책은 1930년대에 그를 찾아가 제자가 된 발라라마 레디가 마하르쉬와 함께 수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모은 회상록으로, 스승의 가르침과 일상 생활, 그리고 제자들을 이끄는 모습 등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마하르쉬의 병환과 입적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최봉수 교수 '불교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기준을 삼고 실천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불교란 무엇인가〉(부디스트웹)가 나왔다.

1편 '불교의 특징'과 2편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근본불교 전체의 흐름과 사상을 구체적인 경전자료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고 있다. 또 3편 '인간과 세계 진리와 수행 그리고 신앙'과 4편 '불교윤리와 생활'을 통해서는 불교인의 신앙과 윤리적인 생활에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피고 있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불명모음집 '만불명호경'



부처님께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불(南無佛)' 한 마디 부른다면 그는 이미 불도를 이루어 마친 것'이라 하셨다. 더구나 108배나 3천배, 1만배 등의 정진을 하며 불명을 독송한다면, 서원하는 일이 보다 거룩한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명 모음집 〈만불명호경〉(불천)은 절(拜)을 신행으로 하는 불자들이 신행 동반자로 활용할 만하다. 이 책의 특징은 절과 독경을 동시에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지심귀명례 00불' 형식으로 구성,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긴 불명을 수록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이다. 또한 시간도 100배에 10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쉬지 않고 14시간 정도면 완독할 수 있는 분량이다. 값 3만5천원. 김중근 기자

마침내 드러난 지하궁의 보물들

웨난·상청융 '법문사의 비밀'



◇진주와 영락으로 몸전체를 장식하고 있는 봉진신보살상.

소설로 쓴 고고학 발굴기
진신사리 중국전래 등
역사적 사실 심층묘사

〈법문사의 비밀〉(일빛)은 법문사 지하궁에서 발굴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티브로, 중국의 불교 수용과 발전과정 그리고 당나라의 역사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중국 산서성 서안의 당나라 황실사찰 법문사(法門寺). 중국의 사찰 가운데 전기적(傳奇的) 색채가 가장 두드러지는 사찰이다. 특히 희곡 '법문사'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사찰 지하궁에 매장된 수많은 국보급 보물들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법문사 지하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87년 탑의 기반을 정리하면서부터이다.

역사적 사실을 기저로 법문사 지하궁 발굴과정을 소설적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이 책은, 법문사 진신보탑 붕괴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1981년 8월 24일 오전 10시, 13층(46m) 팔각 석가모니 진신사리탑이 낙뢰를 맞아 면도날로 잘라 놓은 듯 절반이 사라진다. 그리고 5년 후 나머지 반도 무너졌다. 이를 계기로 산서성 정부는 진신보탑을 복원하기 위해 '법문사 고고학 발굴대'를 구성, 발굴을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지하궁이 발견되고 천년동안 묻혀 있던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비롯 아육왕탑(阿育王塔), 봉진신보살상(捧眞身菩薩像) 등 2천9백 여점의 진귀한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유물들은 대부분 불교문화 연구는 물론 당나라의 정치·경제·문화·예술 그리고 해외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는 자료들이다. 또 이 책은 발굴현장 이야기를 넘어 지난 역사 이야기를 덧붙여 불교와 중국역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부처님 진신사리의 경우, 포교를 위해 석가모니 진신사리 8만4천개를 여러 나라에 봉안했다는 사실, 진시황 때 석리방 등 서역의 불자들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담은 보석함을 들고 중국에 들어왔다가 추방당하는 이야기, 8명의 황제가 7차례 법문사에 불사리를 봉안했다는 사실 등 부처님 진신사리가 중국에 들어오는 과정과 중국의 불사리 신앙을 밝히고 있다.

지하궁 못지 않게 주목할 것은 발굴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문사에서 미륵이 된 여황제 측천무후와 그의 치마를 만날 수 있고, 궁정용 다구(茶具)를 통해 중국인의 고대 차문화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30여 일간의 발굴과정을 통해 법문사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진다.

글쓴이는 '진시황 병마갱'의 발굴과정을 담은 〈진시황릉〉 등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웨난과, 잡지사 기자이며 여러 문학상을 수상한 상청융. 이들의 불교적 소양과 사학에 대한 조예, 그리고 예리한 관찰력과 기발함은 이 책의 가치를 높여준다. 특히 법문사가 융성할 수 있었던 역사적 토대, 한유의 '불골에 대해 간하는 표'에 대한 평가, 법문사 문화의 개념과 의의에 대한 이야기 등은 전문가들조차 귀를 기울이게 한다. 또한 불교 문화의 측면에서 글쓴이들은 법문사의 이름 내력, 당대 불사리의 공양과 법문사, 법문사와 밀교와의 관계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내리고 있다. 법문사 지하궁이 발견된 뒤 10여 년 동안 발표된 작품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탁월한 고고학 발굴기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값 2만1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싯다르타 고행길 모험적 동행

파트리치아 켄디 장편소설 '싯다르타'



이탈리아 20대 여성 종교학자 파트리치아 켄디의 첫 장편소설 〈싯다르타〉(민음사)가 우리말로 출간됐다.

싯다르타의 삶과 고행 그리고 깨달음을 그린 이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를 침묵에 빠뜨렸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킨 화제작.

이 소설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 〈머나먼 갠지즈〉는 싯다르타의 출생부터 출가까지의 과정, 즉 아버지 숫도다나 왕의 궁전에서 보낸 행복한 어린 시절과 아내인 야소다라와의 사랑, 아들의 탄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까지의 고뇌를 다루고 있다. 2권 〈네가지 진리〉에는 깨달음을 향한 고행의 과정에서 겪는 투쟁, 전생의 연인이었던 나라야니와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마침내 진리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붓다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마지막 3권 〈붓다의 미소〉는 깨달음을 얻은 싯다르타가 고향인 샤카 왕국으로 돌아와 가르침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싯다르타의 생애를 중심으로 적고 있지만, 전기소설은 아니다. 글쓴이는 경전에 기록된 싯다르타의 삶을 고증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르만 헤세가 싯다르타의 삶에서 명상적이고 초월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파트리치아 켄디는 고대 싯다르타 일대기에서 동화적이고 모험적이 요소들을 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힌두교의 3대 신인 브라흐만, 시바, 비슈누를 비롯 알라라 칼라마, 아시타 등 고대의 경전에 등장하는 선인들의 지혜로운 잠언과 '마하바라파' 등 인도의 고대 서사시 그리고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인물들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들이 어우러져 싯다르타의 고행길을 동반한다. 이런 점에서 이책은 '싯다르타의 생애와 고대 신화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소설의 빛나는 성취는 궁극의 깨달음 즉 진리를 찾아가는 싯다르타의 모습을 재미있게 읽게 한다는 점이다. 고통과 번뇌를 멸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수행하는 싯다르타의 의식을 따라가며 글쓴이가 풀어놓는 이야기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진리란 무엇인가를 명상하게 한다.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불조삼경지남(정한 스님 역주, 운주사)= 〈불조삼경(佛祖三經)〉은 불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승가에 귀의하는 수행자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경전. 중국에서는 선원에 처음 들어오는 수행자들은 꼭 이 세 경전을 배워야만 입방을 허락할 정도로 중요한 경전이다. 수행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또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이 책에는, 〈사십이장경〉을 비롯 〈불유교경〉 〈위산대원선사경책〉의 원문과 해설이 실려있다. 값 8천원.



▲알몸(설산 스님 지음, 청어와 삐삐)=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 결혼식을 올려 준 이야기를 담은 설산 스님(21세기 한국사회봉사회 이사장)의 수필집. 수많은 남녀 영혼들을 맺어주는 영혼 결혼식에 얽힌 사연들을 담은 영혼결혼식을 비롯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인연을 소중히 하라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값 7천8백원.



▲세상에서 부는 바람(정송 스님 지음, 도솔에이전시)= 일상 속의 불법을 수행자의 시각으로 담은 수필집. 세상에서 부는 바람, 속리산은 아름다워라, 미륵부처님 이야기, 무상의 미학 등 모두 8부로 나뉘어진 이 책은, 주위의 모든 것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고 그 속에 깃든 참 의미를 캐내는 글쓴이의 따스한 마음이 빛난다. 특히 미륵십선화 운동에 대한 글들은 신행에 활력을 갖게 한다. 값 8천원.



▲기를 타고 온 노자(정준 지음, 아세아문화사)= 노장사상에서 기원한 '학촌기공'이 우수한 예방 의학적인 기능을 가진 심신수련법이란 사실과 정서안정과 창의력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는 호흡명상법이란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평소 건강에 무신경하다 몸에 이상이 생겨야 병원을 찾는 우리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고 예방의학을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값 7천5백원.



▲해설이 있는 우리말 법요집(김호성 편저, 민족사)= 〈한글불교의식집〉 증보판.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92년부터 97년까지 백화도량 운영 경험을 토대로 엮은 이 책에는, 오분향례를 비롯 예불, 발원, 불공, 참회, 좌선, 문상 등 여러 의식이 총망라돼 있다. 수계와 포살, 문상의식, '좌선의 정의', '화두드는 법', '계초심학입문' 등은 새롭게 추가된 것. 재가불자들의 입문·법회·수련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전생가기 참 쉽다	설 기 문	도 솔
3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4	삼천사혈요법	박 남 희	정신세계사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	대 성	탐 구 사
7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강원	법 공 양
8	아난존자의 일기1	원나시리	운 주 사
9	달라이 라마, 삶의 네가지 진리	주 민 황	숨
10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도서 안내:(02)737-0695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교보, 영풍, 종로, 을지, 서울, 영광, 동보서적 베스트셀러 설기문 지음 / 값 8,500원

설 교수가 안내하면 혼자서도

전생 가기 참 쉽다

국내 최초의 전생 매뉴얼북

전생 다녀오는 시간 45분

- 전생 유도 테이프에 의한 최면으로
  가장 편하고 가장 빠른 방법.
  45분짜리 테이프를 한 번 또는 두 번 듣기만 하면…….
- 펜듈럼 · 점막대 · 손가락 · 거울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마술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 거울 속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 꿈과 상상을 통해서
  내가 말을 건네면 꿈은 반드시 응답한다.
- 현재의 나와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나는 전생의 가장 완벽한 증거. 주의 깊게 주위를 다시 보면…….

전생 유도 테이프 포함

설기문
동아대 교수 · 미국 공인 최면 전생 치료사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미국 인터내셔널 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객원 교수 역임.
KBS TV 〈미스터리 추적〉을 포함한 다수의 TV프로그램에 출연.

★ 전생 유도 테이프에 보호령이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생을 알고 나면 ➡ ● 몸과 마음, 대인 관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풀린다. ●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

02)738-0931

세상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의 모두가 아니다

신간



- 육체가 죽은 후에 나는 정말 없어지는 걸까?
- 내 전생과 내생은 우주 속에서 지금과 어떻게 달랐을까?
-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친구나 가족의 영혼과 만나는 방법은?
-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얽힌 진실은?
- 역사가 밝히지 못한 아틀란티스 시대 이전의 초고대 문명에 대하여

이 책은 이제껏 내가 읽었던 책들 중 단연코 최고였다
리처드 바크, 《갈매기의 꿈》의 저자

Seth Speaks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
제인 로버츠
서민수 옮김
값 8,500원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태부족"

50년간 논문 64편 뿐…내용도 문제제기 그쳐

김순석 박사 지적



한국 불교사의 끊어진 고리,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논문은 김순석(독립기념관 연구원 · 사진) 박사의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가 9월 초 발간하는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수록된 이 논문에서 김 박사는 "해방 이후부터 1998년 말까지 발표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논문은 64편에 불과하며, 이 또한 조선후기 불교에 대한 개괄 내지는 문제 제기만을 하고 있을 뿐, 사상 · 법맥 · 종파 · 사찰 경제 등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조선후기 불교 사상의 보고인 사기(私記)를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어 당대 불교사상 이해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스님의 신분 역시 명확히 연구되지 않아 지금까지도 '천민'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 왕조의 억불정책에 대해 당대 불교계의 저항 역시 연구되지 않고, 사찰 경제의 규모와 토지 소유 형태 및 수취(收取)에 관한 부분도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조선 왕조의 억불정책으로 스님들은 온갖 잡역에 시달렸고, 종파들은 통 · 폐합돼, 그 수가 현격히 감소했던 조선후기의 암울한 불교사가 또다시 학자들에게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조선후기 불교는 기층민의 생활 속에 파고든 살아있는 불교'라는 게 불교사학계의 묵시적인 시각일 뿐, 정작 학자들이 당대 불교사 연구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제도권 학계와 교단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자의 부족은 경쟁 없는 연구 풍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의 첫 단계인 관련 사료 정리마저도 등한시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김 박사는 결론에서 "조선후기 불교사는 오늘날 불교계 현실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밝힐 단서"라며 제도권 학계와 교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현실도 어두워진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일의 갈 바를 일러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제도권 학계와 교단의 관심이 기대된다.

■ 지금까지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해방 이후 1998년 말까지 발표된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논문은 총 64편. 이 분야를 처음으로 다룬 것은 1947년 차상찬 박사의 〈조선사외사(朝鮮史外史)〉. 뒤이어 1959년 백성욱 박사의 〈송수기념 논문집〉에서 조선후기 불교사상을 고찰한 '조선불교 호국사상에 관하여', '추사의 선학변(禪學辨)', '유불상교의 면에서 본 정다산' 등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는 '이조후반기의 사찰 제지업',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防番錢)에 대하여' '승인호패고(僧人號牌考)', '백파의 선문수경' 등이 나와, 조선후기 사원의 역할과 신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는 조선후기 불교사 전반을 분석한 이기영의 '왕조말기의 불교'를 비롯해서 백파 긍선과 추사 김정희 사이에 벌어졌던 선(禪) 논쟁에 관한 논문과 서산대사의 선사상을 조명한 논문 등 16편이 발표됐다. 1980년대는 20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사찰의 경제와 승계(僧契)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현 대한불교 조계종의 법통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 등 영역이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에서 지금까지는 총 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사기(私記)와 문집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스님들의 법맥과 개별 사찰의 역사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중국 강서성 우민사에서 17일 열린 한 · 중 선학 학술대회 모습.

마조선-신라선문 '관계 조명'

한 · 중 선학 학술대회

중국 강서성의 선종과 신라선문의 관계를 조명하는 제1회 한 · 중 선학 학술대회가 17일 중국 강서성 우민사(방장 일성)에서 개최됐다. 중국에서 선법이 신라로 들어온 이래 양국의 첫 선학 학술회의의 화두는 강서 선종과 신라 선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백운(前 범어사 강주) 스님은 '무상 선사와 마조 도일 사자개계(獅子開係) 소고'에서 사천성 혜의정사, 남선원 사증당비에 기록된 무상 · 마조 · 무주 · 지장 스님 등의 용모와 봉안된 정황 등을 들어, "무상 스님의 선법이 마조 스님으로 이어져야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조 스님 문하에서 신라의 9개 선문 중 7개 선문이 인가를 받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마조 스님의 수행법은 남악 회양 스님보다 오히려 무상 스님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만락생(강서성 의풍박물관) 관장의 '황벽사지에 대한 소고', 조국경(강서성 사회과학원) 부교수의 '여산 불교의 문인', 이준(중앙대 ·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교수의 '신라말 조동선의 한국전래', 이희재(아주대) 교수의 '여산 혜원의 백련결사와 고려 불교계의 동향', 최인선(순천대) 교수의 '중국 부도와 한국 부도의 비교 연구' 등이 발표됐다. 오종욱 기자

표충사 내원암 도문화재 추진

제주 존자암 세존사리탑도

경남 밀양시 표충사 내원암과 제주 서귀포시 세존사리탑이 각각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밀양시와 제주시는 각각 18, 17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 두 문화재를 도문화재로 지정 ·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목조건물인 표충사 내원암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전통건축 양식의 변천과정과 당시 선방의 구조 및 배치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내원암은 맞배지붕 건물로는 보기 드물게 그 규모가 크고 건물의 측면이 4칸이면서 3칸 기둥을 세워 난방을 위한 아궁이 설치를 고려한 게 특징이다. 또 대들보와 종중보의 크기가 같은 등 목조건물로는 보기 드문 건축양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내원암은 1695년(숙종 21년)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리탑인 존자암 세존사리탑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으며 고려말에서 조선초로 추정되는 축조양식과 건조수법, 우리나라 전통적인 8각 원당형 사리탑의 기본 양식 등을 갖추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도문화재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함께 지정 신청한 제주시 월정사 목조보살입상과 니조여래좌상(본지 283호 9면 참조)은 보존가치는 인정하지만 추가검토를 통해 차후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학술단신

'화엄경금사자장' 강좌

깨침터(대표 법해)는 황금사자를 비유로 화엄의 오묘한 세계를 설명한 현수 법장(당나라) 스님의 〈화엄경금사자장〉 강좌를 마련한다. 신규탁(연세대 · 철학과) 교수가 진행할 이번 강좌는 9월 5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화엄경금사자장〉의 한문 원문 강독과 해설로 진행된다. (02) 742-0085

불교학硏 월례발표회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는 9월 2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제1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 신규탁(연세대) 교수는 '화엄교학의 관법에 대하여-법계관문을 중심으로', 정병삼(숙명여대) 교수는 '의상의 화엄사상과 통일기 신라사회'로 발제에 나서며, 본각 · 해주 스님과 이효걸 · 정순일 교수 등이 논평한다.(02)-2260-3128

삼학원, 신입생 모집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삼학원은 불교원전연구 · 불교어학연수 · 기초학습 과정을 이수할 2000년 3학기 신입 원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스님, 석사학위 이수자, 강원 · 중앙승가대 · 동국대 졸업자 등이며, 접수 마감은 9월 2일까지. 93년 개원한 삼학원은 불교학 및 한국학의 연구의 전문화를 위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왔다. (02)765-9602



일본인 기증 범종 시료분석 결과 "고려범종 확실"

국립문화재硏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일본인 다까하라 히미꼬 씨가 99년 11월 5일 우리나라에 반환 기증한 고려범종(사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범종은 시료분석 결과 상원사 동종의 성분비와 매우 비슷해 당시 우리나라 대형 범종의 일반적인 합금비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구리와 주석, 납의 합금 성분 가운데 납의 성분비를 2% 내외로 낮게 혼합한 것으로 나타나, 주조작업이 다소 어렵기는 해도 맑고 장엄한 소리를 내기 위한 전통적인 주조법에 따랐음을 확인했다고 문화재연구소는 밝혔다.

또 이 범종의 제작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명문은 없으나 구경과 종신고의 비율이 통일신라의 형태를 띠면서 상 · 하대 문양, 비천상 등의 장식문양 등은 고려시대 요소를 갖추고 있어 통일신라시대 전통을 계승한 고려시대 범종임이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범종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부다패이 사이버 기행

다르마팔라-탕카학교

탕카 제작기법 배울 기회

티베트 불교의 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불교 미술품이 곧 탕카(thangka)다. 네팔 카투만두에는 히말라야 인근 지역에서 가장 권위있는 탕카 교육 기관인 '다르마팔라-탕카학교(Dharmapala Center-School of Thangka Painting)'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면, 고화질 그래픽 탕카 30여 점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탕카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제작 기법까지도 배울 수 있다.

국내 불교미술의 탱화와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탕카는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이치를 담고 있는 티베트 불교의 미술품으로, 티베트 스님들이 주로 명상을 할 때 사용해오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탕카에는 6가지 색상 즉, 흑 · 남 · 황 · 적 · 녹 · 백색이 주로 사용된다. 흑색은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고 남색은 물, 황색은 땅, 적색은 불, 녹색은 공기, 백색은 대기 밖의 영기(靈氣)를 의미한다.

이 사이트에서 국내 불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따라보살', '마하깔라', '육도윤회도' 등을 관람할 수 있는데, 각 탕카에 담긴 의미는 다음과 같다.

△따라(tara)='바다나 강을 건넌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일을 도와주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어느 날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중생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해, 이것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오른쪽 눈물에서 녹색 따라보살이 태어나고 왼쪽 눈물에서 백색 따라보살이 태어났다고 한다. 미간과 양손 양 발바닥에 7개의 눈이 있다는 백색 따라보살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마하깔라(Mahakala)=관세음보살이 사악한 중생을 제도할 때 나타내는 관음의 분노존이며, 흰두교에서 파괴의 신(神)인 시바의 다른 이름이도 하다. 깔라(kala)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라고 불린다. 마하깔라는 불교의 호법신에 편입되면서 삼보를 수호하고 굶주리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존재로 알려졌다. 탕카에서 마하깔라는 분노의 얼굴에 해골 목걸이를 두르고 시바의 아들 가네쉬를 밟고 있는 모습이다.

△돌고도=생명의 수레바퀴를 나타낸 탕카가 '육도윤회도'다. 생명의 바퀴로 불리는 이 그림의 중심에는 수탉과 독사 그리고 돼지가 뒤엉켜 있는데, 윤회하는 세 가지 힘의 원천인 탐욕, 성냄, 무지를 상징한다. 두번째 원의 오른쪽은 나쁜 과보를 받는 모습이고 왼쪽은 선지식의 인도로 아미타불 정토에 태어남을 상징한다. 세번째 큰 원은 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천상, 인간, 아귀, 지옥, 축생, 아수라등 여섯 갈래의 윤회세계가 그려져 있다. 네 번째 원의 12개 그림은 12연기를 상징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http://www.bremen.de/info/nep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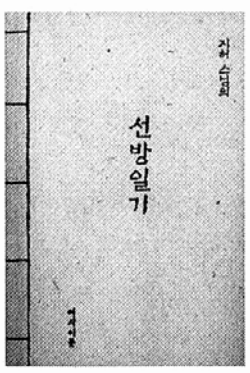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걸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 · 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 · 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체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 · 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 · 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박태원 교수가 쓰는 〈2〉

불교로 보는 인생

집착 버리니 화해의 길 열려

분단이 낳은 미움과 편견들 자비로 포용할때 통일 이뤄

남과 북의 만남

다시 만났다. 어릴 적 생이별한 아들을 보자 치매로 말을 잊었던 어머니가 입을 연다. 간혹 이런저런 정치적 수사가 어설프기도 하였지만, 혈육의 본능적 끌림과 그리움은 실로 눈물겨웠다. "어머니, 이제야 왔습니다!" "네가 순환이냐?" - 환갑 넘어 북에서 온 아들을 휠체어에 앉아 어루만지는 팔순 어머니의 여윈 팔과 손. 길 잃고 헤매다 어머니 품에 안겨 안도하는 어린아이 표정으로 어머니 손에 얼굴을 비비는 늙은 아들. 그 사진이 너무도 가슴 아리기에 곱게 오려 두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붙은 통일의 열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감상은 '낯선 것들의 포용'과 '집착하지 않음의 공덕'이었다. 남북 분단의 가장 큰 해악성은 '이질적인 것의 밀쳐냄'이라 생각한다. 인위적 산물인 정치 이념을 경계로 삼아, 남과 북은 그 혈연적, 역사적, 문화적 낯익음을 철저히 배반해 왔다. 남북 분단은 '낯익은 것들의 낯설어짐'이었고, '동질성의 이질화 과정'이었으며, '낯설어진 것들에 대한 밀쳐냄과 미움의 증폭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필연적 후유증으로 울타리 안의 획일주의가 강화되었다.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이념의 울타리 안 구성원들을 단단히 묶어 줄 획일적 사고 방식을 여러 형태로 고안하여 실천하였다. 그러니 다원주의적 공존과 평화의 질식사는 그 과보였을 밖에.

통일은 정복적 획일화가 아니다. 낯선 것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통일의 실제 내용이다. 모처럼 굳게 맞잡은 남북의 손에서 비로소 '낯설어진 것들의 공존 가능성'을 엿본다. 남과 북의 우리는 불과 반백년 사이에 얼마나 낯설게 멀어져 왔던가? 그리고 그 낯설음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겨왔던가? 울타리 안의 낯익은 것들끼리만 단단히 뭉쳐' 울타리 밖 낯선 것들을 경계하고 증오하며 공격하면서, 우리네 곱고 훈훈하던 심성은 얼마나 날카롭게 날이 서 왔던가? 남의 어머니와 북의 아들을 손잡게 해주는 시절 인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모처럼 낯설음을 안을 수 있는 여래장(如來藏)의 잠재력, 그 무집착의 힘을 확인한다.

어차피 낯선 다른 것들과 어울려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 한국인과 일본인이 얽혀 사는 사바세계. 그런데 인간은 그 자연스러운 차이를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고려하여 만들어낸 이런저런 기준으로 차이를 차별로 왜곡시킨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근거 없는 우월 의식, 소위 정상인의 이른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온갖 인종적, 민족적 편견들은 자연스런 차이들을 인위적인 차별로 일그러뜨린다. 성별, 나이, 신분, 용모, 직업, 종교 등의 언어를 매개로 만들어진 차별의 경계와 울타리는 인간사 고통의 중요한 원천이다. 어째서 이런 왜곡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아마도 인간 생명의 첫출발부터 개입하고 있는 근본 무지의 성향 때문인 듯하다. '무시이래(無始以來)의 무명(無明)'이라는 말의 심오한 뜻은 접어 두더라도, 생물학적 언어로 보건대 그 근본 무지의 성향은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 특유한 의식 기능으로 자리잡으면서 더욱 뚜렷하게 작동했을 것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如實하게) 보지 않고 이런저런 선입견과 인위적 가치관과 기준들로 오염시키려는 무지의 성향들. 그런 무지의 충동이 현실을 왜곡해 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희론(戱論)이라 한다.

중생은 희론에 빠져 있다. 일단 희론에 빠진 중생은 '단단히 달라붙음(집착)'으로 그 희론을 유지한다.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더러 못났다고 깔보고,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자더러 '병신'이라 맞받아친다. 생명에 깃든 무지의 충동으로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울타리를 친 중생은, 다시 그 안경과 울타리에 집착하여 낯선 것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면서 반성할 줄을 모른다. 그 과보는 분열과 배타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다.

'익숙한 기준에 달라붙지 말아라!' -부처님의 처방이다. 무집착의 힘을 키워야 비로소 희론에서 탈출하는 길이 열린다. 왜곡된 차별의 울타리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차이들을 평화롭게 공존시키는 해방과 평화, 화해의 길이 뚫린다. 통일이란 그 연장선에 있어야 할 터.

남북의 만남은 '단단히 달라붙어 있던 울타리와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무집착의 향연이다. 수십 년 동안 집착하던 자기 울타리를 허물거나 뛰어넘는 방하착(放下着)의 수행이다. 이런 해탈의 의미를 잊지 않고 확대해 간다면 남북의 만남은 만다라 그 진리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울산대 철학과〉

"번뇌망상 여의면 해탈의 경지 도달"

법회중계

덕천사 5백나한 점안법회

〈2000년 8월 23일〉



신허 스님
〈통도사 주지〉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남을 부처님처럼 모시면 수행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공부하고 있지만 청정한 법계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영원한 진리로서 한번도 이 세상에 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천 백억 화신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여래는 오탁악세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희유하게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시고 나니 부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는 중생심이 살아 있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철로 나무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신심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처님 모습만 형상화했다고 해서 불상조성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 형상에 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신묘한 법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상에 마음의 묘법을 더하는 것이 점안 의식입니다. 점안의식은 형상에 집착하는 중생심을 버리게 하고 부처님의 신묘한 가르침에 귀의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점안법회를 갖게 된 5백 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를 이룬 뛰어난 부처님 제자들로 잡념이 없고 망상, 집착심을 여의고 해탈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심득자재의 경지에 올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쓰며 육신통을 두루 갖추고 가깝거나 멀거나 한 생각으로 보고 듣고 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중생들이 가지는 일체의 망상, 번뇌를 여의고 멸적의 상태에 머물며 다시는 중생 같은 어리석은 존재로는 태어나지 않는 불생과(不生果)를 얻은 것이지오. 이처럼 부처님의 법을 이은 성자들은 마땅히 공양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한 중생들의 공양에 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5백 나한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응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5백 나한 점안법회에 동참한 인연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5백 나한님들의 경지에 비추어 봅시다.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잠시를 앉아 있어도 어떤 때는 우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온갖 잡념들이 일어나는 중생심을 여의고자 한다면 부처님의 법을 따라 수행하여 아라한과를 얻은 나한님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라한과를 이룬다는 것을 멀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삼고 잘못을 참회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이 몸이 살아 있을 때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해탈해야 합니다.

살아서 해탈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지금 해탈해야 합니다. 한순간 한 순간을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의 마음에 비추어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광대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살고자 한다면 타인을 부처님 시봉하듯 모시며 살겠다는 원력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수행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 속에 부처님의 모든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 자주 듣고 배워도 실천이 없다면, 점안 의식을 치르지 않는 불상처럼 형상만 남게 되어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체득한 불법의 큰 바다에서 항상 함께 하는 불제자가 되도록 합시다.

정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日불교 탈피…美 입장서 불교보기

세계의 불교학 〈24〉 미 국 ⑥

교리·철학 등 텍스트 방법론 탈피 염불·의식 등 전통 수행문화 중시

미국 불교학의 현재 모습을 알고 싶다면, 우선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와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하는 학술회의를 살펴야 한다. 두 학술회의는 미국의 불교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검증받는 데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등지에서 온 교수· 대학원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불교학의 가장 큰 변화는 구세대 학자들이 일본의 불교학 체계를 그대로 답습했던 기존의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불교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불교와의 결별로 봐도 좋다.

우선 미국의 불교학자들은, 일본불교에 내재되어 있는 종파주의가 일본불교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불교를 연구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이로 인해 불교 자체도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불교학자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불교 즉 일본불교를 연구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인 당나라와 송나라 전반기까지의 불교를 연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미국의 불교학자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일본 불교학의 좁은 시야로 중국 및 한국불교를 이해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불교학 연구방법론은 주로 경전·어록 등의 텍스트 연구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 불교학계 역시 교리와 철학 쪽에 연구의 비중을 실어왔다. 다양한 불교 의식이나 '절' '염불' 등 불교의 신앙적 특성 같은 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 불교학계는 몇 명의 엘리트 고승들의 사상 연구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 불교 자체의 전통과 수행 그리고 일반 불자들의 종교관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좋은 예가 80년대부터 미국의 불교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에 대한 연구다. 그 동안 위경들은 소위 '가짜 경전'이라는 이유로 학자들로부터 소외되었는데,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중국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좋은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경전이나 어록 등의 텍스트 중심의 연구가 아닌 불교 미술이나 사리탑, 비석 등 다양한 불교의 문화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계 사찰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

이러한 경향은 불교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내에서 교수 자리를 구할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 전통적인 유식학이나 화엄사상만을 공부한 사람들이 교수로 채용되는 경우가 다양한 불교학 관련 분야를 공부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힘이 든다. 다시 말해서 연구하려는 대상에 대한 공부 못지 않게 다양한 연구 영역이나 방법론에 대한 학자로서의 관심과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학과에서 불교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에게 용수·법장 스님 못지 않게 푸코, 레비스트라우스, 데리다 등의 철학과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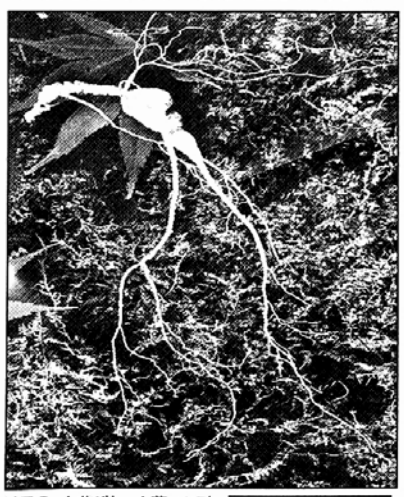
초기 미국불교학계는 일본의 불교학 연구 체계를 그대로 답습해 왔지만, 90년대 이후 미국 불교학계는 점점 일본의 연구의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天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언제나 어디서나 '사물과의 대화'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늘이 들려주는 말
땅이 들려주는 말
꽃·새·별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백담사에서 '무금선원'으로 오르는 길기의 부도 옆에 선 오세영 시인. 그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도 늘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산문밖의 선禪 시인 오세영 씨

'산으로 든다(入山)'는 말이 있다. 등산(登山)의 의미로도 읽히지 않고, 그렇다고 출가(出家)의 뜻으로도 다가오지 않는, 하지만 묘한 여운을 지닌 말이다. 그런데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일을 15년째 해 오는 사람이 있다. 시인 오세영이 바로 그다. 그는 겨울이면 어김없이 산으로 든다. 그리고 그는 그 산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산사에 둥지를 튼다.

아직 겨울이 저만치 먼데, 그는 또 산으로 들었다. 설악산 백담사로. 그러나 이번에는 제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려(?)갔다. 제4회 만해 시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8월9일 열린 제2회 만해축전으로 들썩거리던 설악산 백담사 계곡에서 오세영 시인을 만났다. 그의 얼굴에 시인 한용운의 얼굴을 포개 본다. 그러나 금새 어긋나고 만다. 그가 겨울마다 산사로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의 시 세계에서 불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은 탓이다. 그러나 그는 천상 시인이었다. 기자의 속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편안하면서도 명쾌한 언어로 순식간에 의문을 거두어 준다.

"시란 모든 현실에 대해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존재인 신이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내가 주인이므로 이 비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히 만해 시문학상 수상자다운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도 돼나 오랜 시적 여정을 거쳐야 했다. 선사가 화두를 들고 면벽정진하듯, 그 또한 시라는 화두와 힘겨운 씨름을 한 시절이 있었다.

"첫 시집을 내고 두번째 시집을 내기까지 십이 년이 걸렸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던 때여서 바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개인적으로 방황의 시기였습니다."

첫 시집 〈반란하는 빛〉은 20대라는 젊음이 앞섰기에 모더니즘이라는 서구사상에 심하게 기울어 있었으며, 때론 감각적 언어를 앞세우는 과격한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다 문득 현학적 기교만을 앞세운 언어의 유희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는 반성이 들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의 예술성에 더해 철학이라는 것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동양사상, 특히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동양사상에서 자연을 말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 무언가에 접근하기 위해섭니다. 그건 바로 존재 그 자체고, 시 역시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의 시에는 나무와 풀잎, 꽃, 돌멩이, 나비처럼 자연 속의 생명체가 그대로 드러난다.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동양적 관조와 사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말만이 말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인간의 말만이 아닌 사물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들려주는 말을, 땅이 들려주는 말을, 꽃과 새와 별이 들려주는 말을…."

하지만 그 생명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예찬하기 위한 대상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행위는, 생명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는 일이자 모든 생명있는 것들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시는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되 직설적으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사물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깨우치게 합니다. '나무'를 통해 인간을 얘기하는 식이죠. 은유와 상징이란 점에서 시의 언어는 선(禪)의 언어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존재 의미 묻는 시인은 '자유인'이죠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만든 것들, 이를테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현실세계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에게 있어서 선(禪)은 '자유롭게 세상보기'의 다른 표현이다.

"교과서에서 이순신은 평생 한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옵니다. 사소한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시인은 바로 거짓말하는 이순신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핏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인간이 사는 길에서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시인은 그 현실도 외면하지 않는다. 그 현실마저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때 시인은 진정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작은 현실 하나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 세상은 홀로 살 수 없고,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군가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사람도 귀를 열어 인간만이 아닌 사물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사물에 대해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물이 들려주는 말을 듣는 자입니다."

오세영이라는 이름 앞에는 시인말고도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이 또 붙어있다. 학문이라는 메마른 언어의 세계와 시라는 직관의 언어 세계를 넘나드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그는 어떤 방법으로 일상으로부터 자신의 고유 언어를 지켜낼까?

그는 올 겨울에도 산사로 들 것이다.

글=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해마다 겨울이면 산사로 드는 오세영 시인. 제4회 만해 시문학상 수상을 위해 한 여름의 설악산 백담사를 찾았다.



■오세영은

오세영은 지금까지 열권의 시집과 열한권의 평론집, 한권의 산문집을 출간했으며 현재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42년 전남 영광 출생 △1965년 서울대 국문과 졸업 △1968년 '현대문학'에 '잠깨는 추상'으로 추천 완료 △1970년 처녀시집 〈반란하는 빛〉 출간 △1983년 시집 〈가장 어두운 날 저녁에〉로 제15회 시인협회상 수상 △1985년 서울대 국문과 교수 부임. 〈모순의 흙〉 출간 △1986년 '그릇' 연작시로 제1회 소월시문학상 수상 △1992년 '구룡사시편 겨울노래'로 제4회 정지용문학상 수상 △1999년 〈벼랑의 꿈〉으로 제7회 공초문학상 수상 △2000년 산문집 〈꽃잎우표〉 출간. 제4회 만해 시문학상 수상.

■고은 시인이 본 오세영

"불교의 눈으로 세상보는 사람"

오세영 시인은 동양정신으로서의 불교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인간존재 및 사물에 대한 구경을 지향하는 시문학 중진입니다. 그는 때로는 철학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입니다.

그 역시 많은 문학상을 받은 시인인데, 그것은 한국 근대사의 한 정맥을 잇는 민족정서와 세계정신의 보편성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아메리카 시편〉에서와 같은 문명비판의 예리한 시각도 시단에서 보기 힘든 일입니다.

-제4회 만해 시문학상 심사평 가운데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 는 자연입니다
자매품 BIO 황토 요람침대
▶ 전자파 자체 제거기능(특허 제0157651호)설치
▶ 리빙스톤은 가격, 품질, A/S 에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베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자매품 원적외선 BIO돌침대
■ 봄(가을)에 불을 안 넣으면 방 바닥이 차고…
정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적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목단 902
101 싱글보료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가격이 싸다고, 광고가 요란하다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열장치가 "열선장치"인지 "특수카본 필름장치"인지 초장파는 장치되어 있는지 …
돌판은 원석인지, 그리고 수입석은 아닌지 철분은 많지 않은지 …
입소문 제품이 제일 믿을수 있습니다.
침대의 名家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氣 리빙스톤 (옥스톤)
Living Stone Bed
☎ 02)424-9427/2203-7821


◇서옹스님과 진제스님이 법단으로 향하고 있다.


◇무차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부처님을 향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법거량에 앞서 진제스님에게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있는 임희동 변호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19일 백양사 대웅전

"참사람 자비정신으로 평화의 역사 창조"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법어(요지)

(주장자(拄杖子)를 들어 법상(法床)을 세 번 치고 설하기를,)

오늘날 현대문명은 인간주의(人間主義)로 세계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인간주의는 한없는 욕망으로 인한 전쟁과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의 전통적 정신문화는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해결한 참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오직 이 참사람만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세계평화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문명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의 문명이라고 하나, 그 이면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욕망적 인간주의로 전락하여 여러 가지 병폐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조사선(祖師禪)은 자아를 초월한 그 본성 자리인 인간의 진실상을 근원적으로 완전히 드러냈으니, 이것을 참사람이라고 합니다.

참사람은 본래 자유자재하여 인간을 과학문명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참사람은 대자연과도 불이·일체(不二一體)의 생명이니 대자연을 포용·애호(包容愛護)하는 것입니다.

참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면서 자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세계인류 평화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선의 참사람 법문을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위산(潙山)스님이 도오(道吾)스님에게 묻되 "어느 곳에서 왔는가?"하니, 도오스님이 이르되 "간병(看病)하고 왔습니다" 했어요. 위산스님이 다시 이르되 "몇 사람이나 병이 들었던가?" 하니, 도오스님이 답하길 "병든 자도 있고 병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위산스님이 이르되 "병들지 아니한 자는 이 도오종지(道吾宗智) 두타(頭陀)가 아닌가?"하니, 도오스님이 이르되 "병과 병아님이 다 타사(他事)에 간섭하지 아니 하나니, 속히 이르고 속히 이르시오"라고 하니 위산스님이 이르되 "이를래야 교섭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를 천동각선사는 이렇게 노래 했습니다.(天童覺禪師 頌)

묘한 약은 어찌 일찍이 입을 통과하는고? 신(神)같은 의사는 능히 손을 잡지 아니 하느니라. 만약 있다고 하면 저것은 본래로 없음이 아니고, 지극히 빈 것이라 하면 저것은 본래로 있는 것이 아니로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이오, 망하지 아니하고 수(壽)하느니라. 온전히 위음왕 부처님 이전을 초월하고 홀로 공겁의 이후를 활보(活步)하느니라. 평정(平正)을 이룸이여, 하늘이 덮고 땅이 받침이오, 움직여 굴림이여, 까마귀(해) 날고 토끼(달) 달리도다.

이것을 다시 나는 이렇게 부연하고자 합니다.

衆流截斷이라 柳綠花紅하고 明月藏鷺하며 獨步靑天하도다.

別別 淸風凜凜拂乾坤하고 四海茫茫却倒流하도다.

喝 -

(모든 흐름이 끊김이라. 버드나무는 푸르고 꽃은 붉도다. 밝은 달 속에 백로를 감추고 홀로 푸른 하늘을 활보(活步)하도다. 특별히 말하노니 청풍은 늠늠하여 건곤을 떨치고, 사방 큰 바다는 아득하여 도리어 거꾸로 흐르도다. 아 - 악 -)



법거량

조계종 기초선원장 영진스님의 사회로 법회에 참석했던 사부대중과 서옹 스님 간의 선문답이 이어졌다.

한 비구 수좌가 연단에 올라 서옹스님이 위산 스님의 법어를 인용해 법문한 점을 지적하며 "위산 선사가 법어를 하지 않았다면 스님께서는 어떻게 사자의 기상을 보이실 것입니까"라며 가르침을 청하자, 서옹스님은 주장자를 세 번 내리친 뒤 "아 악"하며 일 갈(喝)을 한뒤 "그 따위 소리 하지마라"고 호통쳤다. 이에 비구 스님이 오직 깨친 안목으로라야만 무차법회가 아니겠습니까"하니, 서옹스님은 "그 망상 피우지 말라"하자, 비구 스님은 "알겠습니다"하고 물러났다.

이어 한 비구니 스님이 등단해 "거꾸로 흐르는 바닷물을 다 삼켰으면 스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청하자, 큰 스님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보느냐"고 반문했고, 비구니 스님이 다시 "스님은 대도적이십니다. 도적중에 도적이시니 이 작은 도적도 알아봐 달라"고 하자 서옹스님은 "니가 목소리는 크지만 아직 멀었다. 그것으로는 안된다"고 답해 장내에는 폭소가 터져나왔다.

마지막으로 한 거사가 나와 "중생을 위해 자비의 한 말씀을 내려달라"고 하자, 서옹스님은 "여덟 둔안의 맷돌이 허공을 달린다"고 했으며, 다시 "제 큰 아들이 불쌍합니다"하니, 스님은 "불쌍한 그대로 다 제도되었느니라"했다. 거사가 재차 "보리와 번뇌가 서로 방해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니, 스님은 "망상 피우지 말라"했다.

서옹스님 인터뷰

내몫만 지키는 타락한 인간주의 인류 멸망 초래

참사람 무차대법회가 끝난 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옹(西翁) 스님을 19일 백양사 설선당(說禪堂)에서 친견했다.

—참사람 무차대법회를 열게 된 취지는 무엇인지요.

▲오늘의 세계 역사는 지나친 물질의식에 집착한 나머지 부정부패와 내몫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남을 파괴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주의로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참사람은 자유자재하며, 자비심으로 서로를 돕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살려 평화적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남북통일과 인류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법회는 원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데 굳이 '무차' 형식의 법회가 필요한가요.

▲원래 불교는 평등의 정신에 기반하여 가르침을 펴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 사람들에게 습(習)이 들어 이 상대로 안되게 마련이지요. 이를 바로잡아 수행기풍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위빠사나 관법(觀法)과 조사선을 비교해 주십시오.

▲위빠사나 수행은 소승불교에서 유래된 것으로 산란한 정신을 안정시켜 정신을 맑게 하는데 효력이 있지만, 생사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는 참선이 필요해요. 좀 어렵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동양의 조사선이 효과적입니다.

—조사선이 현대에 와서 위기에 처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인간주의가 오늘날 욕망으로 흘러 전쟁과 환경파괴를 낳고 있어요. 물질문명의 이기가 인간을 본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참모습으로 살 때 욕망에 흐르지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조사선의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전통을 되살려 화합을 통해 역사발전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불교에서는 인간의 근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남북문제는 당사자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노력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불자이든 아니든 참사람 정신이 역사창조의 근본이 될 수 있으니, 나를 버리고 동체대비의 '하나'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동안 남북이 분열되어 살아왔는데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인간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서로 통해있는 만큼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해요. 너무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근본과 본심으로 돌아가서 멀리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98년 제1차 국제무차선대회에 비해 행사가 많이 축소됐는데요.

▲98년에는 국제적인 행사로 개최했으니, 이제 국내적으로 내실을 기할 생각입니다. 매년 무차선법회를 개최하고 싶지만 사중 살림을 고려해 2년만에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조계종의 수행기풍 진작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은.

▲조계종이 조사선의 수행전통을 되살려 자비·화합해 민중에 이바지 하는 종단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는 다르듯이 포기·낙담하지 말고 종지종풍대로 정진하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법회를 회향하신 소감은.

▲많은 수행자들이 신심을 갖고 참여해,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차대법회 이모저모

"비도 멈춘 큰스님의 법력"

19일 아침까지 내린 게릴라성 집중폭우 때문에 전날 미리 도착한 신도들이 법회를 치를 걱정을 하자 백양사 주지 다정 스님은 "큰스님들의 법력(法力)으로 날씨 문제는 걱정없다"고 했고, 신기하게도 이날 행사 1시간 전부터 비가 그치고 행사가 끝난 뒤 1시간 쯤 지난 5시 30분께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고승들이 대법회를 열 때는 천룡과 신장들이 옹호한다는 경전 말씀이 사실인 것 같다"며 한 마디씩, 98년 제1회 무차대회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내심 스님과 신도들의 환희심이 컸다는 후문.

인터넷 실시간 중계 실패

백양사와 붓다뉴스, 불교인터넷TV(BIT)에서는 19일 열린 무차대법회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텍스트와 동영상으로)할 예정이었으나, 인터넷 선로 불통으로 중계에 실패했다. 특히 백양사는 인력,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침울한 표정.

월하·숭산스님 건강상 불참

당초 참석해 법어를 하기로 했던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스님과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축사를 하기로 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도 참석하지 않아 "조계종 어른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라는 스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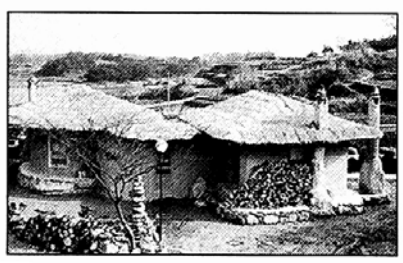
장성=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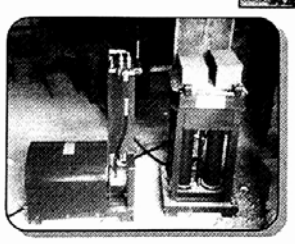
※ 기사 넘쳐 '달마 관심론' '스님이야기' 쉽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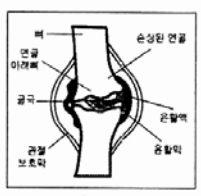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획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 달분 22만원, 두 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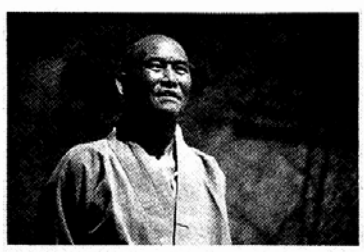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 '無자 화두' 논쟁을 재연시킨 성본스님의 강설 장면.


◇칼날과도 같은 예리한 선문답에 집중하고 있는 수좌들.


◇무차대법회에 쏠린 재가자들의 관심과 참가 열기도 대단했다.

6천여 사부대중 '성황'

참사람 무차대법회

"탐심하지 말고 만민에게 선행을 베풀라"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법어 (요지)

(주장자를 들어 보이시고 법상을 한 번 치고 설하기를,)

이 주장자는 삼세제불의 명근(命根)이요,

역대도인(歷代道人)의 안목(眼目)이로다.

이 주장자를 알면 일초 직입 여래지(一超直入 如來地)리라.

여래지란 법신변사(法身邊事)냐, 여래선(如來禪)이냐.

향상일로(向上一路)를 투과(透過)하여야 여래지를 증득(證得)하여 요사인(了事人)이 됨이로다.

21세기는 참사람을 밝히는 선수행(禪修行)이 아니고는 세계인류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고, 마음의 갈등을 해소(解消)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고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 선수행을 꾸준히 닦아 행할 것 같으면 큰 지혜(智慧)를 증득하여 편안한 낙(樂)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 혼자만이 많이 가지겠다고 탐심하지 마시고, 만인에게 베푸는 선행(善行)을 행하여야, 나고 날 적마다 복(福)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이 되는 선행을 행하고, 참나를 닦아 행하는 선 수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옛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인빈(人貧)함은 지단(智短)이요 마수(馬瘦)함은 모장(毛長)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선수행과 선행을 겸비한 생활 철학으로 생활화 합시다.

근세(近世)에 유명한 선사(禪師) 2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남방에 혜월(慧月) 선사가 계셨는데, 경허(鏡虛)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제자가 된 후로, 남방에 주석(住錫)하시며 많은 수좌스님들을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인 통치(統治)를 받는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배 통치하는 남총독(南總督)이 남방 선지식이 명성이 대단한 것을 알고 하루는 혜월 선사를 방문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총독이 말하기를,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 불법(佛法)의 진리입니까?"

혜월 선사가 대뜸, "불법의 진리? 귀신 방기(鬼神放氣)니라" 하니, 총독이 어리둥절하여 알아듣지 못하고 가버렸다.

그런 후로, 남총독이 혜월 선사에게 방망이를 맞고 갔다는 소문이 일본국(日本國)까지 분분하니 일본 군인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한국에 가서 혜월 선사를 혼내주리라" 하고, 한국에 와서 혜월 선사 계시는 방 앞에 이르러 노크도 안하고 구둣발로 들어가 혜월 선사 목에 장검을 뽑아 대거늘,

혜월 선사가 즉시에 손으로 일본 병사 뒤편을 가르키니 도적이 제발에 절여 뒤를 돌아보니, 혜월 선사가 즉시 일어나서 일본 병사의 등을 치며, "내 칼을 받아라" 하니, 그 일본 병사가 장검을 거두고 큰 절을 하며, "과연, 큰스님이십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 당시 혜월 선사가 공포의 표정을 지었더라면, 즉시 목이 달아났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한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모두 생활 속에 참사람을 찾는 선 수행을 잘함으로써, 만인에 앞서는 선견지안목(先見之眼目)을 갖추게 되니, 우리 모두 열심히 정진합시다.

혜월 선사 회상에서 운봉 선사가 여러 해 동안 혜월 선사를 모시고 정진하다가 이곳 백양사 운문암에서 용맹정진중 대오견성(大悟見性)을 하셨습니다. 그 후, 혜월 선사 계신곳을 찾아가 예삼배를 올리고 묻기를 "삼세 제불(三世諸佛)과 역대 도인(歷代道人)들이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함이닛고?" 하니, 혜월 선사께서 "양규(良久)"를 하시니 운봉 선사가 대뜸 말하기를 "산 용(龍)이, 어찌 죽은 물에 잠기어 있습니까?" 했지요.

혜월 선사께서 "너는 어떻게 하려는고?" 하자, 운봉 선사가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니, 혜월 선사께서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하니, 운봉 선사가 다시 "기러기가 창문 앞을 지나간지가 오랩니다" 하니, 혜월 선사께서 "내가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 하시고 법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후로 세월이 흘러 연로한 후에는 산에 떨어진 솔방을을 주워다가 불을 때는 생활을 하셨는데, 항시 솔방울 포대를 짊어지고 오다가, 쉬는 자리에서 잠깐 쉬었다가 오시고 하셨는데, 하루는 솔방울 포대를 반쯤 짊어지고 일어서는 자세를 하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된 연고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숨이 떨어지면 전신(全身)을 가누기가 힘들거늘, 혜월 선사는 이와 같은 열반상을 보이셨습니다.

장하고, 장하도다. 운봉 선사는 혜월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로 제방 선원과 선지식을 참방하셨습니다.

경기도 양주 망월사를 가시어, 제방에서 발심한 수좌스님들과 모여 결제방을 짜기를 용성(龍城) 선사를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운봉 선사를 입승 스님으로 모시고, 석우 선사를 선덕 스님으로 모시고 4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중, 반살림이 도래하여 조실 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시어 법문 하시기를, "삼세 제불(三世諸佛)도 참나를 보지 못함이요, 역대 도인(歷代道人)들도 나를 보지 못함이니, 여기에 모이신 대중 스님들은 어느 곳에서 참 나를 볼려는고?"

이렇게 물으니, 운봉스님이 일어나 대답하시기를,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추었습니다." 하니, 용성 선사께서 법상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대중들이여, 물음도 멋이 있었고, 또한 답하심도 멋이 있음이로다.

유리독 속에 몸을 감춤이라 하는데, 조실 스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법상에서 내려 가셨던들 더욱 더 좋았을 것을!

산승(山僧)이 그 당시 조실이 되었던들 한마디하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자(獅子)가 선릉(善能) 사자후(獅子吼) 하는구나. 하였던들 금상첨화(錦上添花)로다."

운봉 선사는 이러한 고준한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라. 세월이 지나 신도와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법문을 하시고 입적하시려 할 때,

향곡 선사가 묻기를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누구를 의지하여 지도를 받습니까?"

선사께서 오른 손으로 자리를 툭툭 치시며, 육자배기를 읊으셨어요.

"저 건너 갈비봉에 비가 묻어오는구나. 우장 삿갓을 두르고 김을 매러 갈거나."

그러시고 편안히 들어누워 숨을 거두려 하셨습니다.

좌우에 있던 대중들이 "스님, 스님" 소리치니, "나를 불러 무엇 하려는고?" 하시고, 입적하셨습니다.

대중들이여, 양대 선사(兩大禪師)의 입적(入寂)함을 보시오.

한 분은 솔방울 포대를 지고 반쯤 일어나는 자세에서 열반에 드셨고, 한 분은 토끼꼬리 빠지는 날 제자들과 대담하시고 열반에 드시니, 제불제조(諸佛諸祖)의 무상대열반(無上大涅槃)이로다.

대중은 알겠습니까?

一顆明珠轉玉盤 徹底無瑕光皎然
頂門未具金剛眼 慧月雲峯不易親

한과의 밝은 구슬 옥반위에 굴으니
철저히 티 없이 찬란함이로다
이마 위에 금강 안을 갖추지못하면,
혜월 운봉 선사를 쉽게 친견하지 못함이로다.

법거량

'오늘날의 참사람'을 주제로 법문한 진제스님의 법어 뒤에도 법거량이 진행됐다.

젊은 판사 시절 통도사 경봉 노스님을 친견, "어디서 왔노?"란 질문을 받고 "부산에서 왔습니더"했다가, 그게 선문답인 줄 뒤늦게 깨달아 평생 '어디서 왔노'란 화두를 들었다고 자신을 소개한 임희동 변호사가 가르침을 청했다.

임 변호사가 "스님의 법명은 진제(眞際)라고 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의 진제를 말함입니까"하자, 진제스님은 "오·구(五九)일이 지나면 다시 봄을 만나리라"고 답했다. 임 변호사가 다시 "경봉스님으로부터 '어디서 왔노'를 화두 삼아 정진해 왔지만, 아직 일심(一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화두를 내리시면 오매불망 잊지 않고 화두를 깨쳐보겠습니다"하니, 진제스님은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이 설한 진리와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萬法歸一 一歸何處). 의심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365일 깨달을 때까지 정진한다면 진의를 깨칠 날이 올 것입니다"고 설했다.

임 거사가 내려간 후 과거에 효봉스님과 해인사, 도솔암, 미래사 등지에서 함께 수행했다는 도헌스님이 연단에 올라왔는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책 50권을 대중들에게 보시할테니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시오" 하고 물러나 법거량 아닌 법거량(?)으로 선문답이 끝나고 말았다.

동국대 교수인 성본스님이 '간화선의 수행체계'를 주제로 강설하면서, "사실 간화선의 근본은 조주스님의 무자(無字) 공안을 참구하는 것이며, 간화선의 수행에서 무자 공안을 능가하는 공안은 없다"고 하자 '이 뭣고' 등 다른 화두를 참구하는 일부 수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無자 화두' 논쟁이 다시금 재연됐다.

한 비구 수좌가 "무자 화두를 '無'로 새겨야 할 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고 새겨야 할지 말해보라"고 하자, 성본스님은 "나는 그냥 '無'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수좌는 "그냥 '무'라고 하면 의정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성본스님은 "의심은 간화선의 추진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다른 한

성본스님 '無자 화두론' 일부수좌 강하게 반발

거사도 "성본스님이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성본스님은 "틀렸다, 안 틀렸다는 생각에서 떠나시오"라고 말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무자 화두' 논쟁은 그간 성본스님이 기회있을 때 마다 제기한 것으로 일부 수좌들의 반발을 사왔다. 성본스님의 강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불교에는 많은 공안이 있다. 〈전등록〉에 전하는 소위 1700 공안이나, 〈벽암록〉100칙, 〈종용록〉 100칙, 〈무문관〉 48칙 등의 많은 공안집에 전하고 있는 공안이 있다. 이러한 선종의 공안집에 수록된 공안들은 조주의 무자 공안처럼, 근원적인 본래심을 깨닫고 참구하기 위한 공안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事例), 혹은 관례(判例)인 공안을 공부하여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선불교의 교과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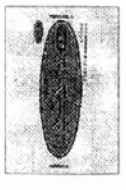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계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종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종하나인 다라니와 란트라의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흘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웅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실전 사주학길라잡이
일주일이면 나도 사주를 볼 수 있다.
지식의 유무·어떠한 직종이 나의 적성이며, 어느 길로 가야 적합하며 언제 운이 열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다.

김윤중 저 신국판 값 15,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蚌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T.921-8434 F.929-3470

민중의 애환 구비구비 서린 고갯길

백두대간 속으로 〈20〉

이화령→조령산→새재

길의 운명을 타고난 산등성이. 그것이 고개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산줄기의 두 꼭지점 사이, 산과 길이 만나는 곳, 이고을 저 고을을 넘나드는 길의 정수리. 그곳이 바로 고개다. 그래서 고개에서는 만남과 헤어짐, 순경(順境)과 역경(逆境), 안도와 초조, 희망과 절망이 씨와 날로 엮인다.

서낭당이 있는 곳에서는, 오가던 길손이 돌무더기를 쌓아 올리며 나그네 길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재너머 새집으로 이사가는 새신랑 새각시는 부모들의 조상신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각시의 옷자락을 찢어 걸기도 했더랬다. 더러 과거길에 오르는 선비에게는 비장한 각오를 더해주기도 했을 것이고, 낙방길에는 또 발은 숨을 토해내게 하여 저절로 울분을 가라앉히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개는 또 가라 한다. 부활든 희망도, 조급한 절망도 다 내려 놓고, 다시 새 길을 열어가라 한다.

백두대간의 마루에 오를 때에도 고갯길은 다릿품을 적게 들이게 한다. 산을 넘는 가장 얕은 길이자 가까운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산행의 시작과 끝은 한때 경상도 지방과 서울을 잇던 대표적인 고갯길이었던 '이화령'에서 '새재(鳥嶺)'까지다. 그러나 지금은 이 두 고개 모두 길로서의 기능은 거의 잃어버렸다. 새재는 1981년에 경상북도의 도립공원이 되면서 아예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고, 이화령 또한 터널이 뚫리면서 거의 구실을 잃고 말았다.

조령산의 남쪽 들머리인 이화령(548m)은 경북 문경시 문경읍과 충북 괴산군 연풍면을 잇는 고갯마루로 이 곳 사람들에게는 '이우릿재'로 불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화현(伊火峴)'이라고 적혀 있으나 지금은 '이화령(梨花嶺)'이라 하는데, 이 또한 일제에 의해 바뀐 것이고 보니 '배꽃재'라는 꽤나 예쁜 뜻도 그리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화령에서 조령산(1,017m)을 오르는 길은 시작부터 깊은 산에 안긴 듯한 느낌이다. 산의 들머리에서는 가능하면 느긋하게 걸을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산은 화들짝 안겨드는 사람보다 잔중하게 다가서는 사람을 더 반길 것이므로, 이렇게 한 20분쯤 걸으면 기슴 한 귀퉁이를 뒤덮은 풀너덜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또 그만큼 걸으면 헬기장이 나온다. 다시 조금 더 나아가면 곧장 등성이를 걷는 길과 비탈로 약간 내려서는 갈림길을 만나는데, 요즘 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비탈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샘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성이만을 고집하는 산행에서 만나는 샘물이란, 산에서 누릴 수 있는 몇 안되는 호사 기회이므로 결코 놓칠 수 없다. 천천히, 낙타처럼. 물통이건 뱃속이건 양껏 채운 다음, 다시 등성이로 올라서면 헬기장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의 눈맛은 탁월하다. 남쪽으로 백화산과 희양산, 멀리 속리산의 연봉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쪽으로 주흘산도 자태를 드러낸다. 이곳에서는 조령산 정상이 코앞이다. 살풋이 내려섰다 다시 솟구치면 정상이다.

조령산에서 흔히 새재(650m)라 부르는 조령관(제3관문)까지는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암릉의 연속이다. 잠깐이라도 다리의 긴장을 풀었다가는 불곤 뭉쳐오른 바위에 엉덩이를 내밀겨야 하는 순간이 계속 된다. 좌우 기슴 또한 깎아지른 듯하니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몸고생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끊임없이 절경이 이어지며 우리 산만이 지닌 그윽함과 아기자기함, 호쾌함과 우뚝함을 두루 보여준다. 그렇다고 길섶에는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짓이다. 눈 밝은 이라면 솜다리(에델바이스) 같은 들꽃과도 눈인사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표정을 가진 산이기 때문이다.

이러기를 댓 시간, 발바닥과 산의 피부가 서로에게 익숙해질 즈음, 저 멀리 남도 자락의 노랫가락이 절로 터져나온다. 어느덧 새재에 이른 것이다.

과거길 명성 문경새재 인적 드물고
'신립장군과 처녀귀신' 전설만 남아

문경새재는 왠 고갠고
구부야구부야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이리하여 문경새재는 '보통명사'가 된다. 새재와는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는 진도에서도 구비구비 눈물나는 고개는 새재인 것이다.

추풍령을 넘으면 가을 낙엽처럼 떨어지고, 죽령을 넘으면 미끄러지지만, 이 고개를 넘으면 장원 급제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聞喜)'하여, 과거에 뜻을 둔 영남의 선비라 하면 몇번이고 넘었을 문경새재. 더욱이 부산의 동래에서 한양에 이르는 이른바 영남대로가 지나던 백두대간의 으뜸고개였으니, 고개에 걸린 얘기 또한 진도아리랑의 사설만큼이나 구비구비가 아닐 수 없으되, 임진왜란과 신립(申砬, 1546~1592)에 얽힌 얘기는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그렇다고 여기서 역사책을 펼칠 생각은 없다. 때론 곧이 믿기 힘든 전설이 역사를 더 정직하게 반영하므로. 물론, 불량한 역사에 얽힌 전설일수록 역사에서는 허용치 않는 가정을 담고 있긴 하다. 하지만 후세 사가들의 역사 또한 담론의 형식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역사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집단 창작의 소산인 전설에 더 솔깃할 수밖에 없다.

전설은 이렇다. 때는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신립을 상도순변사로 임명하고 보검을 하사하였다. 이에 신립은 8000명의 군관과 수백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충주로 내려갔다. 이어 부장들을 거느리고 새재로 가서 지형을 살핀즉, 전력의 열세인 아군이 천연의 요새인 이곳에 숨어 있다가 왜군을 덮치자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꿈에 한 처녀가 나타나 충주의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칠 것을 호소했고 이를 따른 신립은 대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처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일찌기 주흘산의 요귀로부터 신립이 구해낸 처녀였는데, 자신의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신립에게 원한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원귀가 되었다고 한다.

후세 사가의 말은 이렇다. 자신의 주력군이 기마병이었기 때문에 산악전을 피했고 결과는 궤멸, 조선 땅은 아수라장, 신립은 탄금대에 투신.

어쨌면 처녀 귀신은, 삼척 동자라도 당연히 구사했어야 할 전술을 포기한 신립(지배자)에 대한 민중들의 원망과 비웃음의 상징이 아닐까. 모름지기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여럿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일이다.

산은 참, 별 것도 다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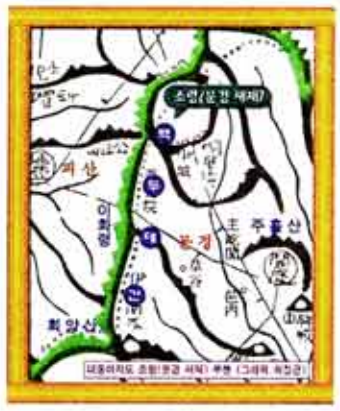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문경새재 제3관문인 조령관. 백두대간의 마루에 앉아있다. 1981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한 부분을 이루는 조령산 능선. 기기묘묘한 암릉이 절경을 이루고 있고 동으로 주흘산, 서로 월악산을 이웃하여 조망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지장보살님을 모십니다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바로보인 환단고기



시공이 나뉘기 이전인 태초의 모습과 우주 탄생의 비밀을 최초로 밝히다!

『환단고기』는 세계를 다스린 웅장한 고대사의 주인이었던 우리의 고대 역사가 담겨 있는 역사책이다. 또한 역사책이라고는 하나 태초로부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책이다.
이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광활한 민족사를 찾고 황폐해진 인류정신을 다시 꽃피우고자 하는 것이 『환단고기』를 오늘에 맞게끔 되살려 『바로보인 환단고기』로 펴내는 뜻이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4권 중 1권은 민족정신의 정수이자 우주의 영원한 역사인 『환단고기』의 삼신일체사상을 총정리하여 출간하였다. 이어서 2, 3권에 환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는 고대 역사와 북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의 역사를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순으로 정리하여 출간할 예정이며, 4권에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글을 실어 출간할 예정이다.
특히 2, 3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역사 문헌을 근거하여 『환단고기』의 기록을 부인할 수 없게끔 최선을 다하였다.

『환단고기』가 전하는 선조의 지혜에 가만히 귀기울여 보라.
정신과 물질이 나뉘기 전 우주의 모습과 인류 정신의 시조였던 조상의 진면목에서 태초로부터 고대가 오늘에 살아 숨쉬는 당신의 실존을 확인할 것이다.

☞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벽암록 / 영원한 현실
바로보인 천부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바로보인
○ http://www.zenparadise.com ☎ 597-2460

보덕현호 시집
사랑과 詩 바람의



A5신 144쪽 값 4,500원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명상시집
· 정화의 빛 - 값 4,500원
· 고향의 숨결 - 값 4,500원
· 달마를 보라 - 값 5,400원
· 해 탈 - 값 5,000원
· 마음의 창 - 값 7,200원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휩싸고 돕니다.
머언 하늘을 나르는 나비도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당신이 멀고 있으면
바람은 당신을 감싸 녹여 줍니다.
당신이 입다고 멀치려 해도
바람은 언제나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속에도 입가에도
떨리는 손끝 흔들리는 옷자락에도
바람은 살며시 숨어 있지요
우리가 늘 만날수 있듯이
바람은 항상
우리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것을
감싸고 달래주면서
바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흘러가며
허공에 나래를 폅니다.

도서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90
(우)339-834
Tel: 041) 867-4000
Fax: 041) 867-4001

남여 불교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불공 기도 축원법 (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남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내 마음속 부처 항상 놓치지 마세요

본래 면목을 깨닫고 싶습니다

문 스님께서는 일상생활이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 속에 주인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주인공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의심이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과연 강하고 담대하게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공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좌선인가요? 저도 청정한 제 본래 면목을 보고 싶고 깨닫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중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세계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세계로 오르느냐 아니면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하는 교차로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이 환상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돌아다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과연 영원한 것이 있는가, 어떤 것도 영원하고 영구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다면 우리들 안에 꼭 가지고 있는 이 마음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나의 근본일 뿐입니다. 왜냐구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모든 것이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지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필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수억겁을 살면서 이루어놓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인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소심하고 나약한 마음도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어놓은 나의 인연과 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이러한 관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군데 나의 근본,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아나가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헌쇠, 잡쇠를 다 넣기만 하면 모두 재생되어 나오듯이 나의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진실하게 믿고 넣어야 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분명히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 주어도 질문하신 분이 느껴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정말 실천을 해 보세요. 나에게 들고나는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나의 근본에 놓고 믿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진정으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그래, 내 안에 분명히 주인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고 그 주인공을 더 느껴보려고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의 근본이 있을까 없을까를 머리로 이론으로 따지지 말고 정말로 한번 믿어서 체험을 해보세요. 알았지요? 꼭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믿고 맡겨야 苦 사라져
근본향한 마음엔 습도 업도 없어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법

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단을 삼보라고 해서, 절을 할 때도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 스님의 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 여러분께서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이고, 그대로 부처고 그대로 중생이니까 '한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다. 그러니 잘 해봐라.' 이렇게 말했었죠. '삼보에 귀의한다' 는 것도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우리가 불·법·승에 진정으로 귀의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성부처에,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 자기의 한생각과, 또는 자기 한생각에 의한 몸의 움죽거림, 이것이 자성삼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기 무심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몸이 움죽거리는 것과,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성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되죠. 자성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 바로 불(佛)도 자기하고 생명이 둘이 아니죠. 불(佛)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근본이 불이에요. 교(敎)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교(敎)구요.

그러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믿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그냥 진리일 뿐이에요. 불·법·승은 불과 법과 승이 다 한데 합쳐서 내 자성의 삼보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요, 몸도 둘이 아니에요, 생각도 둘이 아니에요. 만약 이걸 알고서 삼보에 귀의했다 한다면 법당에 와서 절을 하든지, 삼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몸과 같고, 내 마음 낸 것은 부처님 법과 같고, 부처님 모습도 내 모습과 둘이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와서는 부처님과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자신으로 한데 합쳐서 나가라는 겁니다. 항상 둘이 아니죠. 그러니 형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고, 자기 형상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부처님 형상을 무시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체를 나의 근본과 둘 아니게 알고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환생한 조상도 천도 되는지요

문 97년도 선원에서 아버님 49재와 100재, 시댁 조상님들 천도재를 지낸 이후 계속 의문이 났는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가시지 않아 여쭙니다. 조상님을 천도해 드릴 경우 조상님께서 다시 몸을 받고 현생에서 태어나셨을 경우에 천도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때로는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나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도 천도재를 지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하는 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부모 자식도, 사는 동안에 부모 자식이지 진리의 차원에서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왜냐? 죽어지면 사대(四大)는 흩어지고 마음은 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본래 고정되게 내 부모, 내 자식이 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근본 자리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본다면, 한 찰나에 이쪽에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한 찰나에 저쪽에 태어나서 자식이 되고, 또 이쪽에 태어나서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모두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어서 전체가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는데, 그걸 몰라서 지금 현생 부모만 내 부모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할 때, 보이는 부모의 껍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근본과 내 근본이 둘이 아니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일체와 직결되어 공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천도재를 올리는 내가 따로 있고 천도를 받는 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도재를 올리는 나와 받는 조상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숟가락 밥을 먹을 때 위(胃)만을 위해서 먹고, 장(腸)만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습니까? 본래 공생(共生), 공심(共心), 공용(共用), 공체(共體)이기에 공양을 하면 공식(共食)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공부를 해서 자유인이 된다면 나와 연결된 사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환상의 굴레를 벗어버리세요.

오죽했으면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길가에 놓여진 뼈무더기에 절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그 도리를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직결되어 전달되는 이 마음의 도리를 아실 것 아닙니까.

인연은 실체가 있습니까

문 불교에서는 세상만물이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럼 인연을 생기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연은 실체가 있는지요? 또 인연과 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질문 중에 병속의 새를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냥 병을 깨버리면 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옳은지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어느 난장이가 스님이 되려고 한 생각을 내서 입산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난장이라고 안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주니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뭘 하나, 모습이 난장이라고 해서 스님도 될 수 없는 몸이라면 차라리 죽어야겠다.' 그러고 죽었는데, 어느 스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난장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오백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난장이가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죠? 죽었는데 어떻게 만나나 하구요. 우리가 오신통을 항상 얘기하죠. 내 마음의 눈과 마음의 망원경과 마음의 영사기와 마음의 컴퓨터, 마음의 무전기, 마음의 탐지기, 책정기 이런 것이 육안으로 보는 물질이 아닌 그자리에서 다 나올 수 있고 굴릴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서 바로 증득을 했다면 그것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난장이의 모습을 볼 수도 있거니와 난장이의 마음을 알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래, 만났는데 난장이가 스님을 보더니 쫓아와서 하는 말이, "스님, 제발 저의 모습을 벗겨주십시오. 저는 오백년이 지났는데도 이 난장이의 모습을 벗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왜 오백년 전 난장이의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있나?"하고 물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 그 난장이가 붙들고 있던 마음은 홀연히 놔지고 그 모습을 다시금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천도가 됐다 이 소립니다.

그렇듯이 오백년 동안이나 그렇게 난장이라는 관념 속에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지금 생각이라는, 의식이라는 뜬구름을 붙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찰나찰나 돌아가는 걸 왜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가 난장이여서 이젠 스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거니와 사회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그 관념, 즉 잠재의식 속에 꽉 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정되게 그냥 딱 붙들고 있으니까 오백년이 가도 나는 쓸데없는 존재라는 그 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스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홀연히 벗어난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공부하는 분들은 편견을 가지는 관념도 다 놔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놔야 다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없다' 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마음에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古都의 땅을 찾아...

日本 佛敎 文化探訪 5일 ₩1,050,000
· 일 정 : 서울 - 오사카 - 고야 - 나라 - 교토 - 사가 - 오사카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료, 비자 비용, 공항세, 보험, 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전일정 식사
· 출 발 일 : 9/1, 13, 22

우리의 멋스러움이 녹아 스며있는 일본 불교문화
그 곳을 찾아 떠나는 일본 성지 순례...
■ 오사카 : 일본 제2의 도시, 한국인의 恨이 서린 땅
■ 교 토 : 일본 문화의 보고로 지금까지도 남아 숨쉬는 옛 古都의 자태
■ 나 라 : 백제의 불교가 전파된 고대문화의 중심지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혜호-양곤-방콕-서울
· 출 발 일 : 9/20 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쉐산도등
■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 73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퉛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탑
■ 소수민족의풍속 여행지 혜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빤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와불이 모셔진 차욱탓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타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등.

Tibet 인기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불교 최대의 석굴 "막고굴" 탐방 4박 5일 ₩1,090,000
'진' 시황제의 병마총...비림, 대안탑 등 탐방
· 일 정 : 서울-서안-돈황-양관-서안-서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식, 중국비자, 입장료, 전용차량
· 출 발 일 : 9/18, 9/25, 10/2, 10/9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남 목 마를때 물 떠줄 수 있어야 道

☞ 15면에서 계속

서 나오기에 실체가 없으니 그것을 붙들지 말고 근본에 놓으면 없어진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붙들고 있기에 그것이 인(因)이 돼서 업(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또 병을 깨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죠? 그러나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깨버릴 수 있는 마음이라면 아마 이 몸을 벗지 않고도 한생각에 다른 세상에 갈 곳을 미리 미련해 놓고 자유로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짊어온 의식이라는 습을 한생각에 그냥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일도 많은 것이겠죠. 그러니 그 병속에서 나온다는 말도 붙지 않는 자유로운 법을 진정 증득하기 바랍니다.

생활의 방향을 일러 주십시오

문 저는 정신병원에 몇 번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입니다. 몸이 안 좋다 보니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주인공을 믿고 들어가다가 두려운 느낌이 들면 되돌아 서 버렸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의 방향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모두 각자에게 있는 그것은 누가 갖다준 것도 아니고 누가 뺏아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지어놓은 것들은 오직 나의 근본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말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나의 사량과 지식으로 풀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녹여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해라,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근본에 믿고 맡겨라, 그리고 한번 맡겼으면 의심을 하지 않아야 정말 해결이 된다.' 하고 그렇게 끝이 없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고 맡길 곳은 한 곳, 자기 근본 주인공밖에는 없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하더라도 주인공을 붙들고 울고, 내 삶이 서럽고 비참해서 눈물 흘릴 때도 주인공을 부여잡고 우세요. 그 길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녹이는 길입니다. 그러니 꼭 그렇게 하세요. 학생이 지극하게 주인공을 둘 아니게 일념으로 찾는다면 인생의 길을 굳이 찾아서 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거니까 지극하게 믿고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바쁜 생활 속 수행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초심자입니다.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일요일마다 법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시간 날 때 짬짬이 불교관련 서적을 보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문자에 얽매이면 국 맛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책보다도 수행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지켜야 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래서 방편을 말해 줬잖아요? '주인공'이라고 이름해서 불여줬잖아요? '주처'라고 해도 됩니다. 자부처라고 해도 되고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참나라고 해도 그 이름들이 다 가리키는 것은 나를 이끌어가는 내 마음의 부처,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주인공 당신이 모든 걸 다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오관을 통해서 나쁜 거 좋은 거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 하고 항상 그렇게 관(觀)하게 된다면 언제나 불성이라는 그 근본과 둘 아니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듣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주처를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기사일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항상 차를 타고 가면서도 테이프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항상 그 주인공이라는 주처는 놓치지 않았대요.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것도 당신이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주인공 당신이잖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근 몇 개월이 지나가니까 어느 날 알아지더랍니다.

그러니 처음 공부할 때는 자신의 주인공을 항상 놓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는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만이 당신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당신만이 당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잠자기전 주인공에 놓는 공부하세요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안으로 믿고 놓을때 물리 터져

업이 두터워 녹이기 어려워요

문 예전에 한 스승을 만나 수행을 했던 수행자입니다. 그 분도 큰스님처럼 내 안의 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간이란 무한한 존재이며 무명에서 깨어나서 자성을 보고 습기를 없애라고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분과 함께 큰스님 법회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분과 헤어진 후 여러가지 끄달림으로 힘들어서 선원에 가끔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제가 좋지 않은 업이 너무 두터워 자기 힘으로는 다 지우기 힘드니 깨달으신 참 스승을 만나 어둠의 막을 지우도록 하라고 일러주고는 떠나셨습니다. 큰스님 저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글 올립니다.

답 우리가 도반으로서 같이 이런 묘법을 공부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마음도리를 모르고 간다면 세세생생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생각하면 걸어온 발자취가 없듯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가는 것이 듣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먹는 것도 혼자가 아니고 만나는 것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더불어 돌아가는 이치죠. 그러기 때문에 사방 모두 합해서 광등 공법이라고 하는데, 모두 합해서 색이다 공이다 하는 것은 지금 말하듯이 하나도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사님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걸어다니시지만 내가 걸어다닌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몸 속에 수많은 내 자생중생들이 다 나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걸어다닌 게 없노라고 말입니다. 혼자 보는 것도, 혼자 듣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세울 게 어디 하나나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만사가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그 자체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즉 50% 반쪽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산다에도 무척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죠. 밥을 지을 때 밥통의 소케트를 끼워도 맞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서 밥을 못 짓듯이, 우리 마음이 자생중생들을 다스리면서 화하게 만들어야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자라고 하고 안테나라고 해도 됩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 놔야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마음을 통해서 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케트가 맞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와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내면의 나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자생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악업·선업을 지어온 표시입니다. 내 몸뚱이 속에 과거의 악업·선업이 다 들어 있고 또 지금 살면서 짓는 것은 미래의 선업·악업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것은 지금 나오고 현실에 짓는 것은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연방 과거에 입력된 게 나오면서 연방 미래로 또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오는 그 업식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다음 속에 악업·선업의 종생들을 의식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인연을 지어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시 놓으면 미래의 업도 없어지고 과거에 진 것도 없어지니, 한 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걸 한 구멍에다 놓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또 하는 것은, 딱다구리가 나무를 그냥 덮어놓고 쪼으면 나무가 뚫어지듯이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자문자답(自問自答)하면서 생활을 하면 그대로 생활이 참선이며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좌선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으며 우리들이 없는데 부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것이 과거로부터 한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오는 데다가 바로 놓아야죠. 바깥으로 허우적거리지 말고 안으로 모든 것을 놓아 맡기고 너만이 아픈 것을 낫게 할 수 있다,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깨우치게 할 수 있다,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겨 놓아야 합니다. 육신과 정신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렇게 놓고 갈 때 비로소 딱다구리가 나무를 쪼아서 뚫으면 나무의 속이 비듯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아 앉는다 이겁니다. 거기 앉으면 앞을 까서 생산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 근본으로 향한 마음에는 습도 업도 붙을 사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작업을 꾸준히 하셔서 참나를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인 까닭

문 명상을 즐겨하며 그런 종류의 서적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명상서적을 읽다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그것은 최고의 진리인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분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깨달을 때 모든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해꼬지 할 미련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며 진정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나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공생(共生)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부터 공생인 줄을 알아야 이 세상에 모든 상대성 원리가 다 둘이 아닌 줄을 알아집니다. 내 몸뚱이 하나를 생각해도 더불어 살고 있으니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거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눈의 시력이 없어지면 누가 시력이 없어지게 했다고 할까요. 안에서 작용을 못해주게 되니까 눈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근본으로 향한 마음에는 습도 업도 붙을 사이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작업을 꾸준히 하셔서 참나를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인 까닭

문 명상을 즐겨하며 그런 종류의 서적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명상서적을 읽다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그것은 최고의 진리인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분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저마다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깨달을 때 모든 악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해꼬지 할 미련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며 진정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가 곧 전체이며 전체가 곧 나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공생(共生)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뚱이에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부터 공생인 줄을 알아야 이 세상에 모든 상대성 원리가 다 둘이 아닌 줄을 알아집니다. 내 몸뚱이 하나를 생각해도 더불어 살고 있으니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거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눈의 시력이 없어지면 누가 시력이 없어지게 했다고 할까요. 안에서 작용을 못해주게 되니까 눈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일거수일투족 다, 사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둘로 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공생·공심·공체·공용·공식입니다.

나부터 공한 줄 알아야 바깥의 세상도 다 공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둘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갖다주고 내가 배고플 때에 밥을 저절로 갖다주게 되지, 동심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뜰팡이 흘어진 나의 한 개체를 살리겠습니까?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동심(同心)이며 나와 동생(同生)이며 동체(同體)입니다. 물 한 방울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림살이, 즉 내 몸의 살림살이와 바깥의 상대성 원리의 살림살이를 다 알아야 그때는 상대의 살림살이와 우주의 살림살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부 자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만날 내가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 이 안의 생명체들이 동참을 해주겠습니까. 만날 자기만 고집하는데 누가 돕겠느냐구요.

그래서 익은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여라 하는 뜻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있죠. 삼배를 올리는 뜻도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합쳐서 삼배를 올려라, 자기가 자기한테 삼배를 올리는 거다, 어떠한 형체를 놓고 상대에게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법당도 짓고 부처님도 모셔놓고 그런다는 걸 아시고 진리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만사가 본래 둘이 아니기에 이론으로서가 아닌 실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대로 묵묵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대장부의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마저 없는 도리

문 큰스님, 저는 옴마니반메훔이란 주문을 들고 3개월 가량 매달린 끝에 갑자기 눈앞의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눈이 열려 천지 만물이 다 나와 한 몸이란 것을 똑똑히 봤으며 죽는 것도 없고 삶 또한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가로등이 법음을 토하고 물이 법음을 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일러주시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일체의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스님, 하나마저 없는 것은 무엇이며 다시 하나에서 나왔을 때는 어떠한지요?

답 우리가 살아가는 게 불교라고 하는 말이 그냥 허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말없이 하는 말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어디서 나온 걸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고 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계단과 계단 사이에 있는, 모든 그 생활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하느니라' 하고 내 자성부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솟구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솟구치질 말고 그냥 그것도 놔야 되는 법이죠. 한 계단 디디면 한 계단이 놔지죠? 누가 한 계단을 딛고서 그 계단 하나 디딜 때 좋았다고 해서 그 계단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그래서 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견성이 아니니라 했어요. 내 몸뚱이가 있음으로써 오신통이 있는 거거든요. 이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누진통에서 이게 알아지고 그 누진통도 마저 놔야, 얼른 쉽게 말하자면 이 모든 이 세상 공기주머니에서 탁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유권을 얻느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니 그냥 높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걸 그렇게 봤으니까 신기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 하늘에, 돈짝 같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자리입니다. 마음자리는 땅 속도 물 속도, 아무리 온산철벽이라도 그걸 뚫지 않고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냥 뚫리죠.

그래서 물 속 깊이도 알고요, 모두 알아지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가 왕래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도라는 것은 얼른 쉽게 말해서 남이 목마를 때 목 안 마르게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먹을 수 있어야만이 도라고 했어요. 그러니 뭐가 나오든지 알아지든지, 모두 마음에다 관(觀)하시고 어떠한 거든지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모든 용도를 다 거기다 놓고 가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군요. 내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공부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산에를 갔어요. 산소가 두 개가 있더라고 내가 그전에도 말했죠. 그런데 속에 나, 주인공이 말입니다. '너 저기 두 묘지가 있는데 한 묘지는 아버지 묘지고, 한 묘지는 아들의 묘지니라.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오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면 아들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우리는 체가 없으니까 아들한테 가도 아들하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도 아버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도 없다, 없으면서 함이 없이 한다, 그 하나도 이름 내세울 게 없다, 하는 뜻을 잘 새기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다 그댈는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신입생 3600명 모집 (53기)
- 9월 28일까지 (주간, 야간반)
◆7층 7보탑 낙성식
- 9월 20일 (1인 원불 접수중)
◆행자 모집 (행자원 2기)
- 선착순 10명
- 노동아닌 교육위주
- 신사고, 개혁불교의 산실(남 · 여)
◆통신과정, 인터넷 과정 모집중
(www.TVbuddha.co.kr)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주지 우학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저자

견성체험지도 책 · 테프 판매!!
■내용 ; 마음을 보아(견성) 질병/죽음/윤회/잡념/번뇌/습관/비만/금연/금주/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갈등/외로움, 불안, 우울, 시기, 질투등의 감정/학습력/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 공부
■위치 ; 신정네거리
박민수 참선 교육원 02)2016-2356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도도량)신비한 맥반석약수
■ 사회활동이 많으신 종무소에 근무하실 사무장 총무 구함.
■ 불사평생 함께하실 (60~75세 노보살님, 노처사님 구함)
■ 기도하며 살아갈 방있음.
(사법고시 성취자 환영)
053)985-6630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강의내용 :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 태공, 도량석, 도량게, 복청게, 천수바라 태징 찍는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게 개인지도 가능
031)865-4893
011)661-9119

구인구직

종무소 직원 구함
보리수선원에서 종무소직원을 모집합니다.
보리수선원은 위빠사나수행센타이며, 일반 절과 같은 많은 일은 없고 회원관리 및 전화안내 등 간단한 일입니다.
(경험 없어도 가능하며, 수행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더욱 좋습니다.)
■자격 : PC가능한 40대 이하의 성실한 분 (남녀불문)
■연락처 : 02)928-2844/011)9786-319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22-1 어반하우스빌딩 3층
※ 자세한 내용은 상담시 알려드립니다.

암자에서 기도하시며 사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1)696-8500

후좌선
절에서 함께 수행 불사하여 장차 상좌로 임할 인연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승납 5년이상자로서 35세미만인자
011)776-4070
으로 연락주세요 - 노스님-

비구니 부전 스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절에서 기거하며 기도하실분 구함
(공기좋고 산세수려)
■위치 :아산시 처사동 관음사 포교당(2인)
041)545-3050

불교용품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칠지벙치 소탁지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932-7252
011)545-7252
김 창 본 처 사

기타

철학 교육 전문
사주 · 신수 · 택일 · 작명
· 직업및 취미로 개업을 원하는 분
· 남여 누구나 초보에서 감정까지
· 정통철학을 스님 직접 책임지도 (상담확인후 선택바람)
053)944-1127
인 각 사

대체의학 체험교실 회원모집
(성인병 예방과 치유)
비만 · 당뇨 · 관절염 · 만성피로
위염 · 간염 · 고혈압 · 정력쇠퇴
· 2000년 9~12월(월 · 금 오후2시)
· 장소:연화사(시흥대로 한양아파트 앞)
02)809-4542/011)232-8275

(제주도) 중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찰부지, 토굴부지, 벌장지, 콘도부지, 연수원부지, 요양원부지, 과수원 기타 사실분, 파실분 환영
· 급매물 중문관광단지 입구 대지 340평 지하 1층 자상2층 가든 및 민박 최고 요지
064)738-7497~8
011)697-7496

건강과 수행의 등불 **禪기공 (선무도)**
◈ 동국대학교 사회 교육원 (선기공 8기생)
지도자 과정으로서 2년 수학후 총장수료증과 협회의 사범자격증이 수여 됩니다.
■교학부 : 02)2260-3727
■지도교수 : 설적운 스님(골굴사 주지)
■9월 14일까지 수강신청가능
※경주분교 사회문화교육원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禪武道 大金剛門 총본산 골굴사
· 인성교육이 절실한 청소년이나 심신의 건강을 원하는 분
· 무예나 기공수련에 관심있거나 전문지도자가 되고 싶은분
· 위탁 연수를 원하는 기업체 및 사회단체 체육단체
· 겨울 수련회는 지금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 골굴사 전화 054)744-1689 팩스 746-0172
※ 예약이 안된 경우 절대 入山할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세계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은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수양 휴양
▶ 산림욕, 약수, 참선, 기도 최적
▶ 경관이 수려한 현대식 목조주택
▶ 오랜 지병 즉각 효험
▶ 인생상담
강원도 홍천 건강샘터
033)435-6166
석 련 암

사찰안내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정읍
◆평수 : 1600평 (종교용지300평, 대지300평) 2500평 추가 매입할 수 있음(복지시설 가능)
◆건물 : 현대식 법당 40평,요사 23평 부속건물 30평 조경완비
◆특징 : 천불봉사 할수 있음. 시내10분거리 버스증점
◆가액 : 1억 8천 8백만원
011)671-0987

사찰 안내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20만원
031)868-0516
02)303-9788
016)335-8257

사찰(급) 안내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평수 : 약830평
◆특징 : 법당20평(목조), 요사채3동 각30평씩, 방6개, 산신각, 종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납골당불사주 음내 소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스님이 몸이 안좋은 관계로
◆가액 : 답사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최신시설도심포교당 안내
◆위치 : 지하철 잠실역, 강변역에서 20분거리
◆구리시장 한복판 현대 일급자재 인테리어,완벽한 포교당, 불교학교시민선방
◆ 4층 다목적 교육공간 50평, 5층, 법당등 50평,옥상 휴게공간, 각층 냉난방 남녀 편의 공간완비, 후원시설 일급 공양주 생활도구 등 충족
◆ 가액 : 1억
TEL 031) 557-2266~2267
FAX 031) 557-2268 (금당스님)

사 찰 (급) 안 내
◆위치 :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서마산 IC 건너편
◆대지 : 435평 종교대지 등기필
◆건물 : 법당3l평, 목조(삼포,오포,금단청필) 요사80평, 방10칸, 주방2칸, 거실, 명부전9평 단청필, 주지실 · 사무실12평, 창고 약4평 주차장100평 이상 차량 무제한 주차 가능
◆가액 : 8억 건물완공4년, 총공사비 12억, 대지 평당 90만원 이상감.
◆특징 :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도량으로 창건주 신병으로 저렴한 가액에 양도합니다.
055)294-4889 / 02)351-4447

사 찰 안 내
◆위치 : 포천시 이동근접(서울 강남에서 2시간 소요)
◆부지 : 25,000평 ◆법당 : 30평(목조, 단층완료)
명부전 30평(목조 단층완료), 산신각 20평(목조 단층완료)
◆요사채 : 60평 (현대식)
산세수려하며 백담사 계곡처럼 사시사철 계곡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천년고찰의 기도, 참선도량임 신도들 하계수련장으로 이용하면 아주 좋으며 관광사찰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력있는 스님 환영
◆가액 : 10억
◆위치 : 부산시내 소재
◆대지 : 200평 ◆법당 : 40평
◆요사채 : 40평
※ 전통사찰 건물이며, 도심포교 목적의 오래된 도량임. 뒤는 산세가 수려함 .※ 차량진입 가능
◆가액 : 5억 (융자있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위치 : 부산근교
◇법당, 요사, 참선방, 주차장
◇부지 : 8,000평
◇가액 : 6억 5천 (답사후 절충가능)
(주인) 011)9314-0780
(서울) 0502) 900-577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 대지 : 700평, 건물30평
◆ 감나무 15년생 30주
※ 절터로 300여평 별도로 있음.
041)951-5775
011)455-4114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밀양
◆대지 : 500평
◆건물 : 대웅전 20평 (목조건물, 단층되어있음) (천불조성), 산신각 요사채 25평(현대식슬라브)
◆가액 : 은행 1억3천, 인수 1억
011)845-3430

암자 안내
◆위치 : 두노선 전철도보 15분 교통요지 앞 개울뒤 명산
◆특징 : 자연급수, 상수도유 미륵불, 산신각, 돌탑, 등등
◆대지 : 170평 (부동산 사절) 임법당(방4개), 요사채 (방2개)
◆가액 : 1억 5천 8백만원
011)343-3631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내
◆ 2층 43평
◆ 법당 : 석가모니불(동불) 관음,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범고(대불), 범종, 피아노, 고려대장경 24권봉안
◆ 가액 : 보증금400만원 (월)35만원 시설권리금 2300만원
011-790-7162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 신도 재가 불자님이나 스님께 시내에서 20분거리 토굴마당까지 포장도로 완벽 계곡과 산세 수려함 (수양이나 정진하실분 연락바람.)
◆ 가액 : 550만원
043)298-8640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5번지 6호 2층
◆건물 : 25평, 방, 법당, 주방
◆특징 : 388번, 588번 버스 종점에서 1분거리
◆가액 : 보증금2,0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별도
02)2603-3476
011)733-8853

사찰 안내
◆위치: 지리산 청학동입구
◆건물: 임법당1동, 요사채1동(방4개)
◆특징: 주방, 욕실, 화장실 별도, 현대식 시설, 통나무집, 방2칸 주변경관이 좋고 주차장있음.
※하동화개 지리산 햇차 판매
포교원(전세) : 부산 동래 안락동 전세2천만원 월30만원 권리금2500만원
011)842-4549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상류
◆대지 : 450평, 전답 2,200평 대웅전 30평, 요사채25평 7층탑, 3층탑, 관세음 미륵상, 종 운판등 98년 창건
◆가액 : 3억 3천
033)462-8073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식물원 입구
◆평수 : 37평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02)482-4550
011)306-9295

포교당 안내
◆위치 :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옆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화장실
◆가액 : 보증금 5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 요양원 · 수양원 · 콘도 · 별장
◆ 소공원 하실 분, 국립공원 입구
◆ 남 덕유산 맑은 물 계곡이 휘감아 흐르는 연화봉으로
◆ 둘러싼 가운데 3,000여평의 땅이 있읍니다.
◆ 진입로 포장 · 계곡 교량공사 중이니 귀하가 하신다면 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 가격 : 답사후 절충 ①2,590㎡, ②1,625㎡, ③5,024㎡ 필지별 분할 매입 가능
055)944-7049/016)750-7049

사찰 안내
국제관광 및 물류도시 확정
◆위치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 인접
◆대지 88평, 건평 60평, 2층집
대지 71평, 건평 50평, 2층집
대지 72평, 대지합 231평,
조경 주차장 완비, 지가 급 상승지역
◆가액 : 4억 3천(전세 8천포함) 융자무, 교환가
033)462-8073

사찰 안내
◆위치 : 광주시 남구 월산동(시내중심가)
◆대지 : 325평
50년된 역사가 가장 깊은 유처원 있음. 2층 법당 고려청자기로 된 천불전 요사채 별도 포교로는 중심지로서 가장 적합함.
※ 능력있는 스님 환영※
◆가액 : 8억
062)368-8450/011)633-8450

포교원과 철학관
◆위치 : 대전역전
◆법당 : 20평, 철학관 15평
◆가액 : 보증금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42)253-3545
토 굴
◆위치 : 충남 연기군 소정면
◆건물 : 25평, 법당, 방2개, 주방
◆가액 : 전세1500만원(시설비 절충가능)
041)553-149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부지 : 약15,000평, 법당30평 요사채 약60평(방15개)
◆ 가액 : 4억
◆ 특징 : 기도 정진할 도량으로 아주 좋으며 석관수가 유명하여 대구 인근에는 널리 알려진 고찰임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암자(급) 안내
◆위치 : 대구 갓바위 뒷길
◆요사채, 법당, 신축건물
◆특징 : 위치좋고, 조건좋고 (매매, 전세, 월세가능) 상담후 결정
011)551-1998

포교당 안내
◆위치: 강동구 천호1동 25-2호 전보빌딩 3층 보원사
◆평수: 약 27평
◆가액: 보증금 3천 월 40만원 시설금1천만원
02)413-7180
02)423-8043

토굴 안내
◆위치 : 경북 청도 강남
◆건물 : 15평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 최고급
◆가액 : 2800만원
054)372-5040
011)9589-4183

불자 세상보기

먹거리 '비상' … 불안한 식탁

납든 중국산 꽃게 발암물질 함유 묵 황산 이용 식용유 …

불가에서는 음식과 옷을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나 향락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그 몸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었다. 따라서 음식과 옷에 대한 탐욕을 경계했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식과 옷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가르쳤다.

부처님은 음식을 외부세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감각기관으로 여겼다. 음식에 대한 탐욕을 경계한 것도 그 탐욕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는 감각이 마비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탐욕에 눈 먼 사람들이 음식을 이용하는 세상을 걱정해야만 하게 됐다. 부처님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 이하의 일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납꽃게'는 더이상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했다. 또 돈벌이를 위해서는 사람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새삼 기억을 새롭게 해준다.

무게를 늘리려고 일부러 납조각을 집어넣은 중국산 수입 꽃게가 시중에 유통됐다가 21일 적발됐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납꽃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97년 미국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에서 공포의 병원성 식중독균인 O-157균이 검출되면서 '식탁공포'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99년 벨기에산 다이옥신 돼지고기, 각종 농약에 찌든 수입산 오렌지를 비롯해 '농약 콩나물' '오염지하수 두부' '항생제 쇠고기' '버려야 될 쇠고기로 조리한 학교급식'이 충격을 주었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묵과 황산을 이용해 식용유를 가공한 업자들이 23일 적발되는 등 어느 하나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납꽃게'의 경우는 납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꽃게에 납을 집어넣은 행위 자체도 잔인함이 극에 달하지만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사실에는 소름마저 돋는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30%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위해가능성이 있는 식품들이 식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하다. 위해 가능성 있는 오염물질을 판별할 분석능력조차 없고, 환경호르몬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이나 기준도 없다. 이번만해도 금속탐지기가 없어 육안검사만 했다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의 변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처럼 무책임한 변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식탁은 앞으로도 계속 안전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돈 벌 욕심에 꽃게에 납을 넣어 판 인면수심의 업자들에게도 부처님 말씀을 빌어 한마디 해야겠다.

"'욕심이란 더럽기가 똥과 같고, 욕심은 독사같아 은혜를 모르며, 욕심은 예리한 칼날에 바른 꿀과 같고, 쓰레기 속에 꽃이 피듯 욕심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욕심은 물거품처럼 허망하다" 〈증일아함경〉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권상' 받는 일본군 위안부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아시아 여성들이 다음달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인권상을 받는다. 이번 인권상 수여는 미국 의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배상을 촉구하는 입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번에 인권상을 수여하는 위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의 이동우 회장은 오는 9월20일 미 국회 의사당 레이번 빌딩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인권상 수상자는 한국 6명, 필리핀 2명, 중국과 대만 각 1명씩 모두 10명이다.

아동학대 '1391'로 전화신고

'아동학대 신고는 지역번호에 관계없이 1391번으로 신고하세요.'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긴급 전용전화가 9월2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9월2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하순부터 전국 시도별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치료실을 갖춘 1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다. 전문기관에는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고 긴급전화(1391번)가 개설돼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는다.

결국 부패정치 못 막나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예고
정치자금 조사·처벌 규정 빠져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거래보고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높다. 이 두 법안은 어이없게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을 아예 빼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정치자금 배격은 정치개혁의 핵심 입법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입으로는 불법 정치자금 배격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정치자금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려는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정치자금을 계속 받아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다.

〈법구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있을 때 어느 악한 사람이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 칼과 활을 들고 달려들자 부처님이 문을 굳게 닫고 접근을 막았다. 악한은 칼과 활을 버리라는 부처님 말에 속으로는 '잡히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먹고는 칼과 활을 버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나는 네 마음의 칼과 활을 버리라고 한 것이지 네 손에 있는 칼과 활을 버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꾸짖었고, 그 악한은 굴복해 가르침을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겠다는 '물염치'도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버려야 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는지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라.



"러브호텔 난립 반대" 21일 고양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일산 신도시 러브호텔 난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숙박업소 건립 불허와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영업금지를 촉구했다.

"의학연구 목적이라도 인간배아 복제 규제"

유럽연합 신기술윤리위

의학연구 목적에 한해 인간배아 복제실험을 허용한 영국정부의 결정에 유럽연합(EU) 집행위의 과학 신기술 윤리위원회가 규제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윤리위원회 노엘 르누아르 위원장은 20일 "EU는 인간을 재생하는 목적의 복제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결정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간복제 연구가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비록 의학연구 목적이라도 이를 윤리차원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허용여부나 수준 등 법적 규제안을 종교계·의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인간배아 연구로 난치병과 유전병을 치료할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큰데다 게놈 해독과 관련해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각국 과학자들이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와 미국도 연구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간배아 복제와 관련해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는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었다.

시론

아직도 인권후진국

정권교체 이후 김대중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며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권'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나면서부터 존엄하고, 누구도 빼앗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그냥 넘겨줄 수 없는 소중한 인권이야말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물론 인권은 해방이니 구원이니 하는 말들보다는 하위개념으로서, 우리들 삶의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공동체가 합의한 최초의 쓸만한 문건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본문 30개조에 나오는 규정들도 다만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이 자랑하듯 우리나라도 인권선진국에 진입했는가?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정권과 비교해 법이나 제도 보완 측면에서 칭찬할만한 것들이 꽤 있다. 여성특위의 신설,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 4.3에 대한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의 설립추진이나 거리에서 최루탄이 사라진 것은 과연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인권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확인하고, 총론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들어 시행된 이런 굵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사회의 인권은 좋아졌는가? 인권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성의 지위는 날로 향상된다고 하지만, 정보화사회라는 지금 인터넷 사용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을 생각하면 실질에 있어서의 진전은 아직 멀었다.

비록 현정부 들어 사형집행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법살인이라는 비난 속에 사형제도는 끄덕도 않고 있고 42명의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다.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겨냥한 고문은 없어졌다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검·경의 수사를 통해 강압을 느껴야 하고, 잠 안재우기 등 고문의 형태는 더욱 음성적으로 교묘해졌다. 불구속 수사를 확대한다지만 여전히 구속영장은 남발되고 있고, 부족한 판·검사 인력으로 인해 고뇌어린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그저 조문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전관예우가 관치는 상황에서 돈 있는 의뢰인과 가난한 의뢰인의 차이는 그야말로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상황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비아냥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인권의 척도라는 교도소, 구치소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여 감옥 경험이 있는 대통령이 지도하는 정부의 감옥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송구치소, 광주교도소 등은 진료비를 아끼기 위해 암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진료도 안해주고, 죽음을 재촉했을 정도이다.

52년전 공포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 못한 것 투성이다. 씨랜드 참사가 불과 작년의 일이고, 거리 치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교육 필요성 절감

물론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권문제 중에는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사인(私人)간의 인권유린도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즉 서로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인권도 지키려는 공동체적 의식, 인권의식이 크게 부족한 탓일게다.

우리가 당면한 여러 인권문제를 해결해 가는 동시에 초·중등학교 등 공교육에서부터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인권'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에 앞서 우리가 인권의 진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잔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산영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완치!!

진각종 청소년포교 '새 장' 연다

산하조직 통합 '비로자나 청소년협' 설립
다양한 교육 · 행사로 정서함양 유도

진각종이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청소년 포교활동에 나섰다. 이번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의 설립은 그동안 조계종을 제외한 종단 산하에 청소년 포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화된 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동안 진각종의 청소년 포교 활동은 각 심인당과 신행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조직화된 청소년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진각종은 1년여 동안의 준비작업을 거쳐 7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진각종은 '비로자나…'의 설립으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는 물론 일반 청소년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청소년 문화 정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설립된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좌 등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세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사단법인 지역 조직망 구축 △청소년 지도자 양성 △지역 청소년 문화제 개최 △각종 청소년 수련대회 실시 △종립학교 관련 행사 및 불교학생회 연수 등의 사업 계획을 구상해 놓고 있다. 또 청소년 포교 문화의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 심인당과 종립학교 청년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단체를 하나로 결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 연구 개발위원회' '청소년 문제 연구 위원회' 등도 법인 내에 개설 운영한다. 하지만 올해는 설립 원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홍보사업, 기초조직망 구축 및 확보, 각종 교육과 연수, 어린이 청소년 문화 관련 이벤트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교계 종단으로서는 조계종 산하의 '파라마타 청소년협회'에 이어 두번째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비로자나…'의 출범에 대해 각종 유해환경의 증가로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교계의 청소년 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기구가 출범하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청소년 포교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해가는 청소년들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충고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이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법인설립 발대식에 앞서 현판을 들고 종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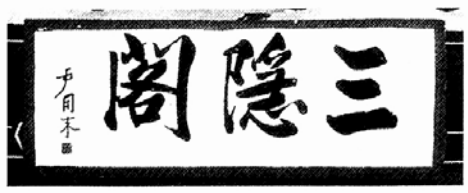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혜명 대표이사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물질문명속에서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해 기초인성 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한편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는 24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해 혜명 대표이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설립 발대식을 가졌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⑱ 석촌의 동학사 · 선암사 편액



◇동학사 삼은각 편액



◇선암사 누각 편액

석촌 윤용구(石村, 石邨 尹用求·1853~1937)는 부사를 지낸 윤회선(尹會善)의 아들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서화가이다. 그는 15세에 돈령부(敦寧府) 직장을 지내고, 19세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또한 그는 후에 규장각에 들어가 상대(常帶), 한림(翰林), 대교(待敎), 직각(直閣), 사인부제학(舍人副提學),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성, 도승지 등의 벼슬을 지내기도 했다.

석촌은 글씨와 그림에 두루 능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난죽(蘭竹)과 구양순(歐陽詢) 풍의 해서, 행서, 그리고 금석문(金石文)을 즐겨 썼다. 석촌은 대한제국 수립 후에도 법부, 탁지부, 내무대신 등으로 10여 차례 임명되었으나, 이를 모두 거절하고 서울 근교의 장위산(獐位山) 아래에 기거하면서 시, 서, 화로 여생을 보냈다. 현재 명승고적과 사당, 재실 등에 많이 전하는 그의 글씨는 대부분 벼슬에서 물러나 필묵으로 소일하던 때에 쓴 것인데, 사찰에 남긴 것으로는 공주 동학사 〈삼은각〉, 〈인재문〉, 순천 선암사 〈강선루〉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공주 동학사 삼은각 편액에는 액판 좌측에 '윤용구(尹用求)'라는 관지와 도서가 하나 찍혀 있다. 삼은각은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 길재(吉再) 등 고려 고려유신의 위패를 봉안한 전각으로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59호로 지정돼 있다. 좀은 변죽으로 장식한 편액은 액판 바닥을 흰색으로 칠했는데, 이러한 형태로 보아 일제강점기쯤에 조성된 것이 지금까지 전해온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석촌이 쓴 대부분의 글씨와 마찬가지로 수경(瘦勁)한 행서이다.

순천 선암사 일주문 박의 계곡 옆에 있는 누각에 걸린 〈강선루〉 편액에는 '석촌 윤용구(石邨 尹用求)'라는 관지와 두 개의 도서가 찍혀 있다. 이 편액은 가로 두 개의 폭판에 새긴 것으로, 1930년 6월 전각을 중수할 때쯤에 석촌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역시 석촌의 문기(文氣)어린 수경(瘦勁)한 해행(楷行)으로 그의 꼿꼿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씨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동학사 삼은각 충남도 문화재 자료 59호
선암사 강선루 문재 · 꼿꼿함 엿뵈는 수작

건강백과

휴가 후 건강관리

휴가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놀때는 좋았는데, 돌아와 보니 몸이 찌뿌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무리를 하다보면 한동안 '바캉스 증후군'으로 고생하게 된다. '피곤하고 의욕이 없다'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 '소화가 잘 안된다'는 등의 증상을 주로 호소한다.

▲생체리듬 회복요령

바캉스 증후군은 무절제한 생활로 생체리듬이 혼란에 빠지면서 호르몬체계나 수면주기에 이상이 생겨 나타난다. 밤늦게까지 놀다가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거나 시차가 3시간 이상 되는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생체리듬이 깨져 수면장애, 피로감, 집중력 감소 등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직장과 가정생활에 다시 적응하려면 1~2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야채나 과일, 종합비타민제 등을 먹으면 신진대사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운동·야채등 신진대사에 활력

복통·설사 증세 유제품 삼가

▲바캉스 뒤 나타나는 질병

휴가 후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복통, 설사, 구토를 동반하는 급성 장염이다. 설사가 멎을 때까지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저절로 낫지만, 탈수가 심하거나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면 치료해야 한다. 휴가철이 지나면 유행성 눈병 환자도 부쩍 늘어난다.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소금물로 눈을 자주 씻어 주면 7~10일 정도면 자연 치료된다.

▲피부관리

피부는 여름에 늙는다. 피서지에서 뜨거운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가 붓고 따가우며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때는 과도한 마사지를 피하고 찬 물수건이나 얼음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야 한다. 피부 껍질이 일어날 때는 억지로 벗기지 말고 자연스레 벗겨지도록 한다.



◇ '드림캠프'에서 청소년들이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받고 있다.

약물·흡연 탈선에 경종
능인복지관 18·19일 금연캠프

능인종합복지관은 약물남용 정소년을 위한 강남지역 협의회와 함께 18·19일 양일간 용인 자연수련원에서 '제2회 밀레니엄 드림캠프'를 열었다.

강남구내 청소년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약물 남용을 주제로 한 사회심리극 공연을 비롯해 서바이벌 게임, 풍물놀이,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담배와 약물을 주제로 풀어보는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은 청소년들에게 흡연 및 약물남용에 대한 유해성을 쉽고 재미있게 자각시켜 주어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어 열린 사회 심리극 공연에서는 흡연 및 음주, 가스·본드 흡입 등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탈선 모습이 적나라하게 연극으로 보여졌다.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이현주 복지사는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과 흡연실태는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심각한 편이다"며 "드림캠프는 지루한 강의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게임과 퀴즈로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해 반응이 의외로 좋다"고 캠프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레크리에이션 2급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9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 사회복지재단에서 2급 전문지도자 과정을 개설한다. 강의 내용은 △불교 레크리에이션론 △찬불가와 율동 △심성계발 △전통등 공예 △민속춤 △캠프와 하이킹 등이다. 참가비는 30만원이며 총 60시간 과정을 이수하면 2급 지도자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02)738-7860

청교련 자원봉사 한마당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에서 '2000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을 펼친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봉사자들이 장애인들에게 수영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 보행 훈련 등의 봉사를 실시한다. (02)735-8165

양정수련관 보수 개관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5일 청소년소극장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공사를 끝내고 재개관식을 가졌다. 부산지역 청소년 지도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풍물놀이 축하 공연을 비롯해 개관기념 영화 상영이 있었다.

이번 재개관으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지원실 구축 등 사이버 수련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세계민속캠프 열려

함지골 청소년수련관은 7일부터 4일간 수련원 강당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세계 민속캠프'를 열었다. 1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세계 4개국 민속춤 체험 △세계 문화 미술품 감상 △가상 세계여행 계획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불련 가정폭력 전문상담소 현판식



◇여불련의 '행복한 상담소' 현판식.

여성불교연합회는 21일 가정폭력 전문 상담 역할을 할 '행복한 상담소 현판식 및 상담전화 개통식'을 봉행했다. 동국대 사회복지회 회장 송묵스님을 비롯해 재향군인여성회 정영숙 회장 등 3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묘주 상담소장은 "전문 상담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을 고정 배치해 가정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여성들에게 의지처가 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원 의도를 밝혔다. (02)738-5586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탁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 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염주 / 단주 / 합장주



염주		단주		합장주	
■금강주염주세트	30,000원	■금강단주(특대)	11,000원	■무상합장주	14,000원
■드실백팔염주(특)	40,000원	■대추연꽃단주30mm	20,000원	■사금석T합장주 8mm	64,000원
■다노백팔염주8mm	40,000원	■도실단주(특)	10,000원	■수정주판알합장주	16,000원
■백옥백팔염주(대)	40,000원	■벽조목단주(소)	18,000원	■수정컷팅합장주10mm	25,000원
■백옥백팔염주(소)	30,000원	■사진단주25mm	46,000원	■자수정마노합장주	16,000원
■벽조목백팔염주	40,000원	■생광석단주	10,000원	■자수정커팅합장주	16,000원
■브리수납작백팔염주	30,000원	■주목단주 20mm	14,000원		
■생광석백팔염주	35,000원	■주목단주 24mm	16,000원		
■수암옥염주세트	98,000원				
■수정백팔염주 8mm	50,000원				
■수정컷팅백팔염주	90,000원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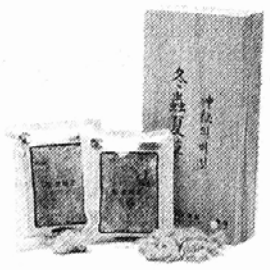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신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체 형 ₩20,000원 무개체형 :₩15,000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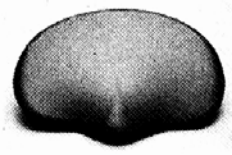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09
의장등록: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친연옥, 무목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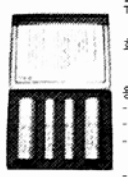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개



가격 : ₩33,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최업장 보현행원품에 영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절보살계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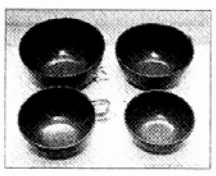
가격 : ₩60,000

대나무 숯 염색천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가격 : 60,000원
■색상 : 진회색/회색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꽂이



가격: ₩50,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가격: ₩60,000

한방향 선물세트

향통+한방함+향꽂이



■가격 ₩25,000원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순금도금 은 히란야메달



- 종도및소장 남녀공용 브로치형 메달
- 재질 천영지수정스부작 순메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 효능 정화치유에너지가 방출,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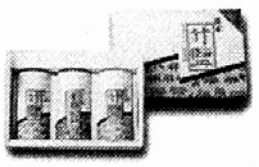
삼보죽염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 ■삼보미용죽염 (250g) 가격 :₩3,500
- ■삼보미용죽염 (500g) 가격 :₩6,500
- ■삼보순소금 (500g) 가격 :₩6,500
- ■삼보죽염 200g 가격 :₩36,000
- ■삼보죽염 600g (Set) 가격 :₩105,000
- ■삼보죽염비누 (110g 2개) 가격 :₩12,000

장군죽염



서해안의 정결한 국내산 천일염을 왕대나무의 탑에넣고 산속의 오염되지 않은 황토와 소나무 장작만을 사용하여 1300℃가 넘는 고온으로 굽고 녹아 내린 제품!!

- ■장군죽염-2회죽염 가격 :₩4,000
- ■장군죽염-3회죽염 가격 :₩6,000
- ■장군죽염-9회죽염 분말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가격 :₩10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선물세트 (소) 가격 :₩18,000
- ■장군죽염-9회죽염 알갱이 가격 :₩36,000
- ■장군죽염-9회죽염 홍화씨환 가격 :₩36,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제기와 제구

제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지내는 것으로 인류 문화의 중요한 한요소이다. 제사는 동서 고금의 어느 사회에서나 행여져 왔다.
제사는 인류의 정신 사용에는 비롯된 것으로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허나의 짓대가 된다.

■ 제구의 종류

- 병풍(屛風) 제사를 지낼 장소의 뒤와 옆 등을 둘러친다. 현란한 그림이 그려졌거나 경서잔치에 관련되는 내용의 글씨가 있는 것은 피한다.
- 교의(交椅) 신주나 위패를 봉안하는 의자로서 제상이 높으면 교의도 높아야 하고 제상이 낮으면 교의도 낮아야 한다. 오스톰에는 신위를 모두 제상 위에 봉안하고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신위판(神位板) 제사 도주 지방을 붙여 놓을 비롯이다. 이는 예전의 신주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신주 형태의 목패(木牌)로 제작하여 의자와 제상에 세워 놓거나 작은 사진액자 모양의 목판으로 제작하여 기대어 놓아도 무방할 것이다. 신주는 관리와 예법이 엄격하고 까다롭지만 신위판은 임시로 지방을 붙여 놓은 기구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 제상(祭床) 제사음식을 차리는 상이다. 120x80cm 정도가 되어야 제수진설에 적당하다.
- 향안(香案) 향상(香床)이라고 한다. 향로와 향합, 모삿그릇을 올려놓는 작은 상이다.
- 주가(酒架) 주전자,현주병,퇴주기 등을 올려 놓는 작은 상이다.
- 소탁(小卓) 축문을 올려 놓고 신위를 봉안하기 전에 임시로 모시는 작은 상이다.
- 소반(小盤) 제사 음식을 진설하기 위해 올릴 때 쓴다.
- 촛대(燭臺) 제상에 촛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다.
- 향로(香爐) 향을 사르는 기구이다
- 향합(香盒) 향을 담아놓는 그릇
- 모사기(茅沙器) 모래와 띠 묶음을 담은 그릇. 강신 때 뇌주를 여기에 붓는다. 이는 음지(땅)에 있는 신(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다. 형태는 보통 굽이 있는 꽃꽂이 수반(水盤)과 유사하다.여기에 깨끗한 모래를 담고 띠 한 줌을 한 뼘 정도로 잘라 가운데를 묶은 실로 묶어서 모래에 꽂는다. 이것은 땀바닥을 상징한다. 표지에서의 제사는 땅에다 바로 뇌주를 붓게 되므로 모사기를 쓰지 않는다.
- 축판(祝板) 축문을 끼워 놓는 두껑이 붙은 판이다. 크기는 사방 30cm면 적당하다. 오늘날은 절제판이나 흰종이로 대체하는 것도 무방하다.
- 자리(석席) 띠투나 방에서 지낼 때는 하나면 되지만 묘제에는 바닥에 깔 만큼 준비해야 한다.
- 지필묵연함(紙筆墨硯函) 축문을 쓰거나 지방을 쓰기 위한 한지,붓,먹,벼루 등을 담아 두는 함이다.

■ 제기의 종류

- 시접(匙接) 수저를 올려놓는 제기로 대접과 모양이 비슷하다.
- 탕기(湯器) 탕과 국을 담는 제기로 여러 모양의 것이 있다.
- 두(豆) 김치와 젓갈을 담는 그릇으로 굽이 높고 사각형이다.
- 떡그릇(병대) 떡을 담는 제기로 위판이 사각형이다.
- 모삿그릇(茅沙器) 모래와 띠의 묶음을 담는 그릇으로 보시기처럼 생겼으며 굽이 높다.
- 준함(준缸) 술을 담는 항아리이다.
- 준작(준勺) 주기로서 사기와 구리로 만든다. 작은 새 부리 모양으로 생겨 술을 따르는데 쓰인다.
- 번 과실과 건육을 담는 제기로 받침을 높게 하여 대나무로 엮어서 만들었다.
- 조(俎) 고기를 담는 도마 모양의 제기로 받침이 달려 있다.

음반



- ■무비스님강의집(금강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지장경 테이프 20개) 가격 :₩45,000
- ■무비스님강의집(진심직설 테이프20개) 가격 :₩45,000
- ■문구암스님범음범패집(테이프 20개) 가격 :₩6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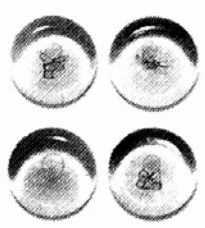
· 관세음보살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중)(영인스님 CD)	₩10,000
· 금강경(영인스님 CD)	₩10,000	· 지장경(하)(영인스님 CD)	₩10,000
· 부모은중경(영인스님 CD)	₩10,000	· 지장정근(영인스님 CD)	₩10,000
· 석가모니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천도제 의식 (영인스님 CD)	₩10,000
· 신묘장구대다리니(영인스님 CD)	₩9,500	· 천도타령염불(영인스님 CD)	₩10,000
· 약사여래불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천수경 아미타경(영인스님 CD)	₩10,000
· 예불천수경 (영인스님 CD)	₩9,500	· 팔양경(영인스님 CD) 송강기획	₩10,000
· 우리말 천수경(영인스님 CD)	₩10,000	· 화엄신중 정근 (영인스님 CD)	₩10,000
· 장고가락 염불(영인스님 CD)	₩10,000	· 회심곡(영인스님 CD)	₩10,000
· 장엄염불(영인스님 CD)	₩10,000	· 날개 CD	₩10,000
· 지장경(상)(영인스님 CD)	₩10,000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금비누

■ 2개 1세트 가격 :₩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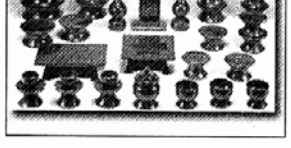


■ 1개당 가격 :₩ 3,000
■ 6개1세트 가격 :₩ 15,000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커 업 잔여물 까지도 깨끗이 한불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입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은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음이온을 띰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장품 성분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 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삽입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남원 동천목 제기



■재 질 : 지리산오리목
■가 격 : 172,000

남원 동천목 孝제기



■재 질 : 지리산오리목
■가 격 : 203,000

성묘용 이동식(휴대용) 제기



■재 질 : 지리산오리목
■가 격 : 73,000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북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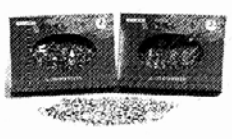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	12,000원
· 나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9,000원

홍화란?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화초로써 옛날부터 잇꽃이라 불렸으며 잎이나 꽃받침에 가시가 붙어있고 씨의 크기는 해바라기와 흡사하여 홍화꽃잎은 예로부터 웃감연료, 연지, 화장품으로 이용되었으며 한방에서는 통경제나 어혈을 풀어주는 파혈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홍화씨

■원료 -볶은 홍화씨 100%
■용법-볶은 홍화씨를 물2리터에 20g정도 넣고 충분히 끓인 후 냉장고에 보관후 수시로 드시면 좋습니다.

■용량:500g (1봉지)
■가격:25,000원



홍화정

■원료 - 홍화씨 80%, 하수오 뿌리, 마뿌리 산수유 열매, 황기, 두충껍질, 찹쌀 등의 약재를 넣어 드시기 편하게 정(환)으로 만든 제품
■용법 - 1일 3회 매회 3g(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용량: 200g 3통 / 250g 2병
■가격:120,000원 / 77,000원



홍화분말

■원료 - 홍화씨 100%를 미세하게 갈아서 만든 제품
■용법 -1일 3회 매회 3g (T스푼 1숟갈)정도를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용량: 200g 3통 / 250g 2병
■가격:90,000원 / 65,000원



홍화엑기스

■원료 -홍화씨 80%, 대추, 하수오뿌리, 마뿌리, 산수유, 황기뿌리, 두충껍질 등의 약재를 4~5시간 고농축 엑기스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
■용법 - 1일 2회 식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용량: 80ml 60포/ 80ml 48포
■가격:128,000원 / 98,000원

베지푸드

콩에는 포화지방이 적고 아미노산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비타민A,B,E,K)과 군형 잡힌 무기질(칼륨, 철, 인,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아이소플라본(제이스타인, 다이드제인)과 같은 식물성화합물로써 건강증진에 특효입니다.



콩살로만

■ 설명 -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전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수량: 1000g 2개
■가격: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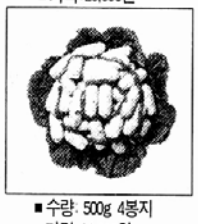


콩살들이

■ 설명 - 콩단백과 유청단백에 전연향료를 첨가하여 담백한 햄맛을 낸 제품

ISO9002 인증획득
무방부제, NO 콜레스테롤

■수량: 1000g 3개
■가격:36,000원



콩비엔나

■ 설명 - 콩단백과 소맥단백으로 햄맛을 낸 제품, 도시락 반찬 및 간식용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수량: 500g 4봉지
■가격:32,000원



버섯말이

■ 설명 - 고급 표고버섯에 유청단백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맛을 살려, 국, 볶음, 찌개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수량: 150g 8봉지
■가격:32,000원

이렇게 들었다 — 인권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 2년째인 99년 한해 동안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인권이란 강령의 형식으로 추상화되거나 형식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구석구석에 실질적인 권리로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인권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이다.

부처님은 일찍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역설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만물 평등하니 자비로 대하라

▨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개장(蓋障)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되 갓난애 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자쇄호경〉

▨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으므로…, 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비니방광경〉

▨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 온갖 사물은 특질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실체가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생기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본래 청정한 까닭에 평등하다. 희론(戱論)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중략) 유와 무가 불이(不二)인 까닭에 평등하다. 〈화엄경〉

▨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금수·벌레·천인(賤人)중 살려 주기를 바라는 자를 보았을 때에는 언제나 가엾이 여겨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 〈아난사사경〉

▨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大悲)가 없다고 말하지 말할지언정 우바리를 천하다고는 말하지 말라. 그가 비록 천민 계급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호법(護法)·지율(持律)에는 제1인자이니, 그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종묘과(三種妙果)를 얻게 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느니라. 〈대방편불보은경〉

▨ 온갖 중생도 다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온갖 사물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성자들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미륵에 이르러도 진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마경〉

▨ 갖가지 중생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삼세에 평등하며 시방에 통달함을 '다함이 없는 행'이라고 하나니라. 가지가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모두 제일의 바라밀다인 것을 '존중행'이라고 하나니라. 〈능엄경〉

▨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을 관찰하고 법으로써 우두머리로 삼고 바른 법을 보호하라. 또 마땅히 법으로써 모든 예쁜 여자를 가르치고 또 마땅히 법으로써 보호해 살피라. 그리고 모든 왕자 대신 모든 벗 모든 관리 및 모든 백성 사문 바라문을 가르쳐 경계하라. 밑으로는 금수에 이르기까지 다 마땅히 보호해 보살펴라. 〈전륜성왕수행경〉

▨ 초목이나 국토처럼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조차도 부처가 될 종자(佛性)을 가지고 있다. 〈열반경〉

▨ 네 가지 계급(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으로 그 사람의 우열을 규정할 수 없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무릇 네 종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비구가 되고 아라한이 되어 모든 번뇌가 없어진 사람을 가장 뛰어난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함경〉

▨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살차니건자 소설경〉

신행 캘린더

8월 30일 (수)

■ **호국 관음사 불상 점안식**=육군 제31보병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주지법사 한영규)가 착공 2년여만인 오후1시 불상 점안식과 낙성식을 거행한다. (062)264-7829

■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은 오후2시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총회 및 대회를 개최한다. (02)720-1654

8월 31일 (목)

■ **한전 정기법회**=한전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는 오후 7시30분 화이면 운흥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5)830-2440

9월 1일 (금)

■ **보건복지부불자회 1주년 법회**=보건복지부 불자회는 과천 보광사 극락전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 동국대 총장 지관스님이 설법한다. 011-9991-9045 강인준

■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2000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신라의 고도 서라벌에서 71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오른다. (053)357-2114

■ **무안 연꽃축제**=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회산 연꽃방죽 일대에서 4일까지 무안군 주관으로 '연꽃 대축제'가 열린다. 축제에서는 불교문화예술제, 법요식도 진행된다. (061)450-5224

9월 2일 (토)

■ **'지역발전을 위한 동화사의 역할' 토론회**=법륜불자교수회는 오후 2시 동화사 대불전에서 대구불교발전을 위한 제9교구 동화사의 역할을 조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화사 대불의 건축공간 특징과 활용방안(최영식 영남대 교수)', '동화사 대불의 사회적 지역적 특징과 활용방안(김태엽 대구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53)819-1450 장호경

■ **서울신도회 창립법회**=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오후3시 조계사에서 서울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앞서 2시에는 서울지역 신도회 총회를 개최한다. (02)733-7277

9월 3일 (일)

■ **청교련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청소년교화연합회는 오전9시~오후5시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에서 자원봉사 한마당 '장애인과 하나되는 수영교실'을 개최한다. (02)735-8165

■ **수험생을 위한 특별법회**=능인선원은 오전10시30분 대법당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미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의 체험담도 소개된다. (02)577-5800

■ **동산선원 10주년 법회**=동산반야회의 정릉 동산선원은 오전10시 혜경스님을 법사로 개원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32-1206

■ **이효석 생가 답사**=터사랑은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 이효석의 생가 답사길에 오른다. 이효석의 생가 외에도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씨의 안내로 평창의 팔관대, 봉산서재, 팔석정 등을 둘러본다. (02)725-1284

■ **故 대원 장경호거사 추모법회 및 대원불교도서실 개관**=한국불교 대원회는 3일 10시30분부터 대원불교회관에서 고 대원 장경호거사 25주기 추모법요식 및 대원불교도서실 개관식을 갖는다. (02)754-1613

9월 5일 (화)

■ **〈화엄경〉 강의**=깨침터 부설 화엄학연구소는 오후 7시30분 연구소 내 강당에서 '화엄의 바다' 두번째 강좌를 시작한다. 〈화엄경금사자장〉을 교재로 한 연세대 신규탁 교수의 강의로 6주간 진행된다. (02)747-6645



◇삼국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명암리 미륵불.

석불회 명암리 미륵불 친견

한국석불선양회는 9월3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의 작은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는 미륵부처님을 친견하고 예불공양한다.

목화석(木花石)으로 조성된 명암리의 석불은 삼국시대에 유행한 석존 5인의 하나인 통인, 통견, 6등신 비율, U자 형태의 양감있는 사실적인 신체표현 등으로 미뤄 삼국시대의 불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마을에서 전각을 지어 모시고 일년에 한번씩 재를 올렸으나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1992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 안치됐다.

한국석불선양회는 목화석 미륵부처님께 예불 공양법회를 봉행한 뒤 주변 정화작업을 벌이고, KBS '태조 왕건' 촬영장을 견학한다. 오전7시40분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에서 출발. (02)996-7945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법회안내

성륜사서 정기법회



청화 성륜사 조실스님은 3일 오후1시 전남 성륜사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061)363-0081

한마음선원 설법



정락 용주사 주지스님은 3일 오전11시 안양 한마음선원 대법당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수와 마음가짐을 지적하고 마음공부로 귀결하는 방법에 대해 법문한다. (031)470-3100

'승만경' 강의



일진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 강사스님은 6일 울산 정토사에서 오후2시 〈승만경〉에 대해 강의한다. (052)258-9944

'진경시대 불교' 특강



최완수 간송미술관 관장은 6일 오후 6시30분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총무원 종무원들의 신행모임인 원우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경시대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강설한다. (02)732-4923

게시판

알림

▲**가정봉사원 양성 교육**=낙동복지관은 30일 동관 2층 강당에서 가정봉사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영진가정봉사원 교육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051)271-0582

▲**무료직업소개소**=자양사회복지관은 무료 직업소개소를 열고, 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기다린다. (02)458-1664

▲**원효불교대학 신입생**=원효불교대학은 1일 오전10시30분에 개강하는 불교대학의 제8기 신입생과 문화센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053)563-9154

▲**참선교실 개설**=우곡선원은 16~10월11일 부산 해운대 오션타워 7층 여여선원에서 생활참선 교실을 연다. 입문반, 중급반, 정진반이 있으며, 주 2회(수:20:00~22:00, 토:18:00~21:30) 실시된다. (051)740-6288

모집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용호복지관은 거동 불편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이며, 매주 월~금요일 주1회 오전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게 된다. (051)628-6737

▲**불교 입문자 교육생**=부산불교교육원은 제31기 입문자 교육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30일부터 6개월 과정이며 매주 수요일 불교예절, 기초교리, 예불문, 수행방법 등을 교육한다. (051)466-4080

▲**세탁서비스 수혜대상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들의 빨랫감을 수거하여 세탁해주는 세탁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비스 수혜자들이 전화접수하면 복지관에서 가정방문을 해 세탁물을 수거하여 깨끗하게 세탁해 돌려준다. (02)385-1351

▲**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고령자 및 거동불편한 노인을 부양하지 못하는 가족을 대신해 낮동안 노인들을 돌봐준다. 모집대상은 마포구 관내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며, 이용료는 하루 4천원, 한달 8만원이다. (02)365-3677

▲**방과후 학교 아동모집**=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 아동을 모집한다. 방과후 교실에서는 학습지도, 종이접기, 미술지도, 영어지도, 전통무용, 예절교실, 전통무용 등을 지도한다. (02)2282-1100

▲**반찬배달 봉사원**=자비의 집은 독거노인과 장애우들에게 반찬배달을 해 줄 봉사자를 모집한다. (02)945-4200

▲**경전반 수강생**=다보사는 3개월 과정의 경전강좌 과정인 '다보불교 학림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4일이며, 월·화요일 주 2회에 걸쳐 강의한다. (02)475-6633

▲**능인선원 예술단원**=능인선원은 사물놀이, 장구, 풍물, 민요, 가요, 고전무용, 설장구를 배울 예술단원을 모집한다. 연습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3~5시. (02)577-5800

▲**노인 동행 봉사자**=청담노인주간보호센터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동승해 노인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줄 봉사자를 모집한다. (02)806-1375

▲**가요교실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가요를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1)716-4215

▲**경전연구강원**=조계사는 8일 경전연구강원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공부할 경전은 〈유마경〉이며, 매주 금요일 오전2시, 오후7시 2차례에 걸쳐 강의가 있다. (02)720-1390

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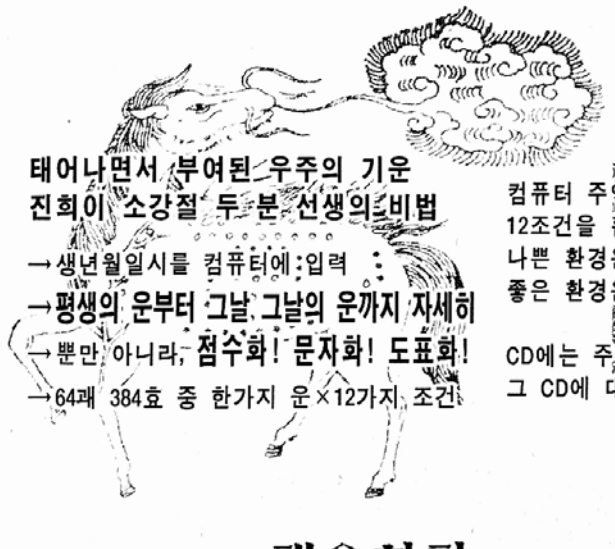
▲**간호사, 생활보조원, 취사부**=인덕노인복지회관은 간호사와 생활보조원, 취사부 약간명을 구한다. (02)385-8205

이전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와 불교복지보건대학이 최근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3-5 대아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463-5331, 불교보건대학 (051)463-5330

CD 하락이수
인생을 슬기롭게 삶을 복되게…

占이면 점! 運命이면 운명!
대유학당의 [씨디 하락이수]와 함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3000년을 이어온 周易의 신비를 한 장의 CD에 담았습니다.
운명을 슬기롭게 개척하는 지혜의 보고 [CD河洛理數]



태어나면서 부여된 우주의 기운
진희이 소강절 두 분 선생의 비법
→생년월일시를 컴퓨터에 입력
→평생의 운부터 그날 그날의 운까지 자세히
→뿐만 아니라, 점수화! 문자화! 도표화!
→64괘 384효 중 한가지 운×12가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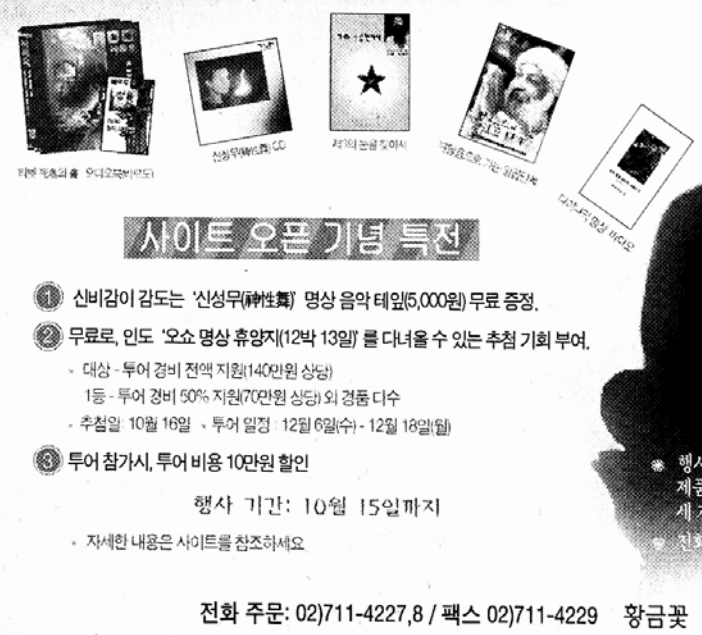
컴퓨터 주역점, 비법 중의 비법 참평비결,
12조건을 활용한 상대방과의 궁합, 적성!!
나쁜 환경은 개선하거나 피해나가고
좋은 환경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CD에는 주역의 예지력을 담고,
그 CD에 대유학당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주역의 명문! 대유학당 02) 2232-8383, 2234-1786

신인간이 드러나고 있다!!!

www.goldenflower.co.kr
신인간을 위한 멀티미디어 쇼핑몰



사이트 오픈 기념 특전

① 신비감이 감도는 '신성무(神性舞)' 명상 음악 테잎(5,000원) 무료 증정.
② 무료로,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12박 13일)'를 다녀올 수 있는 추첨 기회 부여.
- 대상 - 투어 경비 전액 지원(140만원 상당)
1등 - 투어 경비 50% 지원(70만원 상당) 외 경품 다수
- 추첨일: 10월 16일 - 투어 일정: 12월 6일(수) - 12월 18일(월)
③ 투어 참가시, 투어 비용 10만원 할인

행사 기간: 10월 15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행사 기간 중, 회원에 가입하시고, 제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세 가지 특전을 모두 드립니다
전화 가입 및 주문도 가능합니다.

전화 주문: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황금꽃

송광사 주민 찾아가는 포교

불자 자택 방문 가정법회 봉행 '인기'
경로잔치·운동회 후원 유대감 높여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순천시 송광면 신평리·주지 현봉)가 지역 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관람료를 받는 본사로는 이례적으로 마을법회에 나선 것. 지난 6월부터 아랫가을인 신평리의 불자가정을 차례로 방문해 가정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경로잔치 운동회 등의 지역행사에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부 관람료 사찰이 경제권과 사찰 수행환경권 등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송사를 벌이는 등 감정의 골이 깊은 점과 대비돼 송광사의 이같은 포교활동은 사찰과 지역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민들에게 불심의 씨를 심는 계기가 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송광사의 가정법회는 지난 5월 지묵·범하 두 스님이 제작한 법회 홍보물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신평리 불자 17명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가지면서 시작됐다. 한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6월22일 첫 법회를 봉행한 송광사는 매주 목요일 신평리의 불자가정을 순회하며 법회를 열고 있다.

지묵스님(전 총무)과 범하스님(강원)을 지도법사로 열리는 법회는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진다. 스님들은 어려운 법문대신 신도들의 고민과 기쁨을 나누는 생활법문으로 법회를 이끈다. 송광사 가정법회는 신행의 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마을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애경사를 털어놓으며 이웃간의 정을 쌓아가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 그래서 신평리뿐만 아니라 인근 외송리 마을 불자들까지 법회에 동참하려고 찾아올 정도다. 14~23일에는 신심이 생긴 10여 명의 불자들이 자체적으로 송광사 대웅전에서 10일간의 기도정진법회를 가졌을 만큼 지역민들의 신심 고취에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다.



◇순천 송광사는 인근 신평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포교에 주력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송광사에서의 법회 장면.

지묵스님은 "큰 절 아래 마을 불자들일수록 절이나 스님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게 사실이다"며 "지역민들이 근처 사찰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마을불자들의 귀의처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찰측의 적극적인 포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아기같은 천진함에 더하여 여유로움, 자재함을 갖춘 덕천사 5백나한상.

덕천사 5백나한 조성

원효·도선스님등 봉안…예수상도 포함

김해 덕천사(주지 원천)는 23일 500나한 조성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500나한 조성 점안 법회는 이날 참석했던 스님들 마저 처음이라고 할 만큼 보기 드문 일. 일반적으로 나한전에는 16나한이나 18나한이 모셔져 있고 500구의 나한이 모셔진 곳은 은해사 거조암, 등명낙가사, 은문사 등 손에 꼽을만 하다.

덕천사는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 고려시대 사찰인 선지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기와가 발견된 유서 깊은 사찰. 주지 원천스님이 500나한 조성을 발원한 것은 8년 전. 500나한의 수행력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오랜 기도와 정성으로 중국에서 500나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불모를 구해 1년 6개월에 걸쳐 나무를 깎아 나한 한 분 한 분의 독특한 표정과 자세를 되살릴 수 있었다.

28㎝, 30㎝, 32㎝의 나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500 나한에는 우리나라의 장유화상, 원효대사, 의상대사, 진묵 대사, 도선 국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예수상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우리 선조들의 깨침을 강조하며 민족적 자긍심을 살리기 위한 원천스님의 숨은 의지의 표현이다.

천미희 기자

부산서 팔관회 재현

부불련 "통일·아시안게임 성공" 10월 개최

오는 10월 2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우리나라 전통 불교축제인 팔관회가 재현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민족통일의 원만 성취와 2002년 부산에서 치뤄지는 아시안 게임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고려시대 이후 단절된 민족 축제인 팔관회를 계승 복원하기로 했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팔관회는 호국사상에서 생겨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유민속과 불교가 접목되어 윤등을 설치하고 향등을 달아 밤새도록 광명과 향기가 가득하게 연화대를 설치해 가무를 즐기는 축제.

팔관회의 복원은 전통불교의식인 범음 범패와 불교음악, 무용의 현재적 조명으로 불교종합예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불교계의 화합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산불교연합회는 축제기간동안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동참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 지역에서 불교 위상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현대적 감각으로 복원하기 위해 부문별 준비모임을 갖고 부산소재 1500 여 사찰의 스님 및 불교지도자, 지역 인사를 비롯한 폭 넓은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티베트문화재 사라질 위기

FT보도 "라사서 15년간 5천건 도굴·파괴"

티베트가 문화재의 무자비한 파괴와 도굴로 전통불교문화재가 망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따르면 최근 로비 바네트 미 콜럼비아대학교수는 네덜란드 레이덴에서 열린 티베트학회에서 "지난 15년동안 중심도시 라사에서 5,000여건의 도굴사건이 적발됐다"며 "이밖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유출된 전통 불교문화재는 수천가지에 달해 티베트에는 온전한 문화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이 종교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60년대 말까지 수천개에 이르는 사원중 97%를 철저히 파괴했고 그 와중에 수많은 보물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후야오방(胡耀邦)이 유화정책을 펴기까지 수천개의 불상이 무기공장에서 녹여졌고 허술한 관리를 틈타 티베트의 국보는 해외로 흘러갔다.

70년대 이후 중국정부가 도굴과 밀수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음에도 문화재유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티베트 불교문화재에 탐닉한 서구의 수집가 때문이다.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티베트문화재는 이젠 단골일 정도다.

중국정부의 미온적인 대책도 문화재 유출을 부채질하고 있다. 감독을 게을리해 민-관 할것없이 모두 문화재 팔아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란 보도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통일염원 대형 염주 전시
10월 고성 통일전망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길이 150m, 무게 6t의 초대형 염주가 전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불자 임관지(林寬至·42)씨는 최근 통일전망대를 방문해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제작한 대형 염주 108개를 기증키로 하고 전시방법과 인도시기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임씨가 기증키로 한 염주는 수령 2000년 정도된 아프리카산 원목을 재료로 제작한 것. 지름 90㎝로 어른이 양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정도며 전체 길이는 150m, 무게는 6t에 이른다.

임씨는 일본 전시가 끝나는 9월 중순 일본을 방문해 구체적인 협의를 마치고 9월말 부산항으로 들여와 통일전망대로 옮겨온 뒤 오는 10월 중순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김교각스님 추모 헌다례
경기 남양주시 백천사

경기 남양주시 백천사(주지 무구)와 지장왕보살김교각기념관(관장 무구)은 27일 제3회 김교각스님 성도 및 추모 헌다례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동국대 사회복지회장 송묵스님의 사회로 무구스님의 모시는 말씀, 김영희 남양주시장의 인사말, 전용원 국회의원과 한국차문화협회 이원홍 이사장의 축사, 봉선사 회주 월운스님의 법어, 조영록 동국대 교수(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명예회장)의 추모사, 한국차문화협회의 헌다례(육법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삼화사 인근광산 발파시험

강원도는 21일 쌍용자원개발(주) 석회석광산의 발파가 삼화사 건물과 문화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는 제1차 시험발파를 30일 오후12시 동해시 쌍용자원개발 3-1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불국사 유치원 개관

제11교구 불국사(주지 성타)는 17일 경주시 성근동에 위치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 1층에서 불국유치원 개관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문화회관 1층 300여평의 공간을 사용하는 불국유치원은 5개의 교실과 1개의 교무실을 비롯해 자료실과 다도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공사중인 불국사 문화회관은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수덕사 금강보탑 제막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장)는 지난 14일 금강보탑 제막식 및 진신사리 천불천탑 봉안 법회를 개최했다. 금강보탑은 수덕사 대웅전 안마당에 있던 팔각전탑을 일제가 철거 후 일본식 건축양식으로 조인정사를 세운 것을 다시 헐고 세운 것.

태고종

밀양분원 '통일' 만등불사

경남교구종무원 산하 밀양분원(원장 지공)은 9월 16일 밀양시 삼내면 긴늪숲에서 남북평화통일기원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월봉 경남종무원장 스님을 비롯 철화 법계고시위원장 등 밀양분원 산하 25개 사찰 주지 스님과 신도 1천여명이 동참해 긴늪숲에 1만등을 켜는 관등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천태종

배구대회 우승 영월 삼태사

20일 단양군 영춘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사진)에서 우승은 영월 삼태사, 준우승은 울산 정광사, 3등은 서울 삼룡사와 대구 대성사가 각각 차지했다. 씨름, 팔씨름, 릴레이, 단축 마라톤, 줄다리기, 족구 등이 열린 이번 대회에서의 각 종목 우승은 다음과 같다. △줄다리기= 부산 삼광사 △족구=수원 용광사 △씨름=대구 대성사 △팔씨름 =서울 삼룡사 △단축마라톤=(남) 장대진(제천 삼천사) (여)주은희(영월 삼태사) △응원상=서울 명락사 △후원상=거제 거광사 △최우수선수상=최부식(영월 삼태사)



관문사 추석 제수품 판매

서울 관문사는 추석을 맞아 9월 2~3일 양일간 관문사 지하와 1층 2층에서 추석제수용품을 판매한다. 불자들의 추석준비를 위해 밤 대추 등 농산물과 수산물 등 모든 제수용품들을 한곳에 모아 시중가보다 매우 저렴하게 판매한다. (02)3460-5300

일붕선교종

제주서 종도수련대회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한림읍 용포포교당에서 2백여 종도가 참석한 가운데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교육원장 법운스님 종단 간부스님들과 일붕삼장대학원 학장인 원의범 교수와 강태묵 제주대 교수의 특강과 종단발전을 위한 토론회, 발우공양, 친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으며 일붕 서경보 스님의 유적지인 일붕동산과 삭발처인 산방산 광명사 등도 순례했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회군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비용은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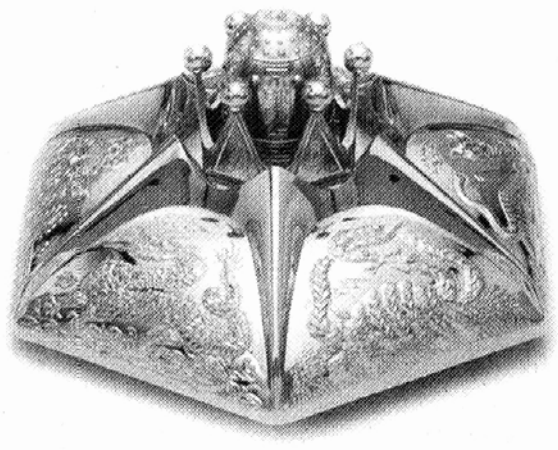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한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사업고 잘되고 장사가 잘되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스님의 글을 넣어도 좋습니다.

◆사용처◆ ※모든 불자님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구입처◆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주)명당육기(氣)방: 051)865-9933
공장: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생각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나 기적(奇蹟)이나 하는 소리가 많다.◆



◇옥련암이 운영중인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는 18개 학교 1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문화재 보존활동, 시설체 방문 등의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옥련암은 청소년도량

20년동안 1천여 청소년불자 양성
동아리방 운영-역사탐방등 인기
조계종 전법도량 시범사찰 지정

21년간 지역사회 청소년포교에 주력하고 있는 아산 옥련암(주지 종인)이 22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전법도량 시범사찰로 지정됐다. 포교원은 이날 옥련암에 전법지원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옥련암은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가 전부인 소규모 암자임에도 불구하고 81년 교계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초·중·고·대학 불교학생회를 조직하여 청소년특성에 맞는 문화법회 등을 실시, 그동안 1천여명의 청소년 불자를 배출했다. 이들 불자들은 현재 학생회 법회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지도교사, 그리고 지역불교를 육성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97년 (사)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을 설립하여 문화강좌, 수련, 놀이, 봉사 등의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 청소년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산시내 온양시장 새마을금고빌딩 2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청소년육성개발원은 매년 8천여명이 이용하는 1백석 규모의 청소년 무료공부방, 다도 인성강좌 등 7개 프로그램을 매일 실시하는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상담실, 노래방 영화관 바둑방 등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서예 만화 등 18개 동아리방 등을 갖추고 있다. 옥련암의 청소년 포교프로그램에는 매년 1만여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옥련암의 청소년 역사탐방과 수련회 등은 불자 및 일반 청소년들의 호응이 높아 아산시의 대표적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청소년들의 참여에 따라 지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과 학부모들까지 포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어린이 포교에도 관심을 가져 전교조 아산지부와 합동으로 어린이날 개최하는 '아산어린이 큰잔치'에는 주민과 어린이 5천여명이 참여하여 지역 축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같이 옥련암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은 신도 중심의 투명한 사찰운영, 신도회는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찰의 재정과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청소년 포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옥련암은 내년부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포교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아산시내 18개 학교를 찾아 이동 청소년문화공연과 생활법문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마련중이다. 최근 아산시청이 지원한 500만원의 지원금으로 35평의 이동무대도 설치할 계획이다.

주지 종인스님은 "시간이 지나면 청소년 불자들이 사회를 이끄는 청·중년 불자들로 자라기에 청소년포교는 미래불교를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납골당 주택가 설치가능

건교부 '도시계획 시설기준 규칙' 개정

앞으로는 주택가에서도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의 사찰 납골당 확충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했던 공동묘지·납골당·화장장과, 자연녹지와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 제한을 삭제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국무회의 의결안과 비교해 실질적으로는 아무 제한없이 이들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사찰 납골당 건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정각스님은 "사찰 납골당 건립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택가에서도 납골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꾀해야만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대중불교 순회강연 재개

대원회, 5년만에…10월 10개 도시서

한국불교대원회는 지난 96년이후 중단됐던 대중불교 전국 순회강연을 오는 10월 재개한다. 교계 안팎의 유명인사들이 연사로 나서게 될 강연회는 서울, 진주, 제주, 이천, 제주지부를 비롯 예전에 지부가 조직됐다가 없어진 부산 포항 경주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원회는 이번 강연회가 대중불교운동을 부활하는 동시에 지부조직을 재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98년 통권 185호를 끝으로 휴간에 들어간 〈대중불교〉 복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빠르면 내년 3~4월 복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대원회는 9월3일 불교문헌정보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도서실을 개관한다. 대원불교회관 1층에 위치한 도서실에는 불교사전, 경전, 신행지침서, 교리서, 불교소설 등 1만여권의 불교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도서실은 대원정사의 전액 출원으로 이뤄졌다. 도필선 기자



◇비전향장기수와 스님, 수원포교당 어린이합창단원이 부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장기수 송환 남북화해 단초"

장기수후원회 통일음악회

불교장기수후원회(상임대표 성관)와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은 '그리운 산하, 아 통일이여'를 주제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축하 문화제인 통일음악회를 22일 수원포교당에서 개최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 실천승가회 부의장 도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법안스님과 40명의 비전향장기수 등 사부대중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통일음악회는 비전향장기수 관련 다큐멘터리(푸른영상 제작) 상영, 성관스님 송사, 어린이합창단 공연 및 축시 낭독, 장사익씨 및 사물패 공연, 비전향장기수인 우용각씨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성관스님은 송사에서 "9월2일 비전향장기수의 북한송환은 남북의 새로운 화해와 협력, 자유로운 왕래의 길을 열어가는 새로운 단초가 될 것"이라면서 "부디 민족이 하나되는 날, 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재경 기자

통일미래 준비 대화마당 연다

좋은벗들, 정토회관서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은 9월 1일부터 12월22일까지 매주 금 오후 7시30분 서초동 정토회관 3층에서 '다시 보는 북한사회·북한사람'을 주제로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을 펼친다.

이번 대화마당은 특강 '김정일을 통해 보는 북한사회'(9월1일, 통일정책연구소 손광주)를 비롯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원리, 북한사람들이 사는 모습-사회·경제 등의 대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11월 24일 심포지엄 '다시 보는 북한사회·북한사람', 12월15일 북한문화의 이해를 위한 특별공연, 12월22일 대담 '북한사람의 남한사회 살아남기'도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02)587-8996 김재경 기자

신협횡령 피의자 기소

'70억' 아닌 '172억' 횡령

서울지검 형사3부(담당검사 최해종)는 24일 조계사 신협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송석윤·조택동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신협과장 송석윤씨는 99년 7월부터 31차례에 걸쳐 신협예치금 중 108억1천3백만원을 횡령, 주식매입과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조씨 두 사람은 64억원을 불법인출해 구권화폐 교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당초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던 70여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조계종 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23일 '조계사 신협 횡령사건에 대한 전국신도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티베트불교 탄압중지 촉구

티베트인권독립회의와 전국법사연합회에 이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도 '중국정부는 티베트 불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정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면서 "중국정부는 티베트 민중들을 억압하지 말고, 즉각 독립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곡성 천태암 복원 추진

경주 석굴암보다도 앞서 창건됐다는 전남 곡성군 천태암 석굴의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종걸 화엄사 주지, 명섭 태안사 주지 스님 등 곡성 출신 각계 인사 300여명으로 구성된 천태암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강정원)는 23일 올해부터 9억4천500여만원을 들여 불상을 조성하고 대웅전을 건립하는 등 천태암 복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엄사 사지에 의하면 천태암은 경주 석굴암보다도 앞선 시기인 신라 문무왕 5년(665) 혜암율사가 창건했으며 57년 화재로 건물 3채가 모두 불탔으나, 3년전 한 스님이 가건물을 세워 이곳에 머물고 있다. 권형진 기자

달성 도성암서 탱화 도난

경북지역에 또다시 탱화도난 사건이 발생해 이 지역 사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도성암(주지 승천)에 20일 밤 11시~21일 새벽 3시 사이 도둑이 들어 대웅전 후불탱화 한 점이 도난당했다. 19세기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후불탱화는 가로 200cm, 세로 150cm 크기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 운주스님인 대전스님은 낮부터 비가 내렸으며 바람이 많이 불어 대웅전 바로 옆에 스님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는데도 전혀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 이상규 과장은 "도난사건은 한번 발생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지역 사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 후기 학위수여

동국대(총장 송석구) 서울캠퍼스 9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5일 오전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박사 75명, 석사 421명, 학사 421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소설가 황석영씨가 30년만에 명예졸업장을, 가수 하춘화씨가 '한국가요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로 문학석사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경주캠퍼스도 30일 오전 제2소강당에서 석사 11명, 학사 174명에 대한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오종욱 기자

"지리산 희귀 동식물 서식 생태보고"

두레생태기행 '보고서'

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서울시 녹색위원)은 지난 7월 16~17일 지리산 함양 문정댐 건설예정지에서 실시한 생태탐사의 보고서를 23일 발표하고, "환경관련 연구위원들의 지리산댐 건설예정지 현장답사 결과 자연생태·역사문화·지역정서적 측면에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두레생태기행 탐사팀은 올벚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 등 천연기념물과 나무발발이·삵꼬치레도룡뇽 등 세계적인 희귀동물들을 비롯 식물 824종·포유류 39종·조류 89종·양서류 9종·파충류 11종·어류 21종·곤충류 1813종이 서식하는 지리산 기슭에 대규모 댐을 만들 경우 안개 일수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탐사팀이 휴천면 송전리 일대에서만도 60종의 야생화(화본류)와 80종의 나무(목본류), 60종의 곤충류, 10종의 어류, 30종의 조류를 발견할 정도로 문정댐 예정지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갓바위, 소원성취

원광 달마도

◐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쳐드립니다.



지장전 중창불사 기금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선근인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품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편리하고 利(LI) 기쁨주는 喜(HL)'S LIHIS양말이 여러분앞에 인사드립니다.

■ LIHIS 건강 지압 양말
☞ 건피부 (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지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원적외선 차단
☞ 음이온 발생
☞ 당뇨·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제조원 (주)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4~5
전남북 대리점 062)956-7676~7
동대구 대리점 053)982-4976
대 구 대리점 053)252-6966
인천·경기대리점 032)765-4445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주부신행담

되찾은 올바른 삶 (下)



그림 · 이준석

무녀의 길 대신 부처님을 찾으니 너무 편안하고 한없이 가벼웠고 '금강경' 속에서 할 일을 깨달았다

샤머니즘을 접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 오직 자신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들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내가 가야할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다. 무녀의 세계에 접어들어 생활하다보니 주위 사람들의 욕심이 말할 수 없이 많고 말도 많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탐욕스럽게 욕심만 부리면서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베풀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삼자에게 이러 이러 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다. 비밀이란 오래 가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받는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이었겠는가. 나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이 나를 도왔다고, 나에게 베풀었다고 떠들 때마다 내 가슴의 상처는 깊어만 갔다.

그걸 알면서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언제고 지치면 그만두겠지 하고 지내온 것이 5년여, 그 속에서 조금은 어른이 된 것도 같다. 인내를 배웠고 슬픔과 아픔의 깊이가 무언지도 알게 되었으며 모를지기 사람은 많이 적어야 한다는 걸 알게된 기간이기도 하다. 그렇게 회의를 느끼면서도 무속의 세계에서 벗어날 용기는 왜 없었는지 모른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다고 여겼던 내가 한감으로 달려가고픈 충동을 몇 번이나 느끼면서도 몸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즈음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 "너는 나를 따라 가자"시며 데리고 가다가는 "안되겠다 그냥 이대로 있어라" 하시더니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꿈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 놀라서 잠을 깬 일도 있었다. 마음은 죽고 싶다는 생각에 한감을 생각하면서도 몸은 따르지 못했다. 그때 몸이 따르지 않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도왔다고 해야 할까? 그렇지만 이미 마음으로부터 무속에 대한 거부감은 감해질대로 감해진 상태였다.

내가 꼼꼼하고 나아가려 했던 삶은 결코 무녀의 길이 아니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다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해왔던 터였다.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은 부처님 말씀으로 알게된 정도의 길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부처님이 그리웠다.

절을 찾아 뛰쳐 나가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치밀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억누르고 있었다. 절에 가고 싶은 마음과 가지 못하는 몸, 내 몸과 마음은 하나이지를 못했다. 그렇게 번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갔다. 그 절은 법당문이 꼭 닫혀 있었다.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일지 않았다. 항상 열려 있는 마음이 몹시도 그리웠다. 법당 밖에서 그대로 합장하고 반배를 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누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소리내어 엉엉 울었을 거다. 어떠면 그렇게봐 법당엔 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몸은 말을 안들었지만 늘 "나는 절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 속으로 절규를 했기 때문에 보다 못해 이곳까지 끌고 왔나 보다.

그 이후 내 생활을 과감히 바꾸었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내 삶의 방식을 개척해 나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렇게 부처님과 더 친숙하게 만나갔다. 어렵게 내린 결론이었지만 내 결정에 만족한다. 부처님께 귀의하니 너무 편안하고 한없이 가벼운데 왜 그렇게 무속에 얽매여 살았던지…. 무지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끌려 다니는 감도 없지 않았지만 그동안 찌들었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

마음자세도 중요하지만 경을 독송하라는 데야 마다할 것이 없었다. 어느 날엔가는 〈금강경〉을 독송하고 싶었다. 왜 유독 〈금강경〉만은 봄 인연이 닿지 않았던지…. 처음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눈물이 났다. 너무도 감사했다.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다 있었는데 왜 진작에 몰랐던지. 내가 원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수도승은 아니지만 재가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언제나 수행하는 자세로 임하고픈 마음이었다. 〈금강경〉을 읽으며 이제 문득 내가 해야할 일을 깨달은 듯 했다. 기쁘기 한량없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가르침을 조용히 말없이 실행에 옮겨 나가도록 애쓸 것이다.

이제 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조금은 별스러웠던 것 같다. 그 어떤 곳에든 얽매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싫고 집착 받는 것도 싫었다. 남녀의 문제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나만을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여기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 조차도 부담스러울 뿐이다. 걸림없이 산행도 다녀오고 싶으면 훌쩍 다녀오고 또한 금이 무언가를 얽고자함도 없었다. 그렇다고 현재 처해있는 생활에 너무 저물러서도 안될 것이다. 앞에서도 여기했듯이 난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에도 충실하며 '나'를 가꾸어 나가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 때는 이러한 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염려도 했지만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난 샤머니즘의 세계를 다르게 보지는 않는다. 무속신앙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안목으로 그들을 보아줄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엇이든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 '상'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이나 불교인들이나 다를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을 나쁘게만 볼 게 못된다. 그네들은 일단 마음만 먹으면 형으로 옮기기만 우리 불자들 대부분은 형보다 말이 앞서고, 큰소님 법문 한마디 듣는 것이 최고의 공부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된다. 법문을 체화시켜 실천에 옮기고,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자라면 반드시 사찰만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대자연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처의 모습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구태여 만나뵈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연이 닿는다면 자연스레 만나지지 않을까? 난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닦은 만큼 얻고 그렇지 못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모두 수용하고 싶다.

홀가분하는 건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수행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같다. 가끔 자신을 얽게 못해 화를 낼 때도 있지만 언제고 진정 바뀔 수 있는 나를 가꾸고 싶다. 현생에서 못다함을 내생에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해탈에 있다면, 진정한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면, 현상의 생각없이 권안한 삶보다는 또다시 인간의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 변화 속에서 무언이 나란 존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나름대로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존중하는데 진정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보살의 마음이 되었으면…. 앞으로도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백련화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

독한향으로 인한 고통
천연향으로 싹 해결하십시오

일제향만 꼭 피우시겠습니까?

① 월각문
마음을 여는 문을 가르키는 이름으로 마음의 여백을 향기로 열어주는 심연의 향기로서 궁중이나 사원에서 널리 애용되어 온 순수 전통 천연향으로 특히 침향, 울릉도 자단향, 영능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향기가 매우 고귀하고 맑아 마음과 정신 육신을 능히 맑게하고 밖으로는 하늘까지 통하고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오장육부까지 그 향기가 전해지는 향

② 신금난
백단향 백리향과 금산향만의 특이한 3대째 내려오는 장인정신이 깃든 배합과 숙성기술로 탄생된 명향으로 일본에서 한중일 무역박람회에서 우리의 천연향기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일명 피우는 우리의 향수! 피울때는 정신을 맑게하고 그 잔향은 몸에 베어 은은하게 흘러 나와 타인의 기분까지 좋게 하는 우리 선조의 이웃사랑정신을 알게 하는 향

최고급 선물세트



일본수출기념 향꽃이 무료증정

✦ 특별보급가격 42,000원

한국천연향의 자존심 최우는 우리의 향수

귀하신분께 귀한 선물을…

③ 백 난
옛부터 소향의 가루향으로 많이 쓰이는 향재를 사용한 것으로 목향, 육계, 정향 난향등을 잘 조화를 이룬 제향기술로 사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그 향기가 미묘하고 아름다워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끼게 하는 향

錦山香堂
천연향만을 고집하며 1대를 이어온 100년 전통의 금산향당

◈보급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9-1번지
◈일 터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96-2번지
◈http://www.ksbuy.co.kr

◈무료전화
080-776-7000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 재 : 황동(순금도금) ■직 경 : 80mm ■가 격 :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 판매 : 인터넷 ■교 백화점 마하■ ■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품위있는 소장을"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을"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불립문자로 반야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맥차단 운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야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재질 및 특징

에폭시, 우레탄등 5종류의 특수재질을 혼합 나뭇결 모양을 100% 살린 목재경판 형태로 만들어져 수십년이 지나도 뒤틀리거나 깨지지 않고 가정에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경판 표면의 그림과 문자를 특수 동분처리하여 소장 가치를 높였다.



▶ 스탠드형 경판 (고급 오동나무 케이스 포함)
· 원산지 : 한국
· 규 격 :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 가 격 : 97,000원



▶ 액자형 경판
· 원산지 : 한국
· 규 격 :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 (액자포함 사양)
· 가 격 : 107,000원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